

보험동향 2016년 봄호

총괄	임준환 (선임연구위원)
경제금융 동향	경제총괄 조용운 (연구위원) 세계경제 이아름 (연구원) 국내경제 정인영 (연구원) 국내금융 이해랑 (연구원)
국내보험시장 동향	보험총괄 조용운 (연구위원) 생명보험 최 원 (선임연구위원) 이해랑 (연구원) 손해보험 김경환 (수석연구위원) 정인영 (연구원)
해외보험시장 동향	미 국 이해랑 (연구원) 영 국 정인영 (연구원) 일 본 이아름 (연구원) 중 국 이소양 (연구원)

■ 목차

I. 테마진단

- 유전자변형생물체 리스크와 보험제도 운영방안 고찰 / 1
- 기업성 손해보험의 요율규제 변화와 영향 / 15

II. 경제금융 동향

- 1. 세계경제 / 29
- 2. 국내경제 / 48
- 3. 국내금융 / 63

III. 국내보험시장 동향

- 1. 보험산업 총괄 / 69
- 2. 생명보험 / 75
- 3. 손해보험 / 91

IV. 해외보험시장 동향

- 1. 미국 / 114
- 2. 영국 / 121
- 3. 일본 / 130
- 4. 중국 / 138

부록. 통계표 / 146

I. 테마진단

◆ 유전자변형생물체 리스크와 보험제도 운영방안 고찰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김혜란 연구원

1. 검토 배경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증가로 사람의 건강과 생물다양성 관련 환경 피해사례가 국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010년 LMO 책임구제 추가의정서(「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가 채택되어 손해배상책임법제 마련이 이슈화되고 있음. 추가의정서는 LMO 피해구제 사항을 자국법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이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임. 이에 본고는 LMO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재무적 보장장치인 보험제도 운영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유엔은 1993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에 생물공학안전성과 관련된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라 함)를 포함하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작성 기본계획을 공표하였음.¹⁾

- 생물다양성협약 제19조 제3항은 당사국이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는 LMO에 대한 추가의정서의 필요성과 세부원칙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LMO의 국가 간 이동 시 사람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에 해로운 영향을 고려하여 LMO의 안전한 운송, 취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제협약으로 2000년 1월 2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채택되었으며 2003년 9월 11일부터 발효되었음.²⁾

1) 한국법제연구원(2014), p. 15.

■ 2003년 이후 수차례의 당사국총회를 거쳐 2010년 10월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 (Nagoya-Kuala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on liability and redress to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³⁾가 채택됨에 따라 LMO의 손해배상책임과 피해구제 이행방법에 대한 국제 규범체계가 완성되었음.

- 동 추가의정서는 LMO 관련 손해배상책임과 복구에 대해 국제 규칙 및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인체 건강에 대한 위해를 고려함과 동시에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책임·구제 추가의정서”로 불리고 있음.
- 그러나 LMO 피해(damage)의 인과관계, 손해배상책임 한도 및 이행방법(financial security), 소멸시효 등에 대해서는 가맹국가⁴⁾가 국내법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

■ 우리나라는 1994년 생물다양성협약을 가입하고 2000년 바이오안전의정서에 서명함에 따라 「LMO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의정서 내용을 이행하고 있음.⁵⁾

-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추가의정서를 서명하거나 비준은 하지 않은 상태이나 추가의정서가 LMO 피해구제를 자국입법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과 구제방법 등에 대한 국내 관련 법규⁶⁾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따라 본고는 LMO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보험제도 운영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검토하고자 함.

2) http://www.nifs.go.kr/biosafety/page?id=sl_01020100.

3) <https://bch.cbd.int/database/attachment/?id=11064>.

4) 2014년 2월 현재 EU를 포함한 20개 국가이며 한국은 미가입한 상태임(조인성 2014, p. 435).

5) <https://bch.cbd.int/protocol/parties/#tab=1>.

6) 국내법 논의가 되고 있는 ‘책임 및 구제에 관한 추가의정서 국내이행법률(안)’의 주요내용은 LMO의 피해 개념, 취급자의 범위, 책임규정, 면책사유, 인과관계추정, 배상한도 및 배상절차, 정보제공, 보험가입 및 소멸시효 등임(김종천 2015, p. 836).

2. LMO의 개념 및 리스크

LMO 리스크는 “LMO를 이용,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람의 건강과 생물다양성 등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침으로서 경제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으로 정의할 수 있음. LMO 리스크를 일반 부보가능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보험가입집단의 대량성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사고발생의 우연성, 손해액의 측정가능성, 거대손해 가능성 등은 일반적인 리스크에 비해 다른 특징이 있으며, 보험료가 매우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는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로운 유전물질의 조합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로 정의되며, 그 자체로 생물이 생식 또는 번식이 가능한 살아있는 것을 강조한 개념임(LMO법 제2조).⁸⁾

- 생물체는 유전물질을 전달 또는 복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존재로서, 생식능력이 없는 생물체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도 이에 포함됨.⁹⁾
- LMO는 농업, 식품, 의료 등에서 식량개선, 바이오의약품, 환경개선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시장규모가 국내외적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음.¹⁰⁾
 - 유전자변형작물은 2013년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27개 국가가 재배하고 있으며 재배면적이 1996년 1.7만 ha¹¹⁾에서 2013년 175만 ha로 증가하였음.
 - 국내의 경우 2012년 기준 17개 작물 133종의 식물에 대해 개발 중에 있으며, 화훼류, 임목류, 동물, 곤충, 어류 등에 대해서도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¹²⁾
- 해외로부터 국내에 수입되는 LMO의 규모가 최근 증가하고 있음.
 - 2014년 기준으로 총 1,082만 톤, 31.2억 달러 규모로 LMO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1천만 톤 이상이 수입되었으며 대부분이 농업용이나 식용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LMO의 국내 수입 관련 통계는 <부록> 참조).

7) LMO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전자 조작물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에 대하여 국내 농산물품질관리법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LMO가 생명력을 잃고 냉장, 냉동, 가공된 식품(두유, 두부, 통조림 상태 옥수수 등)과 같이 생식, 번식이 불가능한 물질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됨(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 biosafety).

8)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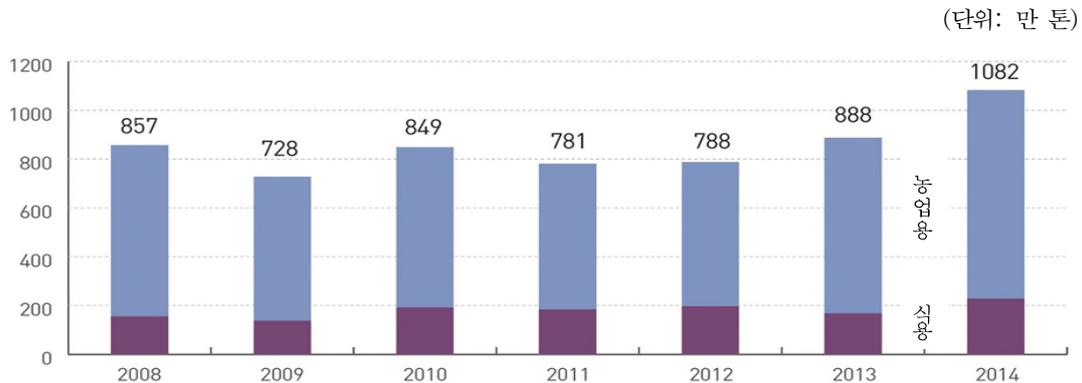
9) 노영희(2014), pp. 12~19.

10) 노영희(2014), p. 10.

11) 1 ha(헥타르) = 10,000m²(제곱미터).

12) 김은진(2006).

〈그림 1〉 국내 LMO 수입규모 추이



자료: 바이오안전성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2015), p. 9.

■ LMO의 증가와 더불어 인명 및 생물다양성과 연관된 환경에 대한 피해사례가 국제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추가의정서는 LMO의 피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LMO의 피해(damage)는 사람의 건강(human health)에 대한 리스크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 영향(adverse effect)으로 다음에 해당되어야 함.¹³⁾
 - ① 사람에게 미친 변이(variation)와 자연현상에 대한 변이에 대해 금전적으로 측정 또는 관찰할 수 있거나 과학적으로 확립된 기준에 따라 공인기관이 인증 받은 것이어야 하며 ② 중대한 부정적 영향(significant adverse effect)이 있어야 함.¹⁴⁾
 - 중대한 부정적 영향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자연적인 복구를 통해서 복구될 수 없는 변화로 이해될 수 있는 장기적 또는 영구적 변화,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적·양적 변화의 정도,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능력 감소,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서 말하는 사람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함.
- 피해에 대한 적용범위는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피해, LMO의 허가 사용 시 발생하는 피해, 비의도적인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피해, 당사국 관할권 경계 내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피해 등임.

13) 김종천(2015), pp. 842~843.

14) 한국법제연구원(2014).

■ LMO의 피해에 대한 과거의 사례를 보면 주로 자연환경변이를 가지고 오거나 생산량 감소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 멕시코는 GM옥수수의 재배를 자국 내에서 금지하여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미국의 GM옥수수 대량 재배지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멕시코 오하카(Oaxaca)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토종옥수수가 GM옥수수로 오염되어 자연현상의 변이가 발생한 사례에 해당됨.¹⁵⁾
- 2006년 8월 미국 바이엘사가 개발하여 실험, 재배했던 GM쌀이 일부 유통과 재배로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미국 쌀 수입을 금지하여 농업인들의 생산가격이 하락하여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인접 경작지 오염이 발생하였으며, 바이엘사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civil liability)을 부담하였음.¹⁶⁾

■ LMO 리스크는 앞의 피해 개념을 감안하여 볼 때, “LMO를 이용,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람의 건강과 생물다양성 등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침으로서 경제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으로 정의할 수 있음.

- LMO 리스크는 취급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 리스크(first party risk)와 취급자 외에 인접한 농장이나 자연 생태계 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제3자 리스크(third party risk)로 구분할 수 있으며, 추가의정서는 제3자에 대한 리스크에 관점을 두고 있음.
- 당사자 리스크는 생물학적 관점에서의 건강 리스크와 생태 및 환경 리스크, 생산감소 및 비용증가의 경제적 리스크가 해당되며, 제3자 리스크는 생물학적 리스크와 경제적 리스크, 사회적·문화적·정치적 규제 리스크가 모두 해당되나 사회적·문화적 규제 리스크는 LMO 손해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15) 동 사건의 경우 LMO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존재하나, 해당 지역의 토종 옥수수가 GM옥수수에 의해 오염(contamination)되어 LMO에 의한 자연환경변이의 사례로 보고 있음 (La Vina Antonio G, M. 2003, p. 7).

16) 아칸소, 미주리,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텍사스, 캘리포니아 주의 쌀 생산농민 11,000명은 바이엘사의 GM 쌀에 의한 작물오염과 수출가격 하락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바이엘사로부터 2011년 7.5억 달러를 지급받았음(Bloomberg Business 2011. 7. 2).

〈표 1〉 LMO 리스크 구분과 보험 리스크 관계

리스크 구분		리스크의 영향	보험관점 리스크	
			당사자 리스크	제3자 리스크
생물학적 리스크	건강 리스크	- 알러지성, 항생물질 내성	○	○
		- 기아(영양부족, 불균형)	-	○
	생태 및 환경 리스크	- 도입유전자의 확산(작물, 잡초의 변형생물체화) - 내성병원체, 잡초, 해충의 발생 - 살충독소에 의한 표적외 곤충 또는 토양미생물의 생태계의 영향	○	○
		- 농업생태계에서 생물다양성의 감소 및 획일화	-	○
경제적 리스크	생산감소 및 비용증가 리스크	- 생물다양성의 감소에 의한 생산기반의 쇠퇴 - 생산량 저하, 식료품 안전보장 위기 - 소규모농가의 경제적 영향(생산비용 증가, 자영기반 해체 등)	○	○
	평판 리스크	LMO 관련 제품의 리스크 발생 시 제조자 또는 판매자의 인지도 등 평판 감소	○	-
사회적 리스크		- 농가의 자가채증, 자가개량 권리 침해 - 도상국의 자급농업의 쇠퇴, 기아와 빈부격차 심화	-	○
문화적 리스크		- 공유재산인 생물자원과 전통지식을 사유물화(biopiracy) - 농업의 전통지식·실천 쇠퇴 또는 대체방법의 배제 - 식문화·농업문화와 생태계의 실천적, 종교적, 윤리적 가치 등 문화적 독자성의 침해	-	○
정치적규제 리스크		- 관련 제품에 대한 인증 및 표식 - 수입 LMO의 리스크평가, 관리, 규제 곤란 - 생물특허 분쟁해결 곤란 - 소비자선택권리 침해	○	○

자료: 平川秀幸(2003), p. 9를 참조하여 보험관점의 리스크로 분류 및 재작성했음.

■ LMO를 일반 보험의 부보가능 리스크(insurable risk)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대량 보험가입집단 확보는 가능하나 사고의 우연성, 손해액의 측정, 거대손해 가능성, 경제적 보험료 관점에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첫째, LMO 리스크는 다수의 업종이 가입대상이므로 동질위험집단(homogeneous risk group)을 구성하는 것은 곤란하나 대량 가입자 집단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임.

- LMO의 경우 식품, 동물, 어류, 바이오 제약 등 다수 업종에서 취급하는 계약자는 어느 정도 존재할 수 있으나, 이들 업종별 피해의 유형이 인간건강과 생물학적 다양성에 서로 상이하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동질성 확보가 곤란함.

〈표 2〉 LMO 리스크의 부보가능 리스크(insurable risk) 평가결과

구분	보험가능성	분석결과
동질위험집단의 대량성 확보	업종별 가능	LMO 관련 산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수의 계약자 집단 구성은 가능하나 완전한 동질성 확보는 곤란
보험사고의 우연성 또는 비고의성	검증된 LMO만 가능	유전자조작 물질인 관계로 사고 우연성 판단 곤란, 계약자들의 역선택 등의 가능성 존재
보험손해액의 측정 가능성	어려움	LMO 개별물질에 대한 사고경험이 적어 객관적으로 손해액 측정이 곤란할 수 있는 가능성 존재
담보 가능성 (거대손해 가능성)	거대손해발생	- 인적사고는 일시 거대사고 가능성 존재 - 환경복구의 경우 피해의 광범위성으로 큰 손해 가능성 존재
경제적 보험료	높은 보험료	담보위험과 사고의 거대성으로 높은 보험료 부담

- 둘째, LMO의 보험사고는 유전적 조작에 따른 변이 등이 안전한 것으로 검증된 경우에는 취급자의 요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우연성 요건이 충족되나 검증되지 못한 LMO는 자연환경변화나 경작기간의 경과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우연성이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
- 셋째, LMO의 사고는 환경오염사고와 유사하게 상당기간 동안의 잠복기를 거쳐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많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며, 식물인 경우에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일시에 손해를 미치는 등 손해의 광범위성이 존재해 손해액 측정이 난해한 경우도 존재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LMO 사고에 대한 손해평가와 지급보험금의 결정은 일반적인 손해사정 이론 외에 생명공학적 지식 등 과학적 판단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
- 넷째, LMO 사고는 유전자 조작이 잘못된 경우 특정 작물에서 동시에 광범위한 지역에서 장기간 동안 발생하기 때문에 거대손해가 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생물다양성 파괴에 대한 복구사고의 경우 손해측정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다섯째, LMO 리스크가 인간건강(사망과 신체손해), 농작물의 생산감소 등 재산손해, 환경 복구까지 해야 하고 사고의 거대성으로 보험료는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됨.

■ LMO의 이와 같은 리스크 특성에 따라 “바이오안전의정서”를 채택한 국가의 민영보험회사들은 LMO(GMO) 면책특약(LMO exclusion endorsement)을 첨부하거나 보상한도액을

축소하고 자기부담금을 인상하는 형태로 인수하고 있음.¹⁷⁾

- 개별회사별 구체적인 사유는 판단하기 곤란하나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사고가 환경오염사고와 같이 점진적, 누적적으로 발생하고 큰 경작지역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여 거대손해로 이어지기 때문으로 판단됨.

3. LMO 보험제도의 운영방안 제언

추가개정서에 따라 독일, 스위스 등은 유전공학법 등에 LMO 손해배상책임을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음. 추가개정서를 채택한 국가의 민영보험회사들은 LMO(GMO) 면책특약을 첨부하거나 보상한도액을 축소하고 자기부담금을 인상하는 형태로 인수하고 있음. 향후 우리나라가 추가개정서를 시행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불특정 제3자에 대한 피해 구제제도로 보험제도가 국가보증 등 다른 제도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됨.

■ 2010년 추가개정서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국내법에 반영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2008년에 제정된 LMO법에 규정¹⁸⁾하거나 별도의 국내이행법률안을 제정하는 방안¹⁹⁾이 거론되고 있음.

- 국내법으로의 이행방법은 상이하게 접근할 수 있으나 국내법에 규정되어야 할 내용은 LMO의 피해 개념, 취급자의 범위, 책임규정, 면책사유, 인과관계추정, 배상한도 및 배상절차, 정보제공, 보험가입 및 소멸시효 등임.
- LMO 손해배상책임을 자국법화 한 국가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가 있으며 독일만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정하고 위험사업자(안전등급 2에서 4에 해당하는 경우)는 배상책임을 이행하도록 보험증권 또는 보증을 제공해야 함.
 - 스위스는 독일과 달리 연방의회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허가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있는 사업자에게 배상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또는 보증 등을 요구할 수 있음.

17)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2007), pp. 3~7.

18) 조인성(2014)은 LMO법에 손해배상책임 관련 조항의 신설을 주장하고 있음.

19) 김종천(2015) 참조.

〈표 3〉 독일 등 유럽 국가의 국내법 이행 현황

구분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법률명	유전자공학법	유전자공학법	인체 외의 유전자공학법
책임법리	위험책임, 연대책임	위험책임	위험책임
배상책임 대상	제3자 배상책임 환경복원비용	제3자 배상책임 환경복원비용	제3자 배상책임 환경복원비용
배상책임 주체	사업자	사업자	-
인과관계	인과관계추정, 피해자입증	인과관계추정	인과관계추정, 피해자입증
배상책임한도	8,500만 유로까지	-	하한선
정보청구권	피해자에게 인정	피해자에게 인정	없음
손해배상보장 (의무가입)	위험사업자 담보제공의무	-	-

주: 위험책임은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점유 또는 소유하는 자에게는 그것으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하여 당연히 책임을 져야한다는 면책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무과실책임법리를 말함(조미현 2011, p. 515).

자료: 조인성(2014), 김종천(2015)을 참조하여 작성.

■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법리는 독일 등 선형 국가들처럼 위험책임이 적용되고 인과관계의 추정과 입증책임의 전환이 도입될 것으로 보임.

- 독일의 경우 유전공학작업에 기인하는 생명체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나 건강이 침해되거나 또는 물건이 훼손된 경우에 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위험책임을 규정하고 있음(유전자공학법 제32조 제1항).²⁰⁾
- 또한 “손해가 LMO에 의하여 야기된 경우 그 손해는 유전공학작업에 근거한 생명체의 특성을 통하여 야기되었다고 추정한다”는 인과관계의 추정조향을 두고 있으며, 손해가 생물체의 다른 성질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증명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음(독일, 스위스 유전공학법).
- 따라서 국내에서도 독일 등의 사례에 따라 민법 제758조와 같은 위험책임과 인과관계의 추정조향도입 검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²¹⁾

■ 손해배상책임의 이행 방법은 국가가 보증하는 방법보다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 방식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20) 조인성(2014), p. 440.

21) 인과관계 추정규정의 도입은 제 17차 LMO포럼세미나(2015. 11. 6); 조인성(2014); 한국법제연구원(2014) 등에서 다루고 있음.

- LMO 피해는 수많은 불특정 다수인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고 원인불분명 등으로 인해 책임부담자가 없을 수 있는 것에 대비해 국가 보증²²⁾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보다 더 큰 리스크가 있는 환경오염사고, 원자력 사고 등에 대해서도 보험가입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사기업의 경제활동에 국가가 보증하는 사례는 없기 때문에 부적합한 책임이행방법임.
 - 환경부는 환경오염유발시설에 대해 배상책임한도 2,000억 원 범위 내에서 2016년 7월부터 환경오염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 원자력사업자는 1원자력사고마다 3억 계산단위²³⁾의 한도 내에서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
 - 또한 공제조합을 통해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으나 LMO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다수의 업종으로 분산되어 있고 거대 리스크를 인수할 수 있는 담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책임이행의 전가수단으로 기능할 수 없다고 판단됨.
 - 보험방식은 발생빈도가 낮고 거대사고인 경우 가장 경제적인 리스크전가방법에 해당되고, 거대 리스크인 원자력사고나 환경오염사고도 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과 재보험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인수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효과적인 방법임.
 - 또한 LMO 사업자가 속한 협회 또는 단체를 단종대리점으로 활용하여 보험가입을 활성화할 수 있음.
- 보험가입대상 사업자(operator)는 추가의정서에서 “LMO를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자로서 국내법으로 적절하게 정하는 자”로 되어 있어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에 따라 유사하게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임.
- 독일 「유전공학법」에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유전공학적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유전공학작업 또는 방출을 실시하거나 LMO가 포함되거나 그로 구성된 생산물을 최초로 유통시킨 법인, 자연인 등을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음.
 - 국내의 경우도 LMO 사업을 인허가 받은 자, 유통시킨 자, 개발자, 생산자, 수출업자, 수입업자, 운송업자 또는 공급업자가 해당될 것으로 보임.
 - 사업자는 손해원인이 둘 이상인 경우로 피해원인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환경배상책임법과 동일하게 연대책임(Joint & Several Liability)을 부담할 것으로 보임.

22) 한국법제연구원(2014).

23) “계산단위”라 함은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

- LMO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국내의 환경오염사고배상책임 등 각종 의무가입배상 책임보험과 같이 일정배상 한도를 두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금년 7월 시행되는 환경배상책임보험²⁴⁾의 경우 1사고 당 최대 2,000억 원을 규정하여 오염유발자의 과도한 손해배상책임부담을 한정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최대 8,500만 유로 (약 1,152억 원)를 한도로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환경배상책임수준의 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LMO 사고에 대한 보상책임에 대해 자연재해 또는 불가항력, 전쟁행위 또는 내란이라는 책임면제사유를 상세하게 규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독일의 경우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도 유책으로 하여 사업자의 예방조치와 안전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²⁵⁾하고 있지만 사고가 이들 원인과 혼재되어 발생한 경우 보험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음.

- LMO 피해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일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와 달리 장기간²⁶⁾으로 규정 하되 보험약관은 손해배상청구기준 증권(claims-made policy)으로 운영하여 보험회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LMO 피해는 일반 배상책임보험과 같이 우연하고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사고처럼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나타남(gradual risk).
 - 다만, 경작지 오염 등의 피해는 짧은 기간 동안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보험상품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농어업재해보험, 제조물책임보험, 환경배상책임보험 등에서는 면책으로 규정하고 독립적인 “LMO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LMO 리스크를 인식하고 있는 유럽 및 미국의 손해보험회사들은 LMO 또는 GMO와 관련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에서 면책특약을 붙이고 있음.

24) 이기형(2015), p. 4.

25) 전경운(2004).

26) 국내 「원자력손해배상법」의 경우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4. 결론 및 시사점

LMO 보험제도는 LMO 피해 특성상 보험기간을 장기간으로 하되 손해배상청구기준 증권으로 하고, 각종 의무배상책임보험과 같이 일정 배상 한도와 면책조항을 두어 독립적인 “LMO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보험회사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보험 등에서는 LMO 손해배상을 면책으로 규정하여 상품운영의 혼란을 배제하고, LMO 리스크가 거대 리스크임을 감안하여 글로벌 위험분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유전자 재조합 등 생명공학기술을 사용한 생물체 또는 이들이 포함된 제품이 대량으로 생산되어 유통되고 있음에 따라 이로 인한 피해가 인적 손해와 기존 농산물 피해, 나아가 환경 다양성 훼손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²⁷⁾
 - 또한 LMO의 국가간 이동과 피해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0년에 LMO 책임구제 추가의정서가 채택됨에 따라 LMO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 향후 책임구제 추가의정서가 국내 입법화될 경우 LMO 관련 사업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환경 다양성 훼손에 대한 복구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재무적 수단으로 보험제도가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됨.

- 보험제도는 환경배상책임보험과 같이 일정한 한도를 두어 LMO 관련 사업자의 과도한 배상책임부담으로부터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보험회사의 적정 인수여력이 확보되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음.
 - 보험상품은 독립적인 손해배상청구 기준 증권방식의 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하고 LMO사업자와 관련된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제조물책임보험 등에서는 면책특약을 첨부하여 상품 운영의 혼란을 배제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새로운 리스크이고 거대 리스크 성격임을 감안하여 적절한 보험가격적용과 글로벌 위험분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27) 이재협(2004), p. 192.

부록 ▶ 국내 LMO 관련 수입 현황 통계자료

1. 국내 LMO 농산물 수입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물량	비율	물량	비율	물량	비율	물량	비율	물량	비율	물량	비율	물량	비율
대두	LMO	923	77	848	76	922	80	801	71	882	74	729	65	1,021	80
	일반	281	23	275	24	225	20	324	29	318	26	388	35	258	20
	소계	1,204	-	1,123	-	1,147	-	1,125	-	1,200	-	1,117	-	1,279	-
옥수수	LMO	732	52	334	23	993	46.2	969	49	1,034	49	918	48	1,262	61
	일반	680	48	1,114	77	1,156	53.8	1,011	51	1,078	51	985	52	805	39
	소계	1,412	-	1,448	-	2,149	-	1,980	-	2,112	-	1,903	-	2,067	-
	LMO	7,047	94	5,830	92	6,451	98.2	5,847	94	5,779	95	6,820	100	8,469	99.9
	일반	422	6	529	8	115	1.8	345	6	295	5	-	-	6	0.1
	소계	7,469	-	6,359	-	6,566	-	6,192	-	6,074	-	6,820	-	8,475	-

자료: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한국생명과학연구원(2015), p. 11.

2. 국내의 시험·연구용 LMO 수입신고 추이

(단위: 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동물	98	162	158	189	196	883	963	2,649
식물	2	17	41	38	29	44	79	250
미생물	10	6	2	12	9	322	397	758
총계	110	185	201	239	234	1,249	1,439	3,657

자료: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한국생명과학연구원(2015), p. 1.

3. 국내 LMO 연구시설 신고 건수 추이

(단위: 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병원	26	25	3	3	9	38	6	110
대학교	910	162	181	121	343	224	411	2,352
국공립(연)	182	23	20	84	71	94	72	546
기업/기타	146	19	12	20	32	54	50	333
합계	1,264	229	216	228	455	410	539	3,341

자료: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한국생명과학연구원(2015), p. 1.

〈참 고 문 헌〉

- 김은진(2006), 「GMO를 둘러싼 생산·유통 논란」, 『BIOSAFETY』, Vol. 7 No. 3, 바이오안전성정보 센터.
- 김종천(2015), 「책임 및 구제에 관한 추가의정서 국내 이행법률(안)에 대한 평가와 전망」, 『홍익 법학』, 제16권 제1호.
- 노영희(2014),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의 제도 및 정책효율화 방안 - 시험·연구용 LMO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2015), 「제 16차·17차 LMO 포럼 세미나」, 『BIOSAFETY』, VOL. 16 NO. 4.
-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한국생명과학연구원(2015),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주요 통계(요약)」.
- 이기형(2015), 「환경책임법 주요내용과 보험제도 운영방안」, 『주간이슈』, 제342호, 보험연구원.
- 이재협(2004), 「유전자변형생물체 사고에 있어서의 책임배상체제」, 『경희법학』, 제39권 제2호.
- 전경운(2004), 「생명공학의 위험성에 대한 적절한 규율」, 『환경법연구』, 제26권 제1호, 한국환경 법학회.
- 조미현(2011), 『법률용어사전』, 현암사.
- 조인성(2014),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책임과 구제 추가의정서의 최근 동향과 국내 손해배상 입법 대응」, 『법과 정책』, 제20집 제2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한국법제연구원(2014), 『추가의정서 국내 이행 방안 및 인식제고 연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용역보고서.
- 平川秀幸(2003), 「バイオセイフティと国際関係—科学技術がバナンスとしてののを争点と課題」, 日本政治学会研究大会, 尚美学園大学.
- Bloomberg Business(2011. 7. 2), Bayer Will Pay \$750 Million to Settle Gene-Modified Rice Suits.
-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2007), “Financial security to cover liability resulting from transboundary movements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 La Vina Antonio G. M.(2003),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WHAT IS AT STAKE FOR COMMUNITIES?”, *Working Paper No. 4*, Globalization, Environment and Communities.

◆ 기업성 손해보험의 요율규제 변화와 영향

김석영 연구위원, 김혜란 연구원

1. 검토 배경 및 목적

금융위원회는 2015년 10월 보험산업의 상품 및 서비스 위주의 질적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일반손해보험영역에서도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보험요율 산출을 허용하는 등 기업성보험 개발 자율성을 제고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에 본고는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행령 및 감독규정 변경안의 의미와 향후 일반손해보험산업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 2015년 10월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의 양적위주 경쟁을 상품·서비스 위주의 질적 경쟁으로 촉진하기 위해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였음.¹⁾

- 이는 상품개발·자산운용 관련 사전적 규제를 전면 재정비하여 질적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 보호 및 건전성 제고를 통해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임.

■ 일반손해보험 영역에 대해서도 보험회사 자체적인 보험요율 산출을 허용하는 등 기업성보험 개발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보험업법 등 관련 규정²⁾을 개정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일반손해보험 영역에 특화된 보험회사 신규진입 허용 등을 통해 장기저축성 상품 위주의 성장전략 탈피를 유도함.
-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하여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변경함.

■ 본고는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변경안의 의미와 향후 일반손해보험 산업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5. 10. 19),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2)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6. 3. 30),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 조치를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등 보험업법령 개정-시행: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3. 29일 국무회의 의결), 보험업감독규정(3. 30일 금융위원회 의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3. 30일 확정)”.

2. 일반손해보험 요율규제 현황³⁾

일반손해보험의 요율은 자사요율, 참조순보험요율, 협의요율로 구분되어 왔음. 금융당국은 협의요율 적용대상 조건을 강화하여 협의요율 사용을 축소하려 하였으나, 협의요율은 손해보험회사가 재보험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자유롭게 요율 수준을 정할 수 있고 신고면제이기 때문에 사용비중이 증가하여 왔음. 반면 자사요율이나 참조순보험요율은 기본 요율의 일정 수준 범위 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

가. 요율체계 현황

■ 일반손해보험의 요율은 크게 자사요율, 참조순보험요율 그리고 협의요율로 구분되어 왔음.

- 자사요율은 보험회사가 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산출하는 요율임.
- 참조순보험요율⁴⁾은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의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산출하여 보험업계에 제공하는 요율을 말함.
 - 자사경험을 산출하지 못하는 회사들에게 제공되는 요율임.
- 협의요율은 손해보험회사가 재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산출한 요율임.
 - 거대위험 또는 통계가 부족한 위험을 담보하는 기업성보험 계약에 사용됨.
 - 경험부족과 충분한 자본력이 없는 상황에서 협의요율의 사용은 필수불가결함.

■ 기업성보험 계약은 대형물건으로 갈수록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계약과 달리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이 성립하지 않음.

- 기업성 일반손해보험 계약담보들은 서로 동질적이지 못하고 다양하기 때문임.
 - 손해보험회사는 공장, 시설 등의 위험에 대한 보상조건이나 보상방법에 있어 보험계약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맞춤형(Tailor made)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손해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통계를 기초로 산출하여야 하나 일반손해보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금융당국은 감독대상에서 협의요율⁵⁾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예외적으로 취급하여 왔음.

3) 김석영·김혜란(2015), 『일반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을 참조.

4) 보험업법 시행령 제87조(참조순보험요율의 산출 및 검증) ①항.

5) 90년대까지는 협의요율이라는 용어 대신 구독요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음.

- 과거에는 보험업 감독규정⁶⁾ 제7-74조(일반손해보험의 필수기재사항 면제)에서 일반 손해보험 기업성보험 영역을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것은 보험요율 등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였음.
- 2011. 1. 24 개정안에서는 재보험자 협의요율 사용에 관련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신고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것⁷⁾이 과거 재보험자 협의요율에 해당함.
 - 감독규정 제7-48조(공통사항 신고기준)에서 과거 협의요율 적용대상 보험에 대해 신고를 면제하고 있음.

■ 금융당국은 협의요율 적용대상 조건을 강화함으로써 협의요율 사용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려는 취지에서 협의요율 조건을 상향 조정하여 왔음.

-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스스로 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요율을 산정하는 대신 재보험사가 제공하는 협의요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보험산업 발전에 해가 된다고 판단한 것임.
 - 협의요율을 사용할 경우에는 재보험 출재가 전제되기 때문에 지나친 협의요율 사용으로 재보험이 필요 이상으로 출재되는 것을 우려함.
- 따라서 선박보험, 화재보험, 건설공사보험의 협의요율 조건을 각각 500톤에서 1,000톤, 1증권당 보험가입금액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나. 협의요율 적용실적

■ 일반손해보험(보증, 상해 제외) 협의요율 사용계약 비중은 지난 10년간(FY'03~FY'12)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FY'03년 64.8%였던 협의요율 사용계약 비중은 CY'14년에는 80.9%로 확대됨(〈표 1〉 참조).

6) 2011. 1. 24 개정안 이전 규정.

7) 기업성보험의 특수성과 업계의 편의를 위하여 신고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감독규정을 개정하였음.

〈표 1〉 협의요율 사용계약 비중

(단위: %)

연도	FY'03	FY'05	FY'07	FY'09	FY'12	FY'13	CY'14
비중	64.8	66.5	66.7	72.4	76.3	78.0	80.9

주: 일반손해보험에서 보증 및 상해를 제외한 사용계약 비중임.

FY'03~FY'12는 금융감독원 보고서의 자료이며, FY'13~CY'14는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금융감독원 보고서(2014), 『손해보험회사의 재보험자 협의요율 제도 개선방안』;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통계연보』.

■ 책임보험은 FY'05년과 CY'14년의 협의요율 사용계약 비중은 큰 변화가 없으나 해상과 기술 보험은 협의요율 사용계약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표 2〉 참조).

- 책임보험은 협의요율 비중이 약 64%로 변화가 없으나 해상과 기술은 60%대에서 80%대로 증가함.
- 기타특종의 협의요율 사용 비중은 거의 100%로 변화가 없었음.

〈표 2〉 연도별 협의요율 비중

(단위: %)

구분	FY'05	FY'10	FY'13	CY'14
해상	63.2	86.2	85.2	83.3
기술	66.9	72.6	86.4	83.5
책임	64.0	65.5	64.3	63.3
종합	77.6	74.4	83.4	83.7
기타특종	98.2	99.6	99.9	99.9

주: 협의요율 비중은 경과보험료기준임, 화재보험의 협의요율 비중은 5% 미만으로 미미하여 표시하지 않음.

자료: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통계연보』.

■ 일반손해보험회사는 거대위험 또는 통계가 부족한 위험에 대해서 손해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재보험회사와 협의해서 협의요율 및 재보험조건을 결정하였음.

- 거대위험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지 않으나 발생할 경우 매우 큰 손실을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손해율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었음.
- 보험종목별로 협의요율 손해율은 약 40%대에서 약 80% 수준이며 종목별 전체 손해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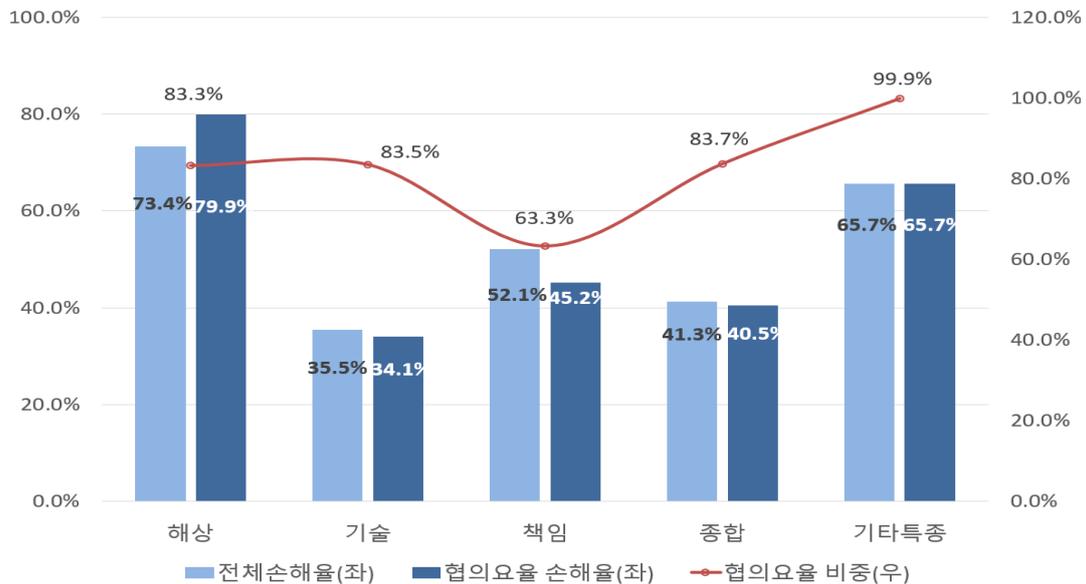
〈표 3〉 연도별 협의요율 원수경과손해율

(단위: %)

구분	전체 손해율				협의요율 손해율			
	2005	2010	2013	2014	2005	2010	2013	2014
해상	68.2	55.8	51.9	73.4	78.0	58.3	54.1	79.9
기술	30.3	34.9	25.2	35.5	25.7	33.1	17.2	34.1
책임	25.8	41.8	41.7	52.1	15.2	26.0	28.0	45.2
종합	30.7	47.9	43.8	41.3	27.6	47.2	43.3	40.5
기타특종	38.3	55.1	54.2	65.7	38.7	55.3	54.3	65.7

자료: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통계연보』.

〈그림 1〉 2014년 협의요율 손해율 및 비중 현황



자료: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통계연보』.

■ 협의요율 사용 비중이 증가하는 이유는 자사요율이나 참조순보험요율과 달리 자유롭게 그 수준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었음.

- 협의요율은 신고가 면제되고 재보험사와의 협의에 의해서 원하는 수준으로 요율을 결정할 수 있었음.
- 따라서 일반손해보험회사는 가격경쟁 시 자사요율이나 참조순보험요율 대신 회사가 원하는 수준의 협의요율을 제공하는 재보험회사를 찾게 되었음.

■ 반면에 자사요율이나 참조순보험요율은 요율 수준을 자유롭게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어 시장 경쟁에서 불리하였음.

- 자사요율이나 참조순보험요율은 기본 요율의 일정 수준 범위 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함.
- 따라서 보험회사가 특정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격을 인하하고자 할 때 원하는 가격에 인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다. 일반손해보험 요율규제의 문제점

■ 보험회사는 자사요율, 참조순보험요율 그리고 협의요율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없었음.

- 자사요율 > 참조순보험요율 > 협의요율의 순으로 요율을 사용할 수 있으며 역방향으로 요율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없었음.
 - 자사요율을 사용하면 계속 자사요율을 사용하여야 하고, 참조순보험요율을 사용하면 계속 참조순보험요율 또는 자사요율을 사용해야 하고 협의요율을 사용할 수는 없었음.
 - 통계를 기초로 한 자사요율, 참조순보험요율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조치였음.

■ 요율산출에 대한 자율성을 제한한 것은 보험회사가 경험을 축적하고 통계를 바탕으로 요율을 산출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나 보험회사가 협의요율 사용 비중을 늘리면서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하였음.

- 협의요율은 자유롭게 요율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고 신고면제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선호함.

■ 과거 요율규제에서는 판단요율이 인정이 되지 않음으로써 언더라이터의 위험분석 능력을 향상시킬 요인이 제한적이었음.

- 판단요율이란 보험회사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위험률 관련 자료 등을 기초로 전문가적 시각에서 판단·결정하는 요율임.
- 기업성 일반손해보험은 통계를 바탕으로 요율을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언더라이터의 위험분석에 기초한 판단요율이 중요함.

3. 일반손해보험 요율규제 개선 방안 및 평가

금융당국은 요율의 자율성 강화, 보험회사 역량 강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일반손해 보험 요율체계의 개선안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협의요율 외에 비통계적 요율 산출법인 판단요율 사용을 허용하였으며, 통계적 요율 산출이 가능함에도 비통계적 요율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그리고 동일한 위험에 대하여 합리적 사유 없이 보험료 차별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금융당국은 현행 일반손해보험 요율규제가 가지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기존 재보험사로부터 제공받는 협의요율 외에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보험요율 산출도 가능하게 됨.
- 통계적 요율 산출이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도 협의 또는 판단요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함.
 - 통계적으로 산출한 요율보다 실제 적용요율이 낮은 경우에는 충실한 보험금 지급 재원 확보를 위해 부채적정성 평가 시에 반영하도록 규정함.
- 소비자 보호 방안 및 보험요율산출 방법 등에 대한 내부통제장치도 함께 마련함.
 - 동일한 위험에 대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이 보험료 차별 금지 등을 포함함.

가. 신고대상상품 축소

■ 기업성보험의 신고면제 조항(보험업 감독규정 제7-48조 ②항)을 삭제하는 대신 신고대상을 명시함으로써 신고면제의 범위를 대폭 확대함(〈표 4〉 참조).

〈표 4〉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6 기초서류의 신고대상

1.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되지 않는 위험을 보장하거나 새로운 위험구분단위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는 경우. 다만, 다른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 (목적) 기업성보험의 신고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보험회사들이 이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편법 사용을 제한하기 위함임.

- (평가) 기업성보험의 특징상 계약별로 다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기업성보험이 기초서류의 신고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규정 개정의 효력이 떨어질 수 있음.
- 기초서류를 신고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가 목적이거나 비통계 요율을 사용하는 보험계약의 계약자는 스스로 보험계약을 평가하고 보험회사와 협상을 할 수 있는 기업 또는 집단이므로 비통계 요율을 사용하는 기업성보험 전체에 대해서는 신고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나. 판단요율 신설

- 통계를 기반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삭제하고(보험업 감독규정 제7-73조 ①항 삭제) 요율을 통계·비통계 요율로 구분함으로써(보험업 감독규정 제7-73조 ②항 개정) 보험회사 자체 판단요율 사용을 허용함(〈표 5〉 참조).

〈표 5〉 보험업 감독규정 제7-73조 ②항 개정

보험회사는 과거 경험통계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하거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제공하는 참조순보험요율을 참고한 보험요율(이하 '통계요율'이라 함)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일반손해보험의 기업성 보험(자동차보험 제외) 및 제4-4조의2에 따라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통계요율 이외의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4. 1]

- (목적) 기업성 보험에 대해서는 비통계 요율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보험회사들이 언더라이터에 의해 자유롭게 자체 판단요율을 사용할 수 있게 함.
- (평가) 자체 판단요율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험회사 언더라이터의 역량이 중요시되며 이는 보험회사의 위험평가 능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재보험사가 제공하는 협의요율은 비통계 요율로 구분됨으로써 기존에 재보험사가 제공하는 협의요율 사용기준이 삭제되어 협의요율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됨(보험업 감독규정 제7-48조 ②항 삭제).
- (목적) 협의요율 사용 기준이 된 신고면제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지난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재보험자가 제공하는 요율 사용 기준이 사라짐.

- (평가) 보험회사는 필요시 언제든지 재보험자의 협의요율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장에서 요율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다. 차별금지원칙 도입(보험업법 요율산출원칙을 준용)

■ 보험계약자의 차별을 막기 위해서 동질의 위험을 가진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요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게 함(〈표 6〉 참조).

〈표 6〉 보험업 감독규정 제7-73조 ⑥항 신설

보험회사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산출한 보험요율 등을 통해 동질의 위험을 가진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요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6. 4. 1]

- (목적) 동질의 위험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별로 보험요율이 다르게 적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평가) 동질의 위험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불분명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회사들이 통계요율 또는 비통계요율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특정 물건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인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의 동질 위험에 적용된 요율과 다른 요율을 사용할 수도 있음.

라. 요율규제 완화 보완대책 도입

〈내부통제기준〉

■ 보험계약자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보험요율의 산출절차와 방법을 관리할 것을 요구함(〈표 7〉 참조).

〈표 7〉 보험업 감독규정 제7-79조의 3 개정

① 보험회사는 제7-73조 제2항 단서 조항에 따라 보험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요율, 경험실적 등 관련 통계를 보관하여야 하며 보험요율산출기관에 해당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요율을 산출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별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등 보험요율의 산출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4. 1]

- (목적) 보험회사의 기업성보험에 대한 기본 방향을 반영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위험관리 및 효율산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임.
- (평가) 보험계약자별 형평성의 정확한 정의가 부재하여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음.
 - 기업성보험의 특성상 개별 계약물건이 동일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디까지 형평성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함.
- (평가) 가격덤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적립금 요구와 더불어 이 조항이 효율 운영기준을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회사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기준이 마련될 경우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 시행령 22조(내부통제기준)의 개정과 함께 내부통제기준이 포함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업계와 논의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음.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도입〉

- 효율 자율화에 따른 보험회사의 가격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적립금을 쌓도록 요구함(〈표 8〉 참조).

〈표 8〉 보험업 감독규정 제6-18조의 3 ②항 신설

보험업 감독규정 제6-18조의 3 ②항 신설

제7-73조 제2항에 따른 기업성보험 중에 통계요율을 산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계요율과 실제 산출요율 간의 차액을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범위까지 미경과보험료 적립금 평가액에 추가로 반영하여야 한다.

- (목적) 효율자율화의 부작용으로 인한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
- (평가) 자사요율 또는 참조순보험요율은 통계를 바탕으로 하고 협의요율은 재보험자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효율 덤핑이 거의 불가능하였으나 자체판단요율은 보험회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효율 덤핑이 가능함.
- (평가) 실제 산출요율이 자사요율 또는 참조순보험요율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요구됨.

■ 적립금 반영(보험업 감독규정 제6-18조의3 ②항)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온 일반손해보험 요율규제의 변화가 가져올 시장의 충격 완화가 예상됨(〈표 9〉 참조).

〈표 9〉 보험업 감독규정 부칙 제3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적용례 신설

보험업 감독규정 부칙 제3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적용례 신설

제6-18조의3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작성·변경되는 기초서류로서 판매개시일이 2018년 4월 1일 이후인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부터 적용한다.

- (목적) 협의요율 사용에 대해서는 2018년 4월 1일 이전까지는 현재와 동일하게 사용가능하도록 하여 협의요율과 관련해서 일반손해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의 충격 최소화임.
- (평가) 보험회사의 충격을 줄이면서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터의 위험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준비 시간을 제공함.

4. 결론

우리나라 규정개정안은 비통계 요율 사용 시 사후 추가 적립금만이 반영되므로 미국의 자본 규제에 비해 영업적인 측면에서 유연한 제도임. 보험회사에 재무건전성 감독 뿐 아니라 보험요율 산출절차 및 방법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체계적이고 일관된 보험요율을 산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임. 이번 조치를 통해 일반손해보험회사들은 각사의 역량에 맞는 전략이 요구되어지며, 일반손해보험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일반손해보험 요율규제 변화를 위한 규정개정은 크게 요율의 자율성 강화, 보험회사 역량강화, 그리고 소비자 보호로 요약될 수 있음.

- 통계 기반조건을 삭제하고 비통계 요율을 인정함으로써 보험회사들은 자사요율, 참조순 보험요율, 협의요율의 순서에 상관없이 요율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 비통계 요율 인정과 내부통제기준 마련은 일반손해보험회사의 경험이 체계적으로 축적

및 관리되고, 위험평가 역량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 내부통제기준의 일관된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일반손해보험회사의 경험통계 및 자료의 축적과 분석이 이루어질 것임.
 - 전문 언더라이터에 의한 판단요율 중요성이 부각됨으로써 언더라이팅 역량이 강화될 것임.
- 미경과보험료적립금 평가액 반영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통하여 덤핑으로 인한 보험시장 혼란을 막아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일반손해보험 시장이 성숙된 몇몇 나라에서는 요율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시장혼란을 막기 위해서 자본규제 혹은 재무건전성 규제를 사용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대규모 리스크 대상자 요건과 이들을 대상으로 인수하는 보험회사 요건이 맞는 경우 신고면제하는 제도(ECPs: Exempt Commercial Policyholders)⁸⁾를 채택하는 주가 증가하고 있음.⁹⁾
- 미국 뉴욕주는 2012년에 ECP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종목은 기업성 손해보험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보험회사가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재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뉴욕주 보험법(special risks¹⁰⁾): filing exemption 제6301조-제6304조).
 - 재물보험(Property/Casualty)의 경우 보험회사의 직전 연도 보유보험료(net premium)는 연차보고서(annual statement)에서 명시된 위험준비금(surplus to policyholders)의 75%를 초과할 수 없음.
 - 보험회사(지점 포함)는 금융당국에 매년 재무건전성요건을 승인받아야 하며, 지급여력비율(RBC 비율) 200% 이상을 유지하고, 추가적으로 2014년 6월 30일까지 최저잉여금이 계약자잉여금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함.
- EU는 미국과 같은 보험요율 등 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Solvency II 에서 재무건전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영업행위를 규제함.

8) 대규모기업에 해당하는 계약자는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보험상품 가입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요구되는 사항들에 대한 규제를 면제하고 있음.

9) 김석영·김혜란(2015), p. 59 참조.

10) Special risk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단일계약으로 한 종류의 보험종목에 대해서 연간보험료 \$100,000 이상, 또는 연간보험료가 \$100,000이 넘지 않는 보험종목 2건 이상의 합계 연간보험료 \$150,000 이상이어야 함.

■ 우리나라의 규정개정안은 외국에 비해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비통계 요율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미경과보험료 적립금 평가 반영으로 대비하는 것은 미국의 자본 규제에 비해서 영업적인 측면에서 보다 유연한 제도로 평가됨.
 - 보험회사는 사전적인 자본 규제에 따라 영업을 제한받는 대신 사후적으로 추가 적립금만을 반영함으로 자율성이 보다 높음.
-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에 대해 재무건전성을 통한 감독뿐만이 아니라 보험요율의 산출절차 및 방법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내부통제 기준하에 체계적이고 일관된 보험요율을 산출을 요구하는 것임.
 - 보험회사가 시장의 경쟁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험요율의 산출절차 및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

■ 이번 일반손해보험 요율규제 변화는 일반손해보험회사들로 하여금 각사의 역량에 맞는 전략을 요구하고 있어 일반손해보험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경험통계와 위험을 평가하고 요율을 산출하는 언더라이팅 역량을 갖춘 회사는 회사자체의 판단요율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요율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임.
- 자체 판단요율을 산출할 능력이 부족한 회사는 재보험사 협의요율에 보다 의존하게 되어 가격경쟁력이 있는 협의요율을 찾는 가격협상력 향상이 요구됨.
 - 또는, 특정 종목에 회사 역량을 집중하여 특정분야에 전문화된 일반손해보험회사로 거듭나야 할 것임.

■ 금융당국은 개선방안을 통하여 일반손해보험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기업이 필요한 다양한 보험상품을 적기 공급할 것으로 예상됨.
 - 기업성 보험에 대하여 판단요율이 허용되는 만큼, 시장 수요에 따른 다양한 보험상품을 적기에 개발 및 제공할 수 있음.
- 보험회사의 보험요율 산출역량 강화 및 해외 경쟁력 개선을 전망함.
 - 보험회사가 스스로 요율을 산출함으로써 경험 및 통계가 집적되어 기업성 보험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요율 산출 능력이 강화될 것임.
 - 보험요율 확보를 위한 과도한 해외출재가 완화되어 재보험 수지차도 개선되고 해외 진출 시 보험료 경쟁력 확보가 기대됨.

〈참 고 문 헌〉

- 김석영·김혜란(2015), 『일반손해보험 효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
- 금융감독원(2012), 『FY12 상반기(12. 4월~9월) 재보험 실적 분석 및 향후 감독방안』.
- _____ (2013), 『손해보험회사의 재보험자 협의요율 제도 개선방안』.
- _____ (2014a), 『재보험자 협의요율 제도개선 추진방안』.
- _____ (2014b), 『재보험자 협의요율 운영관련 주의사항』.
- 보험개발원(각 연도), 『손해보험통계연보』.
- 미국 뉴욕주 금융감독국(http://www.dfs.ny.gov/insurance/dfs_insurance.htm).

II.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 2015년 4/4분기 미국, 일본, 중국의 경우 전분기보다 경제성장률이 하락하였고, 유로 지역은 상승함.
- 2015년 4/4분기 세계경제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대비 0.3 하락한 99.2를 기록함.
 - 미국, 일본, 중국은 하락한 반면, 유로 지역은 상승함.
- 2015년 4/4분기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은 3/4분기보다 1.1%p 하락한 1.5%를 기록함.
- 2015년 4/4분기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1%p 낮아진 2.5%를 기록함.
- 2015년 4/4분기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전분기대비 하강 국면을 보였고, 이러한 국면은 경기선행지수를 볼 때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4/4분기 유로 지역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대비 경우 소폭 상승하였으나 미국, 일본, 중국은 하락함.

- 미국 경제는 민간소비 및 투자 부진, 수출 감소로 3/4분기보다 1.4%(연율) 성장하는데 그쳤고, 유로 지역은 전분기대비 1.3%(연율)의 성장률을 기록함(〈표 5〉 참조).
- 일본은 민간소비, 주택 및 공공투자, 수출 둔화 등으로 전분기대비 하락한 -1.1%(연율)을 나타냄(〈표 13〉 참조).
- 중국은 고정자산투자 부진 등으로 전분기대비 1.6% 성장에 그침(〈표 9〉 참조).

〈표 1〉 세계경제 성장률¹⁾

(단위: %)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세계 ¹⁾	n.a.	n.a.	n.a.	n.a.	3.4	n.a.	n.a.	n.a.	n.a.	3.1
선진국 ¹⁾	1.5		2.1		1.8	1.9		1.8		1.9
신흥국 ¹⁾	4.8		4.1		4.6	4.4		3.7		4.0
미국 ²⁾	-0.9	4.6	4.3	2.1	2.4	0.6	3.9	2.0	1.4	2.4
유로 ³⁾	0.9	0.2	1.2	1.4	0.9	2.3	1.6	1.2	1.3	1.6
일본 ⁴⁾	5.2	-7.9	-2.5	2.2	0.0	4.6	-1.4	1.4	-1.1	0.5
중국 ⁵⁾	1.6	1.8	1.8	1.7	7.3	1.3	1.9	1.8	1.6	6.8

주: 1) 분기 경제성장률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증가율, 연간 경제성장률은 원계열 전년대비 증가율임.

2) 세계: 미국, 한국, 중국 외 183개국 / 선진국: 미국, 영국, 타이완 외 32개국 / 신흥국: 멕시코, 이란 외 149개국.

3) 국가별 분기성장률은 전분기대비 연율. 단, 중국은 전분기대비 증가율.

자료: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016. 4).

2) U.S. Department of Commerce(2016. 3).

3) Eurostat(2016. 4).

4) 일본 내각부(2016. 3).

5) 중국 국가통계국(2016. 1).

■ 2015년 4/4분기 세계경제 경기선행지수¹⁾는 전분기보다 0.3 하락한 99.2를 기록함.

- 미국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²⁾과 달러화 강세 등으로 전분기보다 0.5 하락한 99.2를 나타냄.
- 유로 지역은 고정자본투자 및 정부지출 증가 등으로 3/4분기보다 소폭 상승한 100.6을 기록함(〈표 16〉 참조).
- 일본은 민간소비, 공공투자, 수출 부진에 따른 일본 경제성장세 둔화 예상으로 3/4분기보다 0.3 하락한 99.8로 집계됨(〈표 13〉 참조).
- 중국은 고정자산투자,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한 중국 경제 둔화 가능성으로 3/4분기보다 0.3 하락한 97.8을 나타냄(〈표 9〉 참조).

1) 6개월 후의 경기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로 지수가 전월보다 올라가면 경기상승, 내려가면 경기하강을 의미함.

2) 미국 연준은 2015년 12월 17일 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기로 결정함.

〈표 2〉 OECD 경기선행지수¹⁾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세계 ²⁾	100.3	100.3	100.2	100.1	100.2	99.9	99.8	99.5	99.2	99.6
선진국 ³⁾	100.5	100.5	100.4	100.4	100.4	100.4	100.3	100.0	99.8	100.1
미국	100.6	100.8	100.8	100.7	100.7	100.5	100.2	99.7	99.2	99.9
유로	100.5	100.4	100.1	100.1	100.3	100.4	100.5	100.5	100.6	100.5
일본	101.2	100.6	100.1	100.0	100.5	100.2	100.2	100.1	99.8	100.1
중국	100.7	100.4	100.0	99.6	100.2	99.0	98.7	98.1	97.8	98.4

주: 1) 2007.1=100, 월간자료를 분기는 3개월, 연간은 12개월 단순 평균하여 산출함.

2) OECD 국가와 6개 주요 신흥국.

3) OECD 국가.

자료: OECD.

■ 2015년 4/4분기 전년동기대비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은 3/4분기보다 1.1%p 하락한 1.5%를 기록함.

○ 선진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3/4분기대비 1.1%p 하락한 1.6%를 나타내었고, 신흥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0%p 하락한 1.2%를 나타냄.

〈표 3〉 세계 무역 규모 증가율^{1),2),3)}

(단위: %)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세계 ¹⁾	2.4	2.6	3.6	4.0	3.2	3.5	2.4	2.6	1.5	2.5
선진국	2.2	1.9	2.5	3.5	2.5	4.2	2.8	2.7	1.6	2.8
신흥국	2.6	3.3	4.7	4.6	3.8	2.3	1.8	2.2	1.2	1.9

주: 1) 2015년 현재 OECD 국가 중 Luxembourg를 제외한 23개 국가와 6개 주요 신흥국, 60개 신흥국을 대상으로 함.

2) 선진국과 신흥국은 IMF의 분류 기준과 동일.

3) 전년동기대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 2015년 4/4분기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1%p 낮아진 2.5%를 기록하였고,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도 낮아짐.

○ 선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4분기보다 상승한 0.4%를 나타낸 반면, 신흥국의 경우는 전분기대비 0.3%p 하락한 4.6%를 나타냄.

○ 두바이 현물지수와 WTI 현물지수는 전분기보다 각각 20.1%, 11.4% 하락하였고, CRB 상품지수³⁾도 7.4% 낮아짐.

〈표 4〉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구분	소비자물가 상승률 ¹⁾ (%)					구분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²⁾				
	2015						2015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세계	2.4	2.4	2.6	2.5	2.8	두바이 현물지수	52.3	61.1	48.4	38.7	50.1
선진국	0.3	0.2	0.2	0.4	0.3	WTI 현물지수	48.5	59.8	47.1	41.8	49.3
신흥국	4.4	4.5	4.9	4.6	4.7	CRB 상품지수	220.3	224.3	201.8	186.9	208.1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1967=100 기준.

자료: IMF WEO(2016, 04); 한국은행; Bloomberg.

3) 국제적인 상품가격 조사회사인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만든 지수로, 1956년에 첫 발표된 가장 오래된 상품지수임. CRB 지수는 2005년에 결정된 비중에 따라 서부텍사스산 중질유를 비롯해 천연가스, 금, 구리, 니켈, 설탕, 커피, 옥수수, 밀, 오렌지주스, 돼지고기 등 19개의 원자재 선물가격 평균을 상품지수로 나타낸 것으로 농산물 비중이 가장 큼. 지수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이 예견되거나 그 상품의 수요 증가를 의미함.

가. 미국경제

- 2015년 4/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소비 및 투자 둔화, 수출 감소 등으로 전분기보다 0.6%p 하락한 1.4%를 나타냄.
- 2015년 4/4분기 전분기대비 소매판매 증가율과 소비자신뢰지수는 낮아졌으며, 신규 주택착공호수는 감소하였지만 주택가격지수는 소폭 높아짐.
- 2015년 4/4분기 산업생산증가율, 설비가동률,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전분기대비 하락한 반면, 경기선행지수는 소폭 상승함.
- 2015년 4/4분기 취업자 수는 전분기대비 증가하였고 실업률도 소폭 하락세를 보여 고용이 계절성으로 인해 증가한 모습을 보임.

〈경제성장〉

- 2015년 4/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및 투자 둔화, 수출 감소 등으로 3/4분기보다 0.6%p 하락한 1.4%를 기록함.
 - 민간소비 증가율의 경우 전분기대비 0.6%p 하락하였지만 따뜻한 날씨로 인해 난방비 등 관리비 지출 감소⁴⁾로 2.4%를 기록함.
 - 민간투자 증가율의 경우 설비투자 둔화 등으로 -1.0% 나타내며 전분기에 이어 하락세가 지속됨.
 - 수출 증가율은 달러화 강세로 인해 전분기보다 2.7%p 하락한 -2.0%를 나타내었고 수입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3.0%p 하락한 -0.7%를 기록함.
 - 정부지출은 전분기보다 1.7%p 하락한 0.1% 증가함.

4) 국제금융센터(2016. 1. 30), “미 4분기 GDP 성장률 주요내용 및 평가”, *Economic Brief*.

〈표 5〉 미국의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실질GDP	3.8	1.5	-0.9	4.6	4.3	2.1	2.4	0.6	3.9	2.0	1.4	2.4
민간소비	3.5	1.7	1.3	3.8	3.5	4.3	2.7	1.8	3.6	3.0	2.4	3.1
재화	3.1	3.1	1.1	6.7	4.1	4.1	3.3	1.1	5.5	5.0	1.6	3.7
서비스	3.7	1.0	1.4	2.4	3.1	4.3	2.4	2.1	2.7	2.1	2.8	2.8
민간투자	4.2	4.5	-2.5	12.6	7.4	2.1	5.4	8.6	5.0	-0.7	-1.0	4.9
설비	8.7	3.0	8.3	4.4	9.0	0.7	6.2	1.6	4.1	2.6	-2.1	2.8
주택	-8.1	9.5	-2.8	10.4	3.4	10.0	1.8	10.1	9.3	8.2	10.1	8.9
수출	10.9	2.8	-6.7	9.8	1.8	5.4	3.4	-6.0	5.1	0.7	-2.0	1.1
수입	1.0	1.1	2.8	9.6	-0.8	10.3	3.8	7.1	3.0	2.3	-0.7	4.9
정부지출	-2.7	-2.9	0.0	1.2	1.8	-1.4	-0.6	-0.1	2.6	1.8	0.1	0.7

주: 전분기대비 연율화합.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2016, 3), Bureau of Economic Analysis.

〈내수부문〉

- 2015년 4/4분기 전분기대비 소매판매 증가율은 낮아졌으며 소비자신뢰지수도 낮아짐.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8%p 낮아진 0.3%를 나타내었으며 2016년 1월에는 전월대비 동일한 -0.4%를 나타냄.
 - 4/4분기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보다 2.3 낮아진 96.0을 기록하였으며 2016년 1월에는 전월대비 1.6% 증가한 97.8로 높아짐.

- 2015년 4/4분기 신규주택착공호수는 감소하였지만 주택가격지수는 소폭 높아짐.
 -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2.1%p 하락한 -2.0%를 나타내었으며, 2016년 1월에는 전월대비 2.0%p 낮아진 -3.4%를 기록함.
 - 주택가격지수는 전분기보다 0.2% 상승한 182.6을 기록하였고 2016년 1월에는 전월대비 유사한 수치를 나타냄.

〈표 6〉 미국의 주요 내수부문 지표

구분	2014					2015					2016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소매판매 증가율 ¹⁾ (%)	0.6	2.4	0.7	0.6	3.9	-0.9	1.4	1.1	0.3	2.2	-0.4
소비자신뢰지수 ²⁾	80.5	83.4	90.9	92.7	86.9	101.4	96.2	98.3	96.0	98.0	97.8
신규주택착공호수 ³⁾ (%)	-7.7	5.4	4.6	2.6	7.8	-7.3	18.4	0.1	-2.0	10.7	-3.4
주택가격지수 ⁴⁾	165.9	170.5	173.5	173.0	170.7	173.7	178.9	182.2	182.6	179.3	182.6

주: 1) 계절조정, 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Conference Board 1985=100.

3) 계절조정,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4) S&P/Case-Shiller 20대 도시 주택가격 계절조정, 2000.1=100.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Conference Board; S&P Dow Jones Indices.

〈생산부문〉

■ 2015년 4/4분기 산업생산증가율, 설비가동률,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⁵⁾는 전분기 대비 하락한 반면, 경기선행지수는 소폭 상승함.

○ 4/4분기 산업생산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4%p 하락한 -0.8%를 나타내었으나, 2016년 1월에는 전월대비 1.3%p 증가한 0.8%를 나타냄.

- 설비가동률은 4/4분기 77.0을 기록하며 전분기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며 2016년 1월에는 전월대비 0.8% 증가한 77.0을 기록함.

○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의 경우 4/4분기에는 전분기보다 하락한 48.6을 나타내었으며 1월에는 전월대비 0.4% 증가한 48.2를 기록함.

○ 4/4분기 경기선행지수는 3/4분기대비 소폭 상승하며 123.4를 기록하였고, 1월에는 전월대비 0.2% 감소한 123.1을 나타냄.

5)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를 구성하는 요인은 생산, 신규주문, 수출주문, 취업, 부품구매, 주문잔고, 납품업체 배송, 재고 등 11개 항목임.

〈표 7〉 미국의 주요 생산부문 지표

구분	2014					2015					2016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산업생산증가율 ¹⁾ (%)	0.9	1.4	1.0	1.2	3.7	-0.1	-0.6	0.6	-0.8	1.3	0.8
설비가동률 ²⁾	77.3	78.0	78.3	78.8	77.4	78.4	77.7	77.9	77.0	77.9	77.0
ISM제조업PMI	54.0	55.5	56.5	56.6	55.6	53.2	52.6	51.0	48.6	51.3	48.2
경기선행지수 ³⁾	114.4	116.3	118.2	119.9	117.2	120.6	122.2	122.7	123.4	122.2	123.1

주: 1)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2007=100.

3) 2004=100.

자료: 국제금융센터;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Conference Board.

〈고용과 물가⁶⁾〉

■ 2015년 4/4분기 취업자 수는 전분기대비 증가하였고 실업률도 소폭 하락세를 보이며 고용시장이 개선됨.

○ 비농업 취업자는 84만 6,000명으로 전분기보다 27만 명 증가하였으며, 평균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27만 2,000명으로 전분기보다 1,000명 감소함.

- 한편, 2016년 1월 비농업부문 신규고용은 전월대비 9만 9,000명 감소한 17만 2,000명으로 집계됨.

○ 실업률은 전분기보다 0.2%p 하락한 5.0%를 기록하였고, 1월에는 전월대비 0.1%p 낮아진 4.9%를 나타냄.

- 포괄적 실업률의 경우 4/4분기에는 9.9%, 2016년 1월에도 전월과 동일한 수치인 9.9%를 기록함.

■ 2015년 4/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소폭 높아졌으나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와 동일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4%p 상승한 0.5%를 나타내었고, 2016년 1월에는 전년동월대비 1.5%p 높아진 1.4%를 기록함.

6) 물가 지표는 다른 지표와는 달리 계절적 요인이 영향을 주로 받기 때문에 전년동기와 비교함.

- 근원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2.0% 상승하였고, 2016년 1월에는 전년동월대비 0.6%p 높아진 2.2%를 나타냄.
- 전년동기대비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3.3%를 나타내었고, 1월에는 전년동월대비 1.8%p 높아진 -1.2%로 집계됨.
-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0.4%p 하락한 1.8%였으며, 2016년 1월에는 전년동월과 동일한 1.7%를 기록함.

〈표 8〉 미국의 주요 고용·물가 지표

구분	2014					2015					2016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실업률 ¹⁾ (%)	6.7	6.2	6.1	5.7	6.2	5.6	5.4	5.2	5.0	5.3	4.9
포괄적 실업률(u-6) ²⁾ (%)	12.6	12.1	12.0	11.4	12.0	11.1	10.7	10.2	9.9	10.5	9.9
비농업취업자 증감 ³⁾ (만 명)	62.7	82.9	73.6	82.3	301.5	57.0	75.2	57.6	84.6	274.4	17.2
실업수당 청구자 수 ⁴⁾ (만 명)	32.6	31.5	30.1	29.0	30.8	28.8	27.8	27.3	27.2	27.8	28.3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	1.4	2.1	1.8	1.3	1.6	-0.1	0.0	0.1	0.5	0.1	1.4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	1.6	1.9	1.8	1.7	1.8	1.7	1.8	1.8	2.0	1.8	2.2
생산자물가 상승률 ⁶⁾ (%)	1.6	2.8	2.5	0.8	1.9	-3.2	-3.3	-3.3	-3.3	-3.3	-1.2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 ⁶⁾ (%)	1.9	1.8	2.0	2.0	1.9	1.9	2.1	2.2	1.8	2.0	1.7

주: 1) 16세 이상, 계절조정,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구직포기자, 비자발적 파트타임 취업자 포함, 16세 이상, 계절조정,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3) 전분기대비 증감,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4) 해당 기간의 청구자 수 평균.
 5) 1982=84=100, 전년동기(월)대비.
 6) 1982=100,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oomberg.

나. 중국경제

- 2015년 4/4분기 중국 경제는 전년동기대비 6.8% 성장하는데 그쳐 2014년보다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4/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은 3/4분기보다 소폭 상승세를 나타내었으나, 소비자신뢰지수는 소폭 하락함.
- 2015년 4/4분기 산업생산 증가율은 3/4분기와 동일하였고 구매자관리지수는 소폭 낮아짐.
- 2015년 4/4분기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소폭 하락하였고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전년동기대비 하락함.

〈경제성장〉

- 2015년 4/4분기 중국의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3/4분기보다 낮아진 1.6%를 기록하였고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대비 0.1%p 하락한 6.8%를 나타냄.
- 고정자산투자는 제조업 및 부동산 관련 투자 둔화⁷⁾로 전분기 증가율보다 0.7%p 하락한 10.1% 증가함.
- 수출 증가율의 경우 전분기보다 0.8%p 상승한 -5.0%를 나타내는 등 3/4분기보다는 개선되었지만 부진이 지속되었으며, 2016년 1월과 2월 각각 전년동월대비 8.0%p, 73.7%p 낮아진 -11.2%, -25.4%를 기록함.
- 수입의 경우 전분기보다 11.7% 감소하였고, 2016년 1월에는 -18.8%, 2월에는 -13.8%로 각각 전년동월대비 0.9%p, 6.7%p 증가함.

7) 제조업과 부동산 관련 투자가 각각 7.7%, 2.8% 증가하는데 그침.

〈표 9〉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4					2015					2016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실질 GDP ¹⁾ (%)	1.6 (7.3)	1.8 (7.4)	1.8 (7.1)	1.7 (7.2)	7.3	1.3 (7.0)	1.9 (7.0)	1.8 (6.9)	1.6 (6.8)	6.8	n.a.	n.a.
고정자산투자 ²⁾ (%)	17.8	17.3	16.5	15.8	16.8	13.7	11.6	10.8	10.1	11.4	10.2 ³⁾	
수출 ⁴⁾ (%)	-4.7	5.0	13.0	8.7	5.5	10.0	-2.0	-5.8	-5.0	-0.7	-11.2	-25.4
수입 ⁴⁾ (%)	2.7	1.4	0.9	-1.6	0.9	-17.6	-13.3	-14.1	-11.7	-14.2	-18.8	-13.8

주: 1) 전분기대비, () 안은 전년동기대비.

2) 도시지역 기준.

3) 1~2월 누적치임.

4)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내수부문〉

■ 2015년 4/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은 3/4분기보다 소폭 상승세를 나타내었으나, 소비자신뢰지수는 소폭 하락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소폭 상승한 11.1%를 기록함.

○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보다 소폭 하락한 103.9를 기록하였고 1월에는 전년동월대비 0.3% 증가한 104.0을 나타냄.

〈표 10〉 중국의 주요 내수관련 지표

구분	2014					2015					2016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소매판매 증가율 ¹⁾ (%)	12.2	12.3	11.9	11.7	12.0	10.2	10.2	10.7	11.1	10.6	n.a.	n.a.
소비자신뢰지수	104.0	103.9	104.5	104.9	104.4	107.5	107.7	104.7	103.9	105.9	104.0	n.a.

주: 1) 전년동기(월)대비.

2) ECI(Entrepreneurs Confidence Index): 0부터 200까지 값을 갖는데 100~200일 경우 중국 기업가들(건설, 도매 등 8개 섹터 21,000개 기업)이 기업경기가 긍정적인 것으로, 0~100일 경우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함.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생산부문〉

■ 2015년 4/4분기 산업생산 증가율은 3/4분기와 동일하였고 구매자관리지수는 소폭 낮아짐.

○ 전년동기대비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와 동일한 5.9%를 기록함.

○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제조업 투자 부진으로 전분기보다 소폭 하락한 49.7을 나타내었고, 2016년 1월과 2월 각각 전년동월대비 0.8%, 1.8% 감소한 49.4, 49.0으로 집계됨.

〈표 11〉 중국의 주요 생산관련 지표

구분	2013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산업생산 증가율 ¹⁾ (%)	8.8	8.9	8.0	7.6	8.2	5.6	6.3	5.9	5.9	6.0	n.a.	n.a.
구매자관리지수 ²⁾	50.3	50.7	51.3	50.4	50.7	49.9	50.2	49.8	49.7	49.9	49.4	49.0

주: 1) 전년동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년동월대비.

2) PMI, 50을 기준으로 하며 50 초과는 제조업이 전년대비 확대를 의미하며 50 미만은 전년대비 축소를 의미하고 50은 변화 없음을 나타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고용⁸⁾과 물가〉

■ 2015년 4/4분기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소폭 하락하였고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전년동기대비 하락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4분기보다 0.2%p 낮아진 1.5%를 기록하였으나, 2016년 1월과 2월 각각 전년동월대비 1.0%p, 0.9%p 증가한 1.8%, 2.3%를 기록함.

○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4/4분기 -5.9%를 기록하였으며, 1월과 2월 각각 전년동월대비 1.0%p, 0.1%p 감소한 -5.3%, -4.9%를 나타냄.

〈표 12〉 중국의 주요 물가지표

구분	2014					2015					2016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3	2.2	2.0	1.5	2.0	1.2	1.4	1.7	1.5	1.4	1.8	2.3
생산자물가 상승률(%)	-2.0	-1.5	-1.3	-2.7	-1.9	-4.6	-4.7	-5.7	-5.9	-5.2	-5.3	-4.9

주: 전년동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월별통계는 전년동월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8) 중국 고용의 경우 통계청이 실업률을 집계하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실업자가 직접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실업 신고해야하므로 통계 자료가 정확하지 않음. 또한 중국 고용지표 발표가 불규칙하여 본고에서는 생략함.

다. 일본경제

- 2015년 4/4분기 일본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및 수출 감소 등으로 전분기대비 0.6%p 하락하여 -0.3%를 기록함.
- 2015년 4/4분기 광공업생산 증가율과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대비 소폭 상승하였고 전년동기대비 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주택투자 부진으로 전분기에 비해 낮아짐.
- 2015년 4/4분기 실업률은 3/4분기보다 하락하였고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상승함.

〈경제성장〉

■ 2015년 4/4분기 일본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및 수출 감소 등으로 전분기대비 0.6%p 하락한 -0.3%를 기록함.

- 민간소비 증가율은 실질 가처분소득 감소(-2.2%) 및 증시 약세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평년보다 따뜻한 겨울 날씨⁹⁾ 등으로 3/4분기대비 1.3%p 낮아진 -0.9%를 기록함.
- 설비투자 증가율은 엔화 약세와 저유가 등으로 인한 기업실적 호조로 3/4분기보다 0.8%p 상승한 1.5%를 나타냄.
- 반면, 주택투자 증가율은 주택착공 부진 등으로 3/4분기보다 2.8%p 하락한 -1.2%를 기록함.
- 정부지출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소폭 높아졌으며, 공공투자는 2014 회계연도 중 편성된 추경예산 소진¹⁰⁾ 등으로 전분기대비 1.3%p 낮아진 -3.4%를 나타냄.
- 수출과 수입 증가율의 경우 민간소비 감소, 세계 경제 둔화 등으로 전분기보다 각각 3.4%p, 2.7%p 하락한 -0.8%, -1.4%를 나타냄.

9) 국제금융센터(2016. 2. 15), “일본의 15년 4분기 GDP 실적 및 전망”, *Issue Briefing*.

10) 국제금융센터(2016. 2. 15), “일본의 15년 4분기 GDP 실적 및 전망”, *Issue Briefing*.

〈표 13〉 일본의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실질 GDP	-0.1 (-0.4)	1.4	1.3 (5.2)	-2.0 (-7.9)	-0.6 (-2.5)	0.5 (2.2)	0.0	1.1 (4.6)	-0.4 (-1.4)	0.3 (1.4)	-0.3 (-1.1)	0.5
민간소비	0.1	1.7	2.3	-5.0	0.0	0.7	-0.9	0.2	-0.8	0.4	-0.9	-1.3
설비투자	0.9	-0.5	4.5	-4.0	-0.3	-0.1	3.1	2.9	-1.1	0.7	1.5	1.3
주택투자	3.1	8.4	2.3	-10.6	-7.1	-0.4	-5.3	2.1	2.3	1.6	-1.2	-2.6
정부지출	0.0	1.9	-0.1	-0.2	0.3	0.3	0.1	0.2	0.5	0.2	0.6	1.1
공공투자	0.6	8.0	-2.3	-2.7	1.2	1.0	0.4	-3.0	3.2	-2.1	-3.4	-2.6
수출	0.0	1.2	6.0	0.1	1.5	3.2	8.3	2.1	-4.6	2.6	-0.8	2.7
수입	2.9	3.1	6.1	-4.3	0.6	1.1	7.2	1.9	-2.5	1.3	-1.4	0.2

주: 전분기대비이며,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연율.
 자료: 일본 내각부(2016. 3).

〈내수 및 생산부문〉

- 2015년 4/4분기 광공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8%p 상승한 0.6%를 나타냄.
 - 광공업생산 증가율은 2016년 1월 전월대비 2.0%p 증가한 3.7%를 기록하였으나, 2월에는 전월대비 10.0%p 감소한 -6.2%로 나타남.
- 2015년 4/4분기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대비 소폭 상승한 41.5로 집계되었고, 2016년 1월과 2월 각각 전월대비 0.5%, 5.6% 감소한 42.5와 40.1을 기록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3/4분기보다 1.3%p 하락한 -0.2%이었으며, 1월과 2월 각각 전월대비 0.2%p, 1.9%p 감소한 -0.4%, -2.3%를 나타냄.
- 2015년 4/4분기 전년동기대비 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주택투자 부진으로 전분기에 비해 6.9%p 낮아진 -0.7%이었고 2016년 1월과 2월에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13.2%p, 10.9%p 증가한 0.2%, 7.8%를 나타냄.
 - 민간기계수주액은 전분기대비 2.6% 증가하였으며 2016년 1월에는 전월대비 14.0%p 증가한 15.0%를 기록함.

〈표 14〉 일본의 주요 내수부문 경제지표

구분	2014					2015					2016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광공업생산 증가율 ¹⁾ (%)	2.3	-3.1	-1.3	0.8	2.1	1.6	-1.4	-1.2	0.6	-0.9	3.7	-6.2
소매판매 증가율 ²⁾ (%)	3.8	-7.1	3.8	1.0	1.7	-1.6	0.1	1.1	-0.2	-0.4	-0.4	-2.3
소비자신뢰지수 ³⁾	39.0	38.9	40.5	38.9	39.3	40.7	41.5	40.9	41.5	42.3	42.5	40.1
주택착공호수 증가율 ⁴⁾ (%)	3.4	-9.3	-13.6	-13.8	-9.0	-5.4	7.6	6.2	-0.7	1.9	0.2	7.8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 ⁵⁾ (%)	2.2	-9.3	5.4	1.3	4.0	4.1	3.0	-6.5	2.6	4.1	15.0	n.a.

주: 1) 계절조정, 2005=100,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3) 기준치=50, 기간 중 평균.

4) 전년동기(월)대비.

5) 변동성이 큰 선박·전력 제외,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총무성.

〈고용과 물가〉

■ 2015년 4/4분기 실업률은 3/4분기보다 0.1%p 하락하였고, 유효구인배율¹¹⁾은 소폭 상승하며 고용시장은 미미한 회복세가 지속됨.

○ 실업률은 3/4분기대비 소폭 하락한 3.3%를 기록하였고 2016년 1월에는 전월대비 0.1%p 하락한 3.2%를 나타냄.

○ 또한, 유효구인배율은 4/4분기 1.25로 전분기대비 소폭 높아졌고, 2016년 1월에도 전월대비 소폭 높아짐.

■ 2015년 4/4분기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0.2%p 상승한 0.3%를 나타내었고 2016년 1월에는 전년동월대비 2.4%p 낮아진 0.0%이었음.

○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4/4분기에는 전분기와 동일한 0.8%였으며, 1월에는 전년동월대비 1.4%p 낮아진 0.7%를 기록함.

11) 유효구인배율=구인자 수/구직자 수

〈표 15〉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4					2015					2016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실업률(%)	3.6	3.6	3.6	3.5	3.6	3.5	3.4	3.4	3.3	3.4	3.2
유효구인배율 ¹⁾ (배)	1.05	1.09	1.10	1.12	1.09	1.15	1.18	1.23	1.25	1.20	1.28
소비자물가 상승률 ²⁾ (%)	1.5	3.6	3.3	2.6	2.7	2.3	0.5	0.1	0.3	0.8	0.0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 ²⁾ (%)	0.7	2.3	2.3	2.1	1.9	2.1	0.5	0.8	0.8	1.0	0.7

주: 1) 구인 수 / 구직자 수, 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2010=100, 전년동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년동월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일본 후생노동성; 총무성; Bloomberg.

라. 유로지역경제

- 2015년 4/4분기 유로 지역 경제성장률은 3/4분기와 동일한 0.3%를 기록함.
- 2015년 4/4분기 유로 지역 ESI(경기체감지수)와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상승함.
- 2015년 4/4분기 유로 지역 실업률은 대부분의 유로지역 국가에서 전분기대비 하락하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승세를 보임.

〈경제성장〉

■ 2015년 4/4분기 유로 지역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3/4분기와 동일한 0.3%를 기록함(〈표 16〉과 〈표 19〉 참조).

- 경제성장률의 경우 영국은 전분기보다 0.2%p 상승한 반면,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전분기대비 각각 0.1%p 하락하였고 독일과 스페인은 전분기와 동일한 수치를 유지함.
- 민간소비 증가율의 경우 영국을 제외한 모든 유럽 주요국이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전분기보다 0.3%p 낮아진 0.2%를 기록함.
- 고정자본투자 증가율의 경우 전분기보다 0.9%p 상승한 1.3%를 나타내었고 정부지출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3%p 상승한 0.6%를 기록함.
- 유로 지역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와 동일한 0.2%를 기록하였으며, 수입 증가율의 경우 전분기대비 0.3%p 하락한 0.9%를 나타냄.

〈표 16〉 유로지역의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¹⁾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EA19 ²⁾ GDP	0.2 (0.8)	-0.3	0.2 (0.9)	0.1 (0.2)	0.3 (1.2)	0.4 (1.4)	0.9	0.6 (2.3)	0.4 (1.6)	0.3 (1.2)	0.3 (1.3)	1.6
민간소비	0.2	-0.6	0.0	0.2	0.4	0.5	0.8	0.5	0.3	0.5	0.2	1.7
고정자본투자	0.3	-2.6	0.4	-0.5	0.5	0.5	1.3	1.4	0.1	0.4	1.3	2.7
정부지출	0.2	0.2	0.2	0.2	0.3	0.2	0.8	0.5	0.3	0.3	0.6	1.3
수출	1.1	2.1	0.8	1.0	1.6	1.2	4.1	1.4	1.7	0.2	0.2	5.0
수입	0.5	1.3	1.2	1.1	1.5	1.2	4.5	2.1	1.0	1.2	0.9	5.7

주: 1) 전분기대비이며,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연율.

2) 유로 지역(Euro Area) 19개국.

자료: Eurostat(2016. 4).

〈내수 및 생산부문〉

■ 2015년 4/4분기 유로 지역 ESI(경기체감지수)는 106.3으로 전분기보다 상승하였으며, 2016년 1월에는 전월대비 1.5% 감소한 105.1을 나타냄.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6%p 낮아진 0.0%를 나타내었으나 1월에는 전월대비 0.2%p 낮아진 0.4%를 나타냄.

○ 유로 지역 소비자신뢰지수는 4/4분기 -6.4로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었으며, 1월에는 전월대비 10.5% 낮아진 -6.3을 기록함.

■ 2015년 4/4분기 유로 지역 산업생산 증가율의 경우 3/4분기보다 0.2%p 상승한 0.4%를 기록하였고 1월에는 전월대비 2.6%p 높아진 2.1%를 나타냄.

〈표 17〉 유로 지역의 주요 경제지표¹⁾

구분	2014					2015					2016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유로 지역 ESI ²⁾	101.8	102.5	101.1	100.8	101.5	102.6	103.7	104.5	106.3	104.2	105.1
소매판매 증가율 ³⁾ (%)	0.4	0.4	0.1	0.9	1.2	0.9	0.5	0.6	0.0	2.5	0.4
소비자신뢰지수 ⁴⁾	-11.4	-7.9	-10.1	-11.3	-10.2	-6.2	-5.2	-7.0	-6.4	-6.2	-6.3
산업생산 증가율 ⁵⁾ (%)	0.0	0.2	-0.3	0.6	0.9	0.9	0.1	0.2	0.4	1.5	2.1

주: 1)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Economic Sentiment Indicator(경기체감지수), 1990~2000의 평균=100, 구성은 제조업(40%) + 서비스업(30%) + 소비자 신뢰(20%) + 건설업(5%) + 소매거래(5%).

3) 계절조정 2005=100.

4) 향후 경기에 대한 긍정 응답자와 부정 응답자 비율(%)의 차이.

5) 비계절조정 2005=100.

자료: Eurostat; Bloomberg.

〈고용과 물가〉

■ 2015년 4/4분기 유럽 지역 실업률의 경우 북유럽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로 국가는 전분기 대비 하락함.

-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의 4/4분기 실업률은 3/4분기보다 0.2%p 하락한 6.6%를 기록하였으나, 북유럽의 경우 전분기와 동일한 6.8%이었음.
- 동유럽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0.3%p 하락한 7.9%를 나타내었고 남유럽 실업률도 전분기대비 0.2%p 하락한 17.3%를 기록하며 하락세가 지속됨.

■ 2015년 4/4분기 모든 유럽 국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폭 개선, 공산품 가격, 서비스 요금 등의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상승세를 보임¹²⁾(〈표 4〉 참조).

- 유럽 주요국의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4분기보다 0.1%p 상승한 0.2%를 기록하였으며, 북유럽의 경우도 전분기보다 0.2%p 높아진 0.8%를 나타냄.
- 또한, 동유럽의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1%p 높아진 -0.5%를 나타내었고, 남유럽의 경우도 0.2%p 상승한 0.1%를 나타냄.

〈표 18〉 유럽 권역별 실업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분기	실업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주요국 ¹⁾	북유럽 ²⁾	동유럽 ³⁾	남유럽 ⁴⁾	주요국	북유럽	동유럽	남유럽
2015년 2/4	6.9	6.9	8.4	18.1	0.2	0.8	-0.2	-0.2
2015년 3/4	6.8	6.8	8.2	17.5	0.1	0.6	-0.6	-0.1
2015년 4/4	6.6	6.8	7.9	17.3	0.2	0.8	-0.5	0.1

주: 1) 주요국: 독일, 프랑스, 영국.

2) 북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3) 동유럽: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4) 남유럽: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5) 전년동기대비.

자료: Eurostat(2016. 4).

12) 한국은행(2016. 2. 10), “최근 유로지역 경제동향 및 전망”, 동향분석.

〈표 19〉 유럽 주요국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독일 GDP	0.3	0.3	0.7	-0.1	0.2	0.6	1.6	0.4	0.4	0.3	0.3	1.7
민간소비	-0.4	0.6	0.3	-0.1	0.6	1.0	0.9	0.4	0.1	0.6	0.3	1.9
고정자본투자	1.7	-1.3	2.4	-1.5	-0.7	1.3	3.5	1.5	-0.6	0.1	1.5	2.2
수출	2.0	1.6	0.4	0.4	1.5	1.4	4.0	1.5	1.8	0.3	-0.6	5.4
수입	0.4	3.1	0.7	0.9	0.4	2.1	3.7	2.2	0.6	1.1	0.5	5.8
프랑스 GDP	0.2	0.7	-0.2	-0.1	0.3	0.1	0.2	0.6	0.0	0.4	0.3	1.2
민간소비	0.7	0.4	-0.5	0.3	0.4	0.4	0.6	0.6	0.0	0.4	-0.1	1.4
고정자본투자	-0.1	-0.6	-0.7	-0.5	-0.3	-0.4	-1.2	0.4	-0.1	0.1	0.7	0.0
수출	0.8	1.7	0.3	0.0	1.2	2.6	2.4	1.7	2.0	-0.2	1.1	6.0
수입	0.8	1.7	0.3	0.0	1.2	2.6	3.8	1.7	2.0	-0.2	1.1	6.4
이탈리아 GDP	-0.1	-1.7	-0.1	-0.1	0.0	-0.1	-0.3	0.4	0.3	0.2	0.1	0.8
민간소비	0.2	-2.5	0.3	0.2	0.1	0.1	0.6	0.1	0.4	0.5	0.3	0.9
고정자본투자	-1.4	-6.6	-1.6	-0.7	-0.3	0.0	-3.4	0.6	0.0	0.2	0.8	0.8
수출	-0.4	0.6	0.4	1.3	0.6	2.0	3.1	1.2	1.4	-1.3	1.3	4.3
수입	-0.4	-2.3	0.4	1.3	0.6	2.0	3.2	1.2	1.4	-1.3	1.3	6.0
스페인 GDP	0.2	-1.7	0.4	0.5	0.6	0.7	1.4	0.4	0.4	0.3	0.3	3.2
민간소비	0.5	-3.1	0.0	0.5	0.5	0.8	1.2	0.8	0.8	1.1	0.7	3.1
고정자본투자	0.0	-2.5	0.4	2.1	0.9	1.4	3.5	1.6	2.3	1.3	1.1	6.4
수출	0.1	4.3	1.6	1.2	3.3	0.2	5.1	1.0	1.4	1.8	0.9	5.4
수입	0.1	-0.3	1.6	1.2	3.3	0.2	6.4	1.0	1.4	1.8	0.9	7.5
영국 GDP	0.6	2.2	0.6	0.8	0.7	0.7	2.9	0.5	0.6	0.4	0.6	2.3
민간소비	0.7	1.9	0.5	0.8	0.5	0.5	2.5	0.8	0.8	0.5	0.6	2.7
고정자본투자	2.1	2.6	0.6	2.6	1.8	0.1	7.3	1.5	1.3	0.4	-1.1	4.1
수출	-2.9	1.2	0.9	1.2	0.4	3.8	1.2	-0.1	2.8	-0.5	0.1	5.1
수입	-2.9	2.8	0.9	1.2	0.4	3.8	2.4	-0.1	2.8	-0.5	0.1	6.3

자료: Eurostat(2016, 4).

2. 국내경제

- 2015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의 증가폭 확대로 전년동기대비 0.4%p 증가한 3.1%를 나타냄.
- 2015년 4/4분기 산업생산은 서비스업 생산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2.4% 증가함.
- 2015년 4/4분기 내수부문은 소매판매가 정부의 소비확대 정책으로 인해 내구재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6.1% 증가하였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각각 3.9%, 7.5% 증가하여 내수가 진작되는 양상을 보임.
- 2015년 4/4분기 고용은 총취업자 수가 전년동기대비 1.5% 상승했으며, 고용률은 0.1%p 상승하고, 실업률은 0.1%p 하락함.
- 2015년 4/4분기 대외거래는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2.0% 감소하고, 수입은 17.8%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전년동기대비 24.9% 증가한 237억 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흑자 기조가 심화됨.
- 2015년 4/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1.1%를 기록하였으며, 소비자 기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0.4 상승한 104.2를 나타냄.
- 2015년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근로소득 증가세가 둔화되고 재산소득이 감소한 반면 이전소득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0.9% 증가함.
- 전체적으로 2015년 4/4분기 국내경제는 전년동기대비 산업생산 및 내수가 개선되는 등 단기적인 회복세를 보임.
- 한편 2015년 연간 국내경제는 전반적으로 수출부진이 지속되고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되어 회복세에 제약을 받으며 경기 하강 국면이 이어짐.

〈경제성장〉

■ 2015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의 증가폭이 확대되어 전년동기대비 0.4%p 증가한 3.1%를 기록함.

- 민간소비는 개별소비세 인하¹³⁾와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¹⁴⁾ 등 소비확대 정책의 영향으로 내구재 소비가 늘어나면서 3.3% 증가함(〈표 21〉 참조).
- 설비투자는 운송장비투자가 확대되며 3.9% 증가하였으며, 건설투자의 경우 주거용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7.5% 증가함(〈표 22〉 참조).
- 지식생산물투자는 연구개발(R&D),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투자 확대로 2.1% 증가함.¹⁵⁾
- 재화수출은 석유제품 등이 늘었으나 LCD, 선박 등이 줄어들면서 2.5% 증가하였고, 재화수입의 경우 원유, 자동차 등이 늘어나면서 4.7% 증가함.¹⁶⁾

〈표 20〉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감률

(단위: %)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실질 GDP	3.9 (1.1)	3.5 (0.6)	3.4 (0.7)	2.7 (0.3)	3.3	2.4 (0.8)	2.2 (0.4)	2.8 (1.2)	3.1 (0.7)	2.6
민간소비	2.8	1.7	1.4	1.1	1.7	1.5	1.7	2.2	3.3	2.2
설비투자	7.4	7.9	4.4	4.4	6.0	5.8	5.1	6.7	3.9	5.3
건설투자	4.5	0.3	2.3	-1.7	1.1	0.9	1.0	5.6	7.5	3.9
지식생산물투자	7.9	6.5	5.8	1.7	5.4	2.0	0.9	1.1	2.1	1.5
재화수출(F. O. B)	2.6	2.4	0.3	-0.8	1.1	-0.6	-0.4	0.3	2.5	0.5
재화수입	2.4	0.5	0.6	-1.2	0.5	0.4	0.8	1.9	4.7	2.0

주: 2008 SNA, 2010년 연쇄가격 기준, 원계열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 ()는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13) 2015년 8월 정부는 소비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등에 대한 개별 소비세율을 인하함.
 14) 백화점, 온라인 쇼핑 등 92개 업체와 200개 전통시장 등이 참여하여 2015년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대규모 할인행사를 실시함.
 15) 한국은행 보도자료(2016. 1), “2015년 4/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속보)”.
 16) 한국은행 보도자료(2016. 1), “2015년 4/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속보)”.

〈내수부문〉

- 2015년 4/4분기 소매판매는 정부의 소비확대 정책으로 인해 내구재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6.1% 증가하였으며, 1월과 2월에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4.6%, 3.1% 증가함.
- 2015년 4/4분기 내구재 판매는 연말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를 앞두고 자동차 중심으로 큰 폭 상승하여 전년동기대비 16.1% 증가함.
 - 1월에는 자동차 판매가 감소로 전환되며 전년동월대비 2.3% 감소하였고, 2월에는 개별소비세 재인하¹⁷⁾ 효과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5.8% 증가함(〈표 21〉 참조).
- 2015년 4/4분기 의복 및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하였으며, 1월과 2월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4.3%, 2.1% 증가함.
- 2015년 4/4분기 음식료품,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3.0% 증가하였으며, 1월과 2월에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8.9%, 2.1% 증가함.

〈표 21〉 소비 관련 지표 추이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²⁾	연간 ²⁾	1월 ²⁾	2월 ²⁾
소매판매	2.4	2.0	2.2	3.4	3.6	6.1	3.9	4.6	3.1
내구재	6.9	5.1	7.9	8.9	7.7	16.1	10.2	-2.3	5.8
* 승용차	21.4	16.4	17.6	18.8	17.5	29.8	21.3	-6.3	8.7
준내구재	0.5	-0.8	-2.2	-1.3	-3.4	1.5	-1.2	4.3	2.1
비내구재	0.8	1.6	0.8	2.4	4.0	3.0	2.5	8.9	2.1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잠정치.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5년 4/4분기 설비투자는 개별소비세 인하로 운송장비 투자가 늘어났으나, 기계류 투자가 대외불확실성 등으로 부진하여 전년동기대비 3.9% 증가에 그침.
- 2015년 4/4분기 설비투자지수는 기계류 부문에서 투자가 감소하였으나, 운송장비 부문에서 투자가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1.6% 상승함.
 - 1월 설비투자지수는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 부문에서 투자가 증가하였으나, 특수

17) 2016년 6월 말까지 정부는 소비진작을 위해 개별소비세율 인하를 연장함.

산업용 기계, 전기기기 및 장치 등 기계류 부문에서 투자가 줄어 전년동월대비 6.0% 하락함.¹⁸⁾

- 2월 설비투자지수도 자동차 등 운송장비 부문에서 투자가 증가하였으나,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 부문에서 투자가 줄어 전년동월대비 7.5% 하락함.¹⁹⁾

○ 2015년 4/4분기 설비투자의 선행지수인 국내기계수주²⁰⁾는 전년동기대비 6.9% 증가함.

- 1월 국내기계수주는 전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과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등 민간부문에서 모두 줄어 전년동월대비 24.1% 감소함.²¹⁾
- 2월 국내기계수주는 전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과 전자·영상·음향통신, 전기장비 등 민간부문에서 모두 늘어 전년동월대비 21.8% 증가함.²²⁾

〈표 22〉 투자 관련 지표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²⁾	연간 ²⁾	1월 ²⁾	2월 ²⁾
설비투자	4.2	5.8	5.8	5.0	6.6	3.9	5.3	-	-
설비투자지수	5.5	5.0	9.2	4.5	10.2	1.6	7.8	-6.0	-7.5
기계류	5.6	3.9	11.5	3.9	5.3	-7.8	1.9	-13.3	-12.8
운송장비	5.5	8.0	3.1	6.5	22.2	26.5	24.6	14.9	7.6
국내기계수주 ³⁾	-6.2	13.3	-3.0	14.9	-27.1	6.9	1.6	-24.1	21.8
건설투자	-1.4	1.0	0.6	1.6	5.7	7.5	3.9	-	-
건설기성(불변)	-5.8	7.8	-1.7	-3.8	6.2	8.0	6.3	9.5	9.8
건축	-0.9	-16.3	-0.2	-3.5	10.8	16.3	22.7	19.3	19.0
토목	-12.3	0.9	-4.3	-4.3	-1.9	-4.5	-14.6	-7.1	-6.4
국내건설수주(경상)	-6.8	22.2	57.4	49.1	50.4	40.1	40.9	-3.5	85.3
건축	-4.0	-32.1	89.5	49.3	42.5	37.8	61.0	-16.7	132.8
토목	-13.0	0.0	1.7	48.3	83.6	45.9	3.2	43.6	0.2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잠정치.

3) 선박제외.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18) 통계청 보도자료(2016. 3. 2), “2016년 1월 산업활동동향”.

19) 통계청 보도자료(2016. 3. 31), “2016년 2월 산업활동동향”.

20) 기계수주는 수요자를 기준으로 민간수요(제조업, 비제조업), 공공수요로 분류됨.

21) 통계청 보도자료(2016. 3. 2), “2016년 1월 산업활동동향”.

22) 통계청 보도자료(2016. 3. 31), “2016년 2월 산업활동동향”.

■ 2015년 4/4분기 건설투자는 건축부문 중심으로 원만한 회복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분양 주택 수 증가²³⁾ 등이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으로 전년동기대비 7.5% 증가함.

○ 건설기성²⁴⁾은 토목부문이 부진하였으나 건축공사 실적이 늘어 전년동기대비 8.0% 증가함.

- 1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부문의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전년동월대비 9.5% 증가함.

- 2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부문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전년동월대비 9.8% 늘어남.

○ 국내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경상)는 건축과 토목 부문 모두 개선 추세가 지속되며 전년동기대비 40.1% 증가함.

- 1월 국내건설수주는 건축부문의 기저효과에 기인하여 전년동월대비 3.5% 감소함.

- 2월 국내건설수주는 건축부문이 개선되며 전년동월대비 85.3% 증가함.

〈산업생산〉

■ 2015년 4/4분기 산업생산은 광공업 생산이 줄어들었으나 서비스업 생산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2.4% 증가함.

○ 2015년 4/4분기 광공업 생산은 수출부진과 대외 불확실성으로 기업·소비 심리 둔화 등 하방위험이 존재하여 전년동기대비 0.1% 감소함.²⁵⁾

- 1월 광공업 생산은 수출 물량 감소, 소비심리 둔화 등으로 전자부품, 통신·방송장비 등의 생산이 줄어 전년동월대비 2.2% 감소함.²⁶⁾

- 2월 광공업 생산은 수출 물량 증가세가 재개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과 모바일 신제품 출시 등으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2.4% 증가함.²⁷⁾

○ 2015년 4/4분기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이 양호한 성장세를 보인 반면 숙박·음식업 등의 실적이 악화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3.3% 증가함.

23) 전국의 미분양주택 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폭 증가하여, 3/4분기대비 17,200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KDI, 부동산시장동향(2015년 4/4분기)).

24) 건설기성은 건설업체의 실제 시공실적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공사대금의 청구나 수취여부와는 무관하며 공사비 중 지가를 제외하고 발주자공급원자재비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임(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용어설명(<http://www.kostat.go.kr>)).

25) 기획재정부(2016. 2), 최근경제동향.

26) 전년동월대비 반도체(15.8%), 석유정제(4.9%), 기타운송장비(3.3%) 등이 증가하였으나, 전자부품(-11.2%), 기계장비(-9.0%), 통신·방송장비(-24.5%) 등이 감소함(기획재정부 2016. 3, 최근경제동향).

27) 전년동월대비 전자부품(-12.2%), 기계장비(-8.4%) 등이 감소하였으나, 반도체(33.7%), 석유정제(7.7%) 등이 증가함(기획재정부 2016. 4, 최근경제동향).

- 1월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 및 음식점 등 민간소비 관련 업종이 부진한 가운데 금융 및 보험업 등이 상승하며 전년동월대비 3.0% 증가함.
- 2월 서비스업 생산은 부동산 및 임대업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금융 및 보험업 등이 호조를 이어나가며 전년동월대비 2.6% 증가함.

〈표 23〉 생산관련 지표 추이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²⁾	1월 ²⁾	2월 ²⁾
전산업생산 ³⁾	0.9	1.4	1.0	1.0	2.1	2.4	1.7	1.7	2.4
광공업	-1.5	0.2	-1.1	-1.3	-0.1	-0.1	-0.6	-2.2	2.4
제조업	-1.7	0.3	-1.2	-1.3	-0.3	0.1	-0.6	-2.3	2.3
자동차	-2.8	2.8	-4.1	2.6	4.7	1.4	1.0	-3.7	1.0
ICT	-5.9	-1.8	-1.5	-2.2	2.4	6.6	1.3	-2.4	5.5
서비스업	2.8	2.3	2.7	2.7	2.9	3.3	2.8	3.0	2.6
도매 및 소매업	2.8	2.3	0.4	0.9	1.4	4.2	1.7	3.1	1.3
운수업	-0.1	0.4	3.9	-0.3	0.7	1.1	1.4	2.0	4.8
숙박 및 음식점업	4.8	1.7	-0.7	-2.8	-3.5	-1.3	-2.0	-1.2	-0.7
금융 및 보험업	0.3	1.5	8.7	11.4	10.1	6.2	9.0	7.8	7.6
부동산 및 임대업	9.0	5.2	5.4	10.2	11.1	5.9	8.1	5.1	3.2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잠정치.
 3) 농림어업 제외.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5년 4/4분기 경기선행지수²⁸⁾ 순환변동치와 경기동행지수²⁹⁾ 순환변동치는 각각 전분기대비 0.4, 0.7 상승한 102.5, 100.8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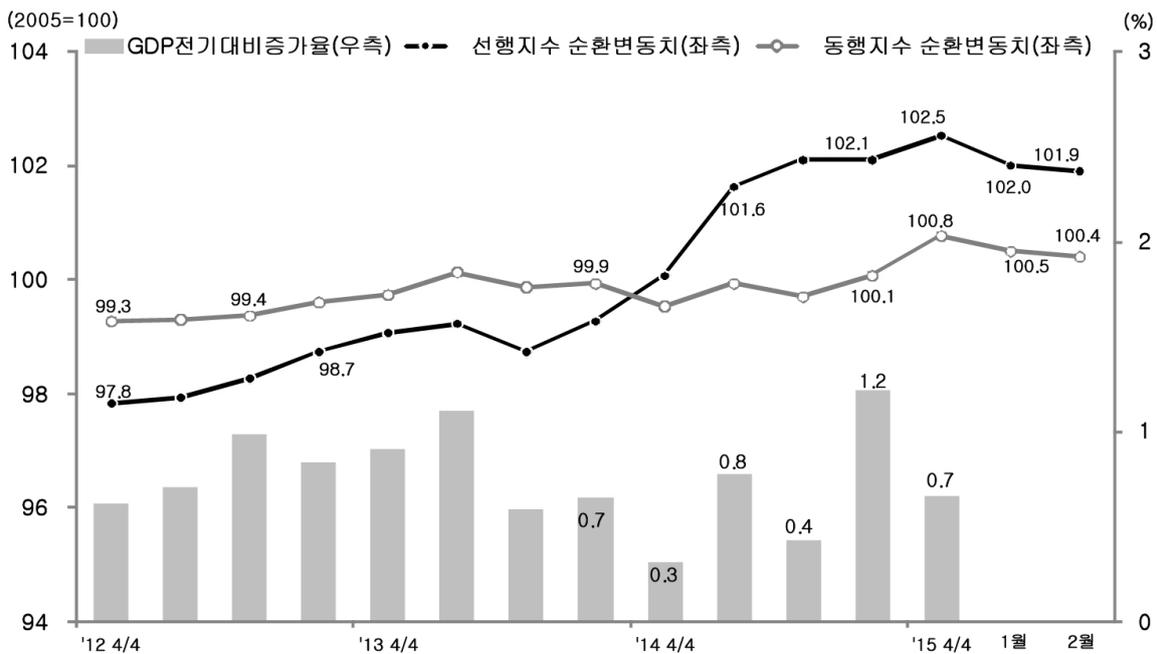
○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수주액이 감소하였으나 수출입물가와 구인구직비율 상승으로 102.5를 기록함.³⁰⁾

- 1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수출입물가비율 등이 증가하였으나, 재고순환지표, 소비자기대지수 등이 감소하여 102.0을 기록함.³¹⁾

28) 선행종합지수는 재고순환지표, 소비자기대지수, 건설수주액, 기계류내수출하지수, 수출입물가비율, 국제원자재가격지수, 구인구직비율, 코스피지수, 장단기금리차 등 9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
 29) 동행종합지수는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비농림어업취업자수 등 7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
 30) 통계청 보도자료(2016. 1. 29), “2015년 12월 산업활동동향”.

- 2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수출입물가비율, 건설수주액 등이 증가한 반면, 소비자기대지수, 기계류내수출하지수 등이 감소하여 101.9를 기록함.³²⁾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경우 광공업생산지수 등이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생산지수와 소매판매액지수 등이 증가하여 100.8을 기록함.³³⁾
- 1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기성액, 서비스업생산지수 등이 증가하였으나, 광공업생산지수, 내수출하지수 등이 감소하여 100.5를 기록함.
- 2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기성액, 서비스업생산지수 등이 증가하였으나, 소매판매액지수, 수입액 등이 감소하여 100.4를 기록함.

〈그림 1〉 GDP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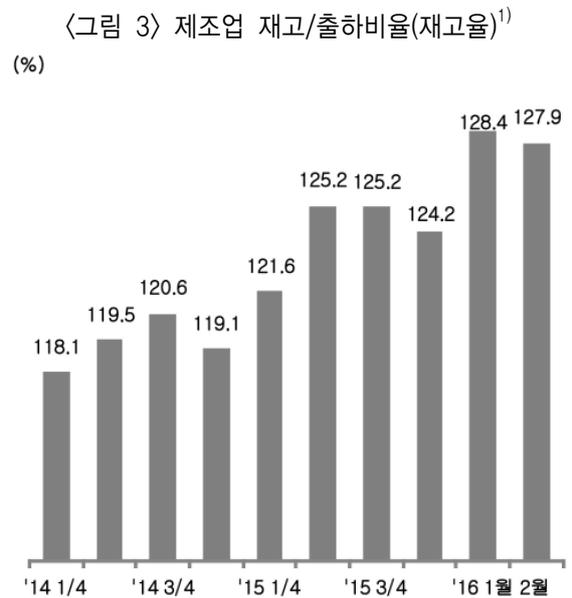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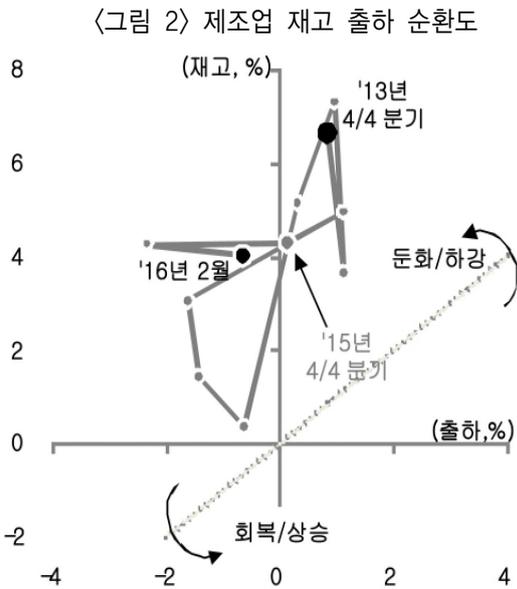


주: 2015년 4/4분기, 1월과 2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31) 통계청 보도자료(2016. 3. 2), “2015년 1월 산업활동동향”.
 32) 통계청 보도자료(2016. 3. 31), “2015년 2월 산업활동동향”.
 33) 통계청 보도자료(2016. 1. 29), “2015년 12월 산업활동동향”.

2015년 4/4분기 제조업 출하와 재고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0.1%, 4.3% 증가하였으며, 재고율³⁴⁾은 5.1%p 상승한 124.2%를 나타냄(<그림 2>, <그림 3> 참조).³⁵⁾

- 1월 재고율은 전년동월대비 8.1%p 상승한 128.4%를 나타냄.
 - 1월 제조업 출하는 수출 부진이 심화되어 전년동월대비 2.3% 감소하였으며, 재고는 자동차 및 ICT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4.3% 증가함.³⁶⁾
- 2월 재고율은 전년동월대비 5.7%p 상승한 127.9%를 나타냄.
 - 2월 제조업 출하는 내수출하와 수출출하가 모두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부진한 상황으로 전년동월대비 0.6% 감소하였으며, 재고는 반도체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4.0% 증가함.³⁷⁾



주: 재고출하 순환도는 X축에 출하 전년동월비(계절조정), Y축에는 재고 전년동월비(계절조정)를 표시하여 출하와 재고의 상호작용을 나타내고, 이를 이용하여 경기국면 변환을 판단하는 도표.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주: 1) 제조업의 출하지수에 대한 재고지수 비율

$$= (\text{계절조정재고지수} \div \text{계절조정출하지수}) \times 100$$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34) 재고율(재고-출하비율)은 출하액대비 재고액 비율을 나타내는 지수. 경기가 호황일 경우 제품 판매 증가로 재고는 줄고 출하는 증가하게 되어 재고-출하비율은 하락하게 됨. 반면 경기가 불황에 진입할 경우 판매(출하)는 감소하기 시작하고 재고는 증가하므로 재고율 지수는 상승함.

35) 2015년 10월~2015년 2월 재고, 출하, 재고율은 잠정치임.

36) 산업연구원(2016. 3), 산업동향 브리프; KDI(2016. 3), 경제동향.

37) 산업연구원(2016. 4), 산업동향 브리프; KDI(2016. 4), 경제동향.

〈고용〉

■ 2015년 4/4분기 총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하였으며,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60.5%, 3.1%를 나타냄.

○ 4/4분기 총취업자 수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하였으며, 1월에는 전년 동월대비 1.4% 증가하였으며, 2월에는 전년 기저효과,³⁸⁾ 설연휴·조사시점³⁹⁾ 등 특이요인에 의해 전년동월대비 0.9% 증가하는데 그침.

- 청년취업자수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2.6% 증가하였으며, 1월과 2월 각각 전년동월 대비 0.6%, 0.4% 증가함.

○ 고용률은 전분기대비 0.4%p 하락한 60.5%를 나타냈으며, 1월과 2월에는 계절적 요인⁴⁰⁾ 등으로 하락하여 각각 58.8%, 58.7%를 기록함.

○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0.3%p 하락한 3.1%를 나타냈으며, 1월과 2월에는 계절적 요인⁴¹⁾ 등으로 상승하여 각각 3.7%, 4.9%를 기록함.

- 청년실업률의 경우 전분기대비 0.4%p 하락한 8.0%를 기록하였으며, 1월과 2월에 들어서는 각각 9.5%, 12.5%⁴²⁾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38) 2015년 2월은 고용호조세로 통상적인 고용흐름을 9만 명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2016년 2월 취업자 증가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39) 2015년 2월의 경우 설 이전에 조사가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2016년 2월에는 설 연휴 이후에 조사가 이루어져 설명절 효과가 소멸됨. 과거 10년간 조사시점이 명절 후인 경우 통상 전월대비 취업자 수는 평균 1만 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40)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 동안의 고용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월과 2월은 다른 달에 비해 고용률이 각각 연평균 2.1%p, 2.0%p 낮게 나타남.

41)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 동안의 실업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월과 2월은 다른 달에 비해 실업률이 각각 연평균 0.2%p, 1.1%p 높게 나타남.

42) 2월의 청년실업률 상승은 2월의 계절적 특성, 공무원 응시인원 확대,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진입 등에 주로 기인함.

〈표 24〉 고용 관련 지표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총취업자 ¹⁾	1.7	2.1	1.4	1.2	1.2	1.5	1.3	1.4	0.9
청년취업자 ¹⁾	1.5	2.0	0.8	2.3	1.3	2.6	1.8	0.6	0.4
고용률 ²⁾	60.4	60.2	59.0	60.7	60.9	60.5	60.3	58.8	58.7
실업률 ³⁾	3.2	3.5	4.1	3.8	3.4	3.1	3.6	3.7	4.9
청년 ⁴⁾ 실업률 ³⁾	8.3	9.0	10.3	9.9	8.4	8.0	9.2	9.5	12.5
〈산업별 취업자〉									
농림어업	-7.2	-4.5	-7.4	-7.7	-6.8	-7.6	-7.4	-7.5	-5.9
광공업	2.9	3.4	3.1	3.3	3.8	4.2	3.6	3.4	2.6
제조업	3.0	3.5	3.2	3.4	3.8	4.0	3.6	3.3	2.4
SOC ⁵⁾ 및 기타서비스업	2.1	2.4	1.6	1.5	1.3	1.5	1.4	1.3	0.9
건설업	4.0	2.4	4.3	2.4	0.6	-1.0	1.5	1.0	-0.3
도·소매, 음식, 숙박	4.2	4.6	2.5	2.2	0.8	-0.6	1.2	-0.7	-1.0
전기, 운수, 통신, 금융	-1.3	-0.6	-0.9	-0.1	1.7	2.3	0.7	2.8	0.6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1.5	2.0	1.3	1.3	1.6	3.1	1.8	2.3	2.4

-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 2) 고용률은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으로 정의됨.
- 3) 실업률은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으로 정의됨.
- 4) 청년은 15~29세 기준임.
- 5) SOC는 전기, 가스, 수도 및 건설업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 2015년 4/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기상여건악화 및 영세 고령농 은퇴 증가⁴³⁾ 등으로 감소세가 확대되었으며, 광공업과 SOC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증가세가 확대됨.

- 4/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잦은 강수 등 기상여건 악화⁴⁴⁾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7.6% 감소하였으며, 1월과 2월에도 각각 전년동월대비 7.5%, 5.9% 감소함.
- 광공업 부문 취업자 수⁴⁵⁾는 전년동기대비 4.2% 증가하였으며, 1월과 2월에도 각각 전년동월대비 각각 3.4%, 2.6% 증가함.
- SOC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과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취업자수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하였으며, 1월과 2월에도 각각 전년동월대비 1.3%,

43) 고령화,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기초연금 도입 등으로 인한 영세 고령농 은퇴가 늘어남.
 44) 11월 전국강수일수(14.9일)는 '73년 이래 최다, 강수량(127.8mm)은 최다 2위, 일조시간(96.2시간)은 최소 1위를 기록하며 기상여건이 악화됨.
 45) 제조업 포함.

0.9% 증가함.

- 건설업 취업자 수는 1.0% 감소하였으며, 1월에는 전년동월대비 1.0% 증가하였으나 2월에는 1.0% 감소함.
- 도·소매, 음식, 숙박업 취업자 수의 경우 0.6% 감소하였으며, 1월과 2월 각각 전년동월대비 0.7%, 1.0% 감소함.
-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 취업자 수의 경우 2.3% 증가하였으며, 1월과 2월 각각 전년동월대비 2.8%, 0.6% 증가함.
-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취업자 수는 3.1% 증가하였으며, 1월과 2월 각각 전년동월대비 2.3%, 2.4% 증가함.

〈물가〉

■ 2015년 4/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효과 축소, 개인서비스 요금인상 등⁴⁶⁾으로 전년동기대비 1.1%를 기록하였으며, 1월과 2월에 각각 전년동월대비 0.8%, 1.3%를 나타냄.

○ 4/4분기 상품가격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하락⁴⁷⁾ 등으로 -0.4%를 나타냈으며, 1월과 2월에 각각 전년동월대비 -1.1%, -0.1%를 나타냄.

- 1월 중 상품물가는 저유가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담뱃값 인상효과 소멸⁴⁸⁾과 도시가스요금 추가인하,⁴⁹⁾ 농축수산물 가격안정대책⁵⁰⁾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1% 하락함.
- 2월 중 상품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 큰 폭으로 상승⁵¹⁾으로 인해 전월대비 하락폭을 축소하며 전년동월대비 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4/4분기 서비스물가 상승률은 전월세 전환 등으로 인한 집세 상승, 외식비 상승 등에 기인한 개인서비스요금 상승을 중심으로 2.2%를 나타냈으며, 1월과 2월에 각각 전년동월대비 2.4%, 2.4%를 나타내며 오름세를 이어감.

46) 한국은행(2016. 3), 2015년도 연차보고서.

47) 2015년 12월 석유류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15.6% 감소함(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5. 12. 31).

48) 2015년 1월 시행한 담뱃값 인상정책의 효과가 사라지면서 물가를 0.58% pt. 낮춘 것으로 나타남(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6. 2. 2, “2016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49) 2016년 1월 1일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8.5% 추가 인하(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6. 2. 2).

50) 설 민생대책(2016. 1. 19)에 따라 성수품 공급 확대(평상시의 최대 3.3배) 및 최대 50% 할인판매(농·수협 등)(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6. 2. 2).

51) 농·축산물 가격은 한파·폭설 등 기상악화, 명절 대형마트 할인종료 등으로 상승폭이 확대됨(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6. 3. 3).

■ 2015년 4/4분기 소비자기대지수는 전분기대비 1.2 상승한 104.2를 나타냈으며, 1월과 2월에는 기준치(100)를 하회한 92.4, 88.8을 기록하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나타냄.

〈표 25〉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소비심리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소비자기대지수 ¹⁾	103.8	113.0	104.6	103.0	103.0	104.2	103.7	92.4	88.8
소비자물가 상승률	1.0	1.3	0.6	0.5	0.7	1.1	0.7	0.8	1.3
〈품목성질별 물가지수 상승률〉									
상품	0.2	-2.7	-0.7	-0.8	-0.9	-0.4	2.0	-1.1	-0.1
농축수산물	-0.3	1.3	0.3	2.1	2.9	2.6	-0.2	2.4	5.6
공업제품	-0.1	3.9	-0.4	-0.3	-0.2	0.0	-7.4	-0.8	-0.2
전기·수도·가스	2.5	1.6	-3.7	-8.0	-10.8	-7.1	1.8	-8.1	-8.0
서비스	1.6	2.3	1.6	1.6	2.0	2.2	2.5	2.4	2.4
집세	2.2	0.8	2.3	2.4	2.7	2.8	1.2	2.9	2.9
공공서비스	0.7	1.7	0.5	0.5	1.8	2.0	1.9	2.2	2.2
개인서비스	1.8	0.0	1.8	1.9	1.8	2.2	0.0	2.2	2.4

주: 1) 소비자 기대 및 평가지수가 2008년 8월까지 통계청에서 작성된 후 2008년 9월부터 한국은행 소비자 동향지수로 개편되었으나, 자료의 연속성을 위해 '85.0/77.0 × 향후경기전망CSI(Consumer Sentiment Index)'으로 산출함.

2)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및 「소비자기대 및 평가지수」.

〈대외거래〉

■ 2015년 4/4분기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2.0% 감소한 1,300억 달러, 수입은 17.8% 감소한 1,063억 달러를 시현하였고, 무역수지는 237억 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함.

○ 수출의 경우, 식료 및 직접소비재(-1.3%), 원료 및 연료(-36.0%), 경공업 제품(-8.6%), 중화학 공업품(-9.8%) 등 전 품목에서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를 보임.

- 2016년 1월 수출은 석유제품, 선박,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감소여파로 전년동월대비 18.9% 감소함.⁵²⁾

- 2016년 2월 수출은 휴대폰 수출 증가, 조업일수 증가⁵³⁾ 등에도 불구하고 유가하락세 지속 및 선박수출 감소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2.2% 감소함.⁵⁴⁾

52) 2016년 1월 품목별 수출은 석유제품(-35.6%), 선박(-32.3%), 가전(-29.2%), 자동차(-21.5%) 등 대부분 주력 품목에서 전년동월대비 수출이 감소함(관세청 2016. 2. 16, 2016년 1월 수출입동향).

53) 조업일수는 전년동월대비 1일 증가함.

54) 관세청(2016. 3. 15), 2016년 2월 수출입동향.

- 수입의 경우, 소비재 수입이 소폭 증가(0.5%)하였으나,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⁵⁵⁾으로 원자재 수입(-29.8%)이 전년동기대비 큰 폭으로 감소함.
- 2016년 1월과 2월의 수입은 저유가 지속으로 원자재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각각 전년 동월대비 20.1%, 14.6% 감소함.

〈표 26〉 주요 품목별 수출입 증감률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수출	식료 및 직접소비재	-2.2	3.9	-3.5	0.5	-4.4	-1.3	-2.1	-5.9	11.4
	원료 및 연료	-10.9	-3.2	-36.0	-28.2	-33.2	-36.0	-33.3	-33.9	-22.5
	경공업 제품	-0.9	-1.0	-5.3	-9.5	-10.0	-8.6	-8.4	-9.3	-7.1
	중화학 공업품	2.6	3.3	1.7	-4.6	-6.4	-9.8	-4.9	-18.5	-12.1
	전체	0.9	2.3	-3.0	-7.3	-9.5	-12.0	-8.0	-18.9	-12.2
	금액(억 달러)	1,477	5,727	1,334	1,351	1,282	1,300	5,268	365.8	364.1
수입	소비재	7.4	12.1	8.1	2.2	-1.8	0.5	2.1	-2.9	-3.9
	원자재	-8.6	-0.6	-29.5	-26.5	-32.7	-29.8	-29.6	-28.9	-23.1
	자본재	5.2	3.3	7.0	-0.9	3.7	-4.0	1.3	-13.1	-6.2
	전체	-2.8	1.9	-15.6	-15.6	-18.7	-17.8	-16.9	-20.1	-14.6
	금액(억 달러)	1,294	5,255	1,118	1,105	1,080	1,063	4,365	314.1	290.2
무역수지(억 달러)		183.5	471.5	216.3	246.1	202.8	237.4	902.6	51.8	73.8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금액은 천만 달러에서 반올림함.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 2015년 4/4분기 지역별 수출의 경우 EU지역을 제외한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이 모두 감소하였으며, 수입도 대다수 지역으로부터 줄어듦.

- 對중동 수출 감소세가 심화된 가운데, 중국의 경기성장세 둔화 지속에 따라 對중국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0.5% 감소한 반면, 對EU 수출은 7.9% 증가함.
- 1월과 2월 對중동 수출의 전년동월대비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과잉에 따른 단가하락으로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등 수출 급감으로 인한 對중국 수출도 감소함.⁵⁶⁾
- 한편 1월과 2월 對EU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 증가,⁵⁷⁾ 동유럽을 중심으로 한 EU 기금 연계 인프라 건설에 따른 철강

55) 〈표 4〉 참조.

56) 산업통상자원부(2016. 1. 1), 2015년(12월, 전체) 수출입 동향 및 2016년 수출입 전망.

57) 현대·기아차 판매량 증가 및 유럽 완성차 업체 원가절감을 위한 수입 증가로 수출 여건 개선(산업통상자

수출 확대⁵⁸⁾와 그간의 감소세에 대한 기저효과 등이 원인임.

- 4/4분기 유가 하락 등으로 중동으로부터의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45.0% 줄어들었으며, 일본, 호주 등으로부터의 수입도 감소세가 지속됨.
- 1월과 2월에도 미국을 제외한 주요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중동으로부터의 수입 감소폭이 크게 나타남.

〈표 27〉 주요 지역별 수출입 현황

(단위: %)

구분	비중 ¹⁾	2014	2015				2016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수출	중국	26.0	-0.4	-1.6	-2.7	-6.9	-10.5	-5.6	-21.5	-12.9
	ASEAN	14.2	3.1	-17.8	-10.1	-7.1	-10.4	-11.5	-20.6	10.2
	미국	13.3	13.3	13.3	-1.0	-2.2	-10.0	-0.6	-9.4	4.1
	EU	9.1	5.7	-21.2	-8.5	-3.6	7.9	-6.9	7.2	5.0
	중남미	5.8	-1.1	17.9	-12.7	-23.9	-30.9	-14.6	-36.0	-6.9
	중동	5.8	7.7	-3.7	-6.8	-17.2	-21.9	-12.6	-31.1	-5.9
	일본	4.9	-7.2	-22.2	-13.1	-26.6	-20.0	-20.5	-19.7	-15.0
	전체	100.0	2.3	-3.0	-7.3	-9.5	-12.0	-8.0	-18.9	-12.2
수입	중국	20.7	8.5	7.1	-4.1	2.5	-3.8	0.2	-15.4	-13.7
	중동	15.7	-5.6	-41.7	-37.3	-46.0	-45.0	-42.5	-44.9	-37.1
	동남아	14.5	1.4	-6.9	-13.9	-12.2	-10.4	-10.8	-19.6	-2.8
	EU	13.1	11.0	-7.7	-5.2	-11.0	-9.4	-8.3	-5.0	-8.6
	일본	10.5	-10.4	-8.8	-13.2	-18.0	-18.8	-14.7	-19.3	-11.3
	미국	10.1	9.1	-7.1	-2.6	0.2	-1.4	-2.8	-8.3	1.7
	호주	3.8	-1.8	-19.8	-22.5	-15.2	-20.4	-19.5	-18.8	-22.6
	전체	100.0	1.9	-15.6	-15.6	-18.7	-17.8	-16.9	-20.1	-14.6

주: 1) 2015년 전체 수입 및 수출에서 차지하는 지역별 비중.

2) 증감률은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원부 보도자료 2015. 12. 1).

58) EU기금(EU Fund)은 EU 회원국 간의 사회·경제적 결속을 강화하고 지역 간 발전 불균형 해소 및 고용창출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EU 집행위가 회원국에 제공하는 지원금임(KOTRA, 「2014 EU 기금을 활용한 공공프로젝트 수주방안」). 기금은 7년 단위로 배정되는데, 2014~2020년 총 3,518억 유로 규모의 기금이 배정되어 있음. 2016년 초부터 동유럽을 중심으로 교통(철도, 도로), 환경 및 에너지, 디지털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발주가 추진됨(KOTRA,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가계소득〉

■ 2015년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근로소득 증가세가 둔화되고 재산소득이 감소한 반면 이전소득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0.9% 증가하였으며,⁵⁹⁾ 월평균 소비지출은 0.5% 증가함.

○ 2015년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30만 2,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9% 증가하였고, 실질소득은 0.2% 감소함.

-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52만 8,000원으로 0.7% 증가하였으며, 흑자액은 97만 8,000원으로 1.9% 감소함.

○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교통, 오락문화, 보건 등을 중심으로⁶⁰⁾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한 255만 원을 기록하였고, 실질소비지출은 0.7% 증가함.

○ 평균소비성향은 72.3%로 전년동기대비 0.7%p 상승하였고, 저축능력을 나타내는 흑자율은 0.8%p 하락함.

- 2015년 4/4분기 흑자액은 97만 8,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9% 감소함.

〈표 28〉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

(단위: %, %p)

구분	2014		2015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금액(만 원)	426.4	430.2	451.7	427.1	441.6	430.2	437.3
	증가율	2.4	3.4	2.6	2.9	0.7	0.9	1.6
	실질증가율 ²⁾	1.4	2.1	2.0	2.3	0.0	-0.2	0.9
처분가능 소득	금액(만 원)	350.3	349.8	366.8	348.4	358.2	352.8	356.3
	증가율	2.9	3.5	3.0	3.1	0.9	0.7	1.9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만 원)	250.6	255.1	265.3	249.4	256.3	255.0	256.3
	증가율	0.9	2.8	0.0	0.7	-0.5	1.7	0.5
	실질증가율 ²⁾	-0.1	1.5	-0.6	0.1	-1.2	0.7	-0.2
흑자액	금액(만 원)	99.7	94.7	101.5	98.9	102.0	97.8	100.0
	증가율	8.3	5.2	11.6	9.6	4.7	-1.9	5.6
평균소비성향 ³⁾		71.5	72.9	72.3	71.6	71.5	72.3	71.9
흑자율 ⁴⁾		28.5	27.1	27.7	28.4	28.5	27.7	28.1

주: 1) 전년동(분)기대비.

2) 실질 금액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계산하며 실질 증감률은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임.

3) 평균소비성향은 '(소비지출 ÷ 처분가능소득) × 100'으로 정의됨.

4) 흑자율은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 × 100'으로 정의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59) 2015년 4/4분기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성요소 중 근로소득(0.9%), 이전소득(4.7%), 사업소득(0.4%)은 전년 동기대비 증가한 반면, 재산소득(-18.2%)은 감소함(통계청 보도자료 2016. 2. 26, "2015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

60) 소비지출항목 중 교통(6.7%), 오락문화(8.3%), 보건(5.0%) 등이 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보도자료 2016. 2. 26).

3. 국내금융

- 2016년 1/4분기 국고채(3년 만기)와 회사채(3년 만기, AA-) 금리는 2015년 4/4분기보다 하락한 가운데 신용스프레드가 10bp확대되어 경제상황이 밝지 않음을 보임.
- 2016년 1/4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전분기대비 소폭 상승하였고, 종합주가지수는 전분기보다 하락하여 국내 경기가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음.
- 2015년 4/4분기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보험, 은행, 증권은 증가하고, 주식시장 부진 등으로 자산운용은 감소함.

〈금리〉

- 2016년 1/4분기 기준금리는 1.50%로 지난 분기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금융통화위원회는 세계 경제의 경우 미국 등 선진국 중심의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전망하였으나 중국 등 신흥국의 금융·경제 상황, 국제유가 움직임 등의 영향을 고려함.
- 2016년 1/4분기 평균 국고채(3년 만기) 금리는 전분기대비 17bp 하락한 1.53%임.
 - 1월 국고채 금리는 1월 말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과 주요국의 국채금리 급락⁶¹⁾의 영향으로 12월 평균 금리 1.72% 보다 9bp 하락한 1.63%를 기록함.
 - 2월 평균 국고채 금리는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과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1월보다 0.15bp 하락한 평균 1.47%를 나타냄.
 - 3월 국고채 금리는 국내 기준금리 동결과 유가하락, 미국 연방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 힘입어 2월보다 소폭 상승한 1.50%를 기록함.

61) 2016년 1월 초부터 1월 말까지의 국채(10년물) 금리 하락폭은 미국 32bp, 독일 24bp, 일본 16bp임.

〈표 29〉 금리 및 스프레드¹⁾

(단위: %, %p)

구분	2015 1/4	2015 2/4	2015 3/4	2015 4/4	2016 1/4	전분기 대비	전년동기 대비
기준금리 ²⁾	1.75	1.50	1.50	1.50	1.50	0.00	-0.25
CD(91일) ³⁾	2.07	1.77	1.63	1.61	1.65	0.04	-0.41
국고채(3년) ⁴⁾	1.97	1.80	1.72	1.70	1.53	-0.17	-0.44
회사채(3년, AA-)	2.26	2.04	1.98	2.07	2.01	-0.06	-0.25
스프레드(국고채-CD)	-0.09	0.03	0.09	0.09	-0.12	-0.21	-0.03
스프레드(회사채-국고채)	0.28	0.24	0.26	0.37	0.47	0.10	0.19

주 1) 금리는 분기 평균 값임.

2)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의 거래 시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임.

3) 단기시장의 육성 및 금리자유화 기반 조성 등에 목적을 둔 저축성상품으로 은행이 정기에금에 대하여 발행하는 예금증서임.

4) 중앙정부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만기가 정해진 채무증서인 국채의 한 종류임.

5)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주식회사가 확정채무임을 표시한 증권을 발행하고 계약에 따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여 만기에 원금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고 차입한 채무를 의미함.

자료: 한국은행.

■ 2016년 1/4분기 평균 CD(91일) 금리는 전분기대비 4bp 상승한 1.65%임.

○ 1/4분기 평균 ‘국고채(3년)-CD(91일)’ 간 스프레드는 -12bp로 전분기대비 21bp 하락하여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이 나타남.

■ 회사채 금리는 2016년 1/4분기 평균 2.01%로 전분기대비 6bp 하락함.

○ 신용 스프레드(회사채와 국고채 간 금리차이)는 전분기대비 10bp 상승한 평균 47bp임.

〈환율〉

■ 2016년 1/4분기 동안 원/달러 평균 환율은 전분기대비 43.8원 상승한 평균 1,201.4원을 기록함.

○ 1월 평균 원/달러 환율은 국내 경제지표 부진⁶²⁾ 등 상승 요인의 영향으로 12월 평균 원/달러 환율 1,172.2원보다 상승한 1,201.7원을 기록함.

62) 1월 외화보유액은 3,679.6억 달러로 전월대비 5억 달러 감소함.

- 2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외국인 유가증권 매도세,⁶³⁾ 미국 제조업지표 호조⁶⁴⁾에 따른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1월보다 상승한 1,217.4원이었음.
- 3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감소,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⁶⁵⁾ 등의 영향으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며 2월 평균 환율보다 하락한 1,188.2원을 나타냄.

〈표 30〉 환율

(단위: 원, 엔, 달러)

구분	2015				2016			
	1/4	2/4	3/4	4/4	1/4	1월	2월	3월
원/달러	1,100.3	1,097.8	1,167.8	1,157.7	1,201.4	1,201.7	1,217.4	1,188.2
엔/달러	119.2	121.4	122.2	121.5	115.3	118.1	114.9	113.0
달러/유로	1.127	1.105	1.112	1.095	1.103	1.087	1.108	1.113

주: 환율은 분기 또는 월 평균 값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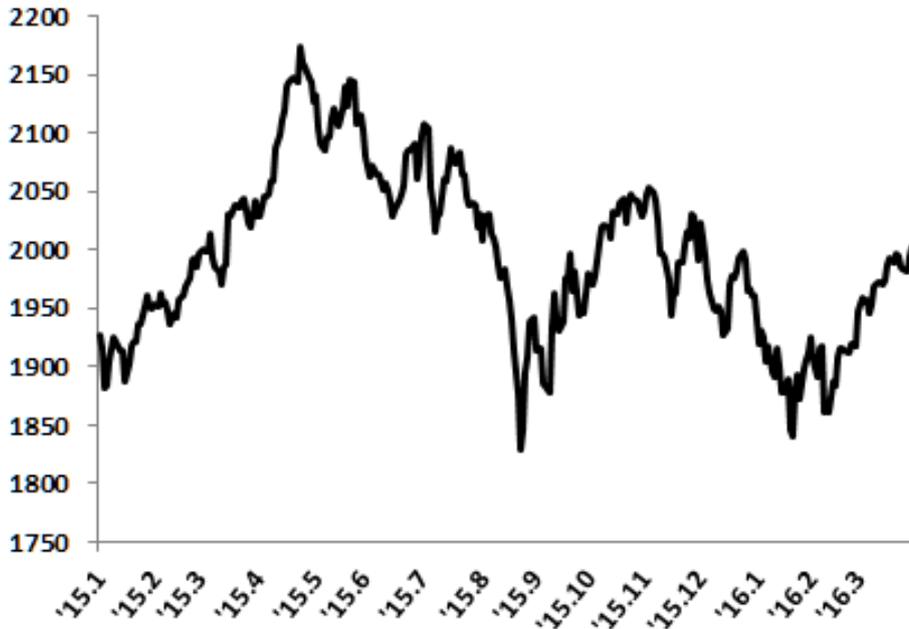
- 2016년 1/4분기 달러화는 엔화와 유로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여 엔/달러 평균 환율은 하락하고, 달러/유로 환율은 상승함.
 - 1월 달러화는 유럽중앙은행(ECB) 추가 양적완화 기대 심리로 인해 전월대비 강세를 보여 엔/달러 환율은 118.1엔, 달러/유로 환율은 1.087달러를 기록함.
 - 2월 달러화는 엔화와 유로화에 대해 전월대비 약세를 보여 엔/달러 환율과 달러/유로 평균 환율은 각각 114.9엔, 1.108 달러를 나타냄.
 - 3월 달러화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지연 가능성이 커지고, ECB 의장의 추가 금리 인하 불필요 발언의 영향으로 약세를 보여 평균 엔/달러, 달러/유로 환율은 각각 113.0엔, 1.113달러를 나타냄.

63) 2월 12일 기준 외국인 채권 순매도 규모는 △1조 5,885억 원, 주식 순매도 규모는 △3,747억 원임.
 64) 1월 미국 내구재주문 실적이 전월대비 4.9% 증가하여 10개월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함.
 65) 2016년 3월 10일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기존 수준인 1.50%로 유지하기로 결정함.

〈주가〉

- 2016년 1/4분기 종합주가지수는 전분기 평균 1,999.03보다 하락한 평균 1,926.92임.
- 1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2015년 12월 평균 주가지수 1,971.06보다 하락한 1,894.65를 기록함.
- 2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1,902.17로 외국인 순매수,⁶⁶⁾ 해외 증시 강세⁶⁷⁾ 등의 영향으로 1월에 비해 상승함.
- 3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해외 증시 강세 지속, 외국인 매수세 지속,⁶⁸⁾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동결의 영향으로 1,976.50을 기록하며 전월대비 상승함.

〈그림 4〉 주가지수



주: 증권시장의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반영하는 지표로 우리나라는 상장된 보통주 전 종목을 대상으로 1980년 1월 4일을 기준일로 하며 당일의 주가지수를 100으로 하여 시계열에 의한 연속지수를 산출하고 있음.

자료: 한국은행.

- 66) 2월 첫째주 외국인 순매수 규모는 1,149억 원으로 1월 말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전환되었음.
- 67) 2월 둘째주 말에 비하여 2월 셋째주 말 주요국 주가지수는 미국 다우지수 4.1%, 영국 FTSE 6.8%, 독일 DAX 6.1% 상승함.
- 68) 2월 29일부터 3월 3일 사이 외국인 순매수 규모는 13,739억 원으로 전주 외국인 순매수 규모 2,331억 원보다 확대되었으며, 3월 7일부터 3월 11일에도 외국인 순매수 규모는 7,743억 원으로 외국인 순매수세가 지속됨.

〈자금흐름〉

- 2015년 4/4분기 보험권 총 순수신은 20조 2,313억 원으로 전분기대비 33.5% 증가함.
 - 생명보험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33.6% 증가한 16조 2,090억 원임.
 - 수입보험료는 34조 8,629억 원이고, 지급보험금은 18조 6,539억 원으로 전분기대비 모두 증가하였으나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지급보험금 증가율을 상회하며 순수신이 증가함.
 - 손해보험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33.1% 증가한 4조 222억 원임.
 - 손해보험 역시 원수보험료 22조 5,647억 원, 원수손해액 18조 5,425억 원으로 모두 증가하였으나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지급보험금 증가율보다 높아 순수신이 늘어남.

- 2015년 4/4분기 금융권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은행과 증권은 증가하고, 자산운용은 감소함.
 - 은행의 경우 전분기대비 일반계정은 감소하였으나 신탁계정이 증가하여 총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1.4% 증가한 41조 2,913억 원을 기록함.
 - 일반계정은 전분기대비 12.5% 감소한 29조 6,116억 원을 기록하였고, 신탁계정은 전분기대비 69.8% 증가한 11조 6,797억 원을 기록함.
 - 증권사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7,460억 원 증가한 4,222억 원임.
 - 자산운용업의 총순수신은 전분기대비 156.2% 감소하여 -4조 5,360억 원임.

〈표 31〉 금융기관 수신

(단위: 억 원)

구분	2014				2015				2016
	1/4	2/4	3/4	4/4	1/4	2/4	3/4	4/4	1/4
보험 ¹⁾	133,551	145,570	135,769	196,083	139,618	149,469	151,589	202,313	-
- 생보	101,936	110,963	104,478	165,865	104,840	114,114	121,369	162,090	-
수입보험료	257,467	264,960	255,554	327,771	273,358	278,525	271,624	348,629	-
지급보험금	155,531	153,998	151,076	161,906	168,518	164,412	150,255	186,539	-
- 손보	31,615	34,607	31,291	30,218	34,778	35,355	30,219	40,222	-
원수보험료	183,082	180,217	179,023	223,433	193,204	192,156	188,827	225,647	-
원수손해액	151,466	145,610	147,732	193,215	158,425	156,802	158,608	185,425	-
은행	272,496	250,005	76,442	391,862	138,338	370,258	407,283	412,913	169,501
- 일반 ²⁾	199,612	231,527	32,411	314,189	28,931	327,515	338,489	296,116	110,081
- 신탁	72,884	18,478	44,031	77,673	109,407	42,743	68,794	116,797	59,420
증권 ³⁾	6,904	19,088	53,478	-6,648	65,495	55,742	-3,238	4,222	-20,384
자산운용 ⁴⁾	96,918	16,946	196,161	160,044	278,994	163,004	80,769	-45,360	235,149
종금 ⁵⁾	8,863	2,733	826	3,420	-6,816	8,403	5,195	-1,453	4,634

주: 1) 보험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수입(원수)보험료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을 통해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아들이는 보험료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포함함.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은 보험금지급 사유 발생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의미함.

2) 실세총예금 + CD 순발행액

실세예금은 수표 등을 뺀 나머지로 은행이 대출과 유가증권투자 등에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 예금액임.

3) 고객예탁금 + RP 매도 + CMA

고객예탁금은 고객이 주식 및 채권을 매매하기 위해 증권회사에 맡긴 자금과 주식 및 채권을 매도하고 인출해 가지 않아 증권회사에 남아있는 자금이며, 이는 장래에 주식에 재투자될 자금이라고 볼 수 있음.

RP는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 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임.

CMA는 고객이 맡긴 예금을 어음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고객에게 돌려주는 실적배당 금융상품임.

4) 채권형 + MMF + 혼합형 + 주식형 + 기타

MMF는 단기금융상품에 집중 투자하여 단기 실세금리의 등락이 펀드 수익률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초단기 공사채형 상품임.

5) 발행어음 + CMA 예탁금 + 어음매출

발행어음은 금융회사가 영업자금 조달을 위해 자체 신용으로 유통어음을 발행하여 일반 투자자에게 매출하는 형식의 1년 미만의 단기 금융상품임.

어음매출은 종합금융회사가 매입 보관하고 있는 할인어음을 고객의 요청에 의해 매출하는 것임.

자료: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Ⅲ. 국내보험시장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 2015년 4/4분기 수입(원수)보험료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6.4%, 2.2% 증가하였으며, 전체적으로 4.7% 늘어난 57조 6,890억 원을 시현함.
 -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은 전년동기대비 4.1%p 상승한 53.5%, 손해보험 손해율은 전년동기대비 2.7%p 하락한 82.9%를 기록함.
 - 보험산업 총자산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모두 늘어나 전년동기대비 2.6% 증가한 950조 8,364억 원을 기록함.
 - 당기순이익의 경우 재보험사 및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손해보험 당기순이익은 증가하였으나 생명보험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72.3% 감소한 942억 원임.
 - 한편, 보험산업 전체 자본이익률과 자산이익률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0.32%p, 0.04%p 하락한 0.11%, 0.01%임.

- 2015년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5.5% 증가한 197조 4,609억 원임.
 - 연간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은 전년대비 0.8%p 상승한 57.1%, 손해보험 손해율은 전년대비 0.3%p 하락한 83.1%를 기록함.
 - 연간 보험산업 총자산은 전년대비 10.3% 늘어난 950조 8,364억 원임.
 - 연간 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12.3% 증가한 5조 5,020억 원임.
 - 2015년 연간 보험산업 전체 자본이익률은 전년대비 0.05%p 하락한 6.59%, 자산이익률은 0.03%p 상승한 0.75%를 기록함.

가. 수입(원수)보험료

■ 2015년 4/4분기 보험산업 전체 수입(원수)보험료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모두 성장하여 전년동기대비 4.7% 증가한 57조 6,890억 원을 기록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¹⁾는 사망보험과 생사혼합보험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6.4% 늘어난 34조 8,629억 원을 나타냄(〈표 7〉 참조).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²⁾는 퇴직연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과 장기상해 및 질병보험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2% 늘어난 22조 8,261억 원을 기록함(〈표 16〉 참조).

○ 2015년 연간 기준 보험산업 전체 수입(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5.5% 증가한 197조 4,609억 원을 시현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6.0% 증가한 117조 2,137억 원,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4.8% 늘어난 80조 2,473억 원을 기록함.

〈표 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1),2)}

(단위: 조 원, %)

구분	2014				2015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명보험	26.5	25.6	32.8	110.6	27.3	27.9	27.2	34.9	117.2
	(8.1)	(6.5)	(14.1)	(1.9)	(6.2)	(5.1)	(6.3)	(6.4)	(6.0)
손해보험 ³⁾	18.0	17.9	22.3	76.6	19.3	19.2	18.9	22.8	80.2
	(3.8)	(4.6)	(15.9)	(8.3)	(5.5)	(6.6)	(5.5)	(2.2)	(4.8)
합계	44.5	43.5	55.1	187.2	46.7	47.1	46.0	57.7	197.5
	(6.4)	(5.7)	(14.8)	(4.4)	(5.9)	(5.7)	(6.0)	(4.7)	(5.5)

주: 1) 주요지표에는 특별계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2)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현대해상화재보험이 2015.7.1일자로 하이카다이렉트를 흡수합병(자산부채양수도계약)함에 따른 실적을 일부 조정·반영하여, 각 사별 업무보고서 합산수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 보험회사가 회계연도 동안 받아들인 보험료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로 구성됨.

2) 원수보험료(direct premiums written)라 함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을 통해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아들인 보험료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포함함.

나. 지급률(손해율) 및 사업비율

■ 2015년 4/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기준 보험금 지급률은 전년동기대비 4.1%p 상승한 53.5%이며, 사업비율은 1.0%p 하락한 11.7%임.

○ 2015년 연간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은 전년대비 0.8%p 상승한 57.1%를, 사업비율은 0.7%p 하락한 13.3%를 나타냄.

■ 2015년 4/4분기 손해보험 손해율은 전년동기대비 2.7%p 하락한 반면, 사업비율은 1.2%p 증가한 20.6%를 나타냄에 따라 합산비율은 1.7%p 개선된 103.4%임.

○ 2015년 연간 손해보험 손해율은 전년대비 0.3%p 개선된 83.1%를 기록한 반면, 사업비율은 0.5%p 상승한 19.5%를 나타냈으며, 합산비율은 0.3%p 증가한 102.7%를 기록함.

〈표 2〉 지급률 · 손해율 및 사업비율

(단위: %)

구분	2014				2015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명보험 ¹⁾	지급률	58.1	59.1	49.4	56.3	61.6	59.0	55.3	53.5	57.1
	사업비율	15.0	14.6	12.7	14.0	14.0	13.7	14.3	11.7	13.3
손해보험 ²⁾	손해율	80.6	83.9	85.6	83.4	83.6	82.3	83.7	82.9	83.1
	사업비율	18.7	18.8	19.4	19.0	19.6	18.9	19.1	20.6	19.5
	합산비율	99.3	102.7	105.1	102.4	103.2	101.1	102.8	103.4	102.7

주: 1)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사업비율 = 실제사업비 / 수입보험료.

2)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사업비율 =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합산비율 = 손해율 + 사업비율.

여기서 순사업비는 지급경비(급여와 임금, 손해조사비, 모집비, 수급비 등)에서 수입경비(출재보험 수수료, 출재이익 수수료 등)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총자산

■ 2015년 4/4분기 보험산업 총자산 규모는 전분기대비 2.6% 늘어난 950조 8,364억 원을 나타냄.

○ 생명보험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2.5% 증가한 724조 9,013억 원, 손해보험 총자산은 전분기 대비 2.8% 늘어난 225조 9,351억 원임.

○ 2015년 연간 보험산업 총자산 규모는 전년대비 10.3% 증가하였으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총자산은 각각 전년대비 9.5%, 12.8% 증가함.

〈표 3〉 보험산업 총자산^{1,2)}

(단위: 조 원, %)

구분	2014				2015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명보험	625.0	640.4	662.1	662.1	685.7	691.0	707.1	724.9	724.9
	(2.6)	(2.5)	(3.4)	(10.8)	(3.6)	(0.8)	(2.3)	(2.5)	(9.5)
손해보험	185.1	191.4	200.3	200.3	207.9	212.3	219.7	225.9	225.9
	(4.6)	(3.4)	(4.7)	(17.4)	(3.6)	(2.1)	(3.5)	(2.8)	(12.8)
합계	810.2	831.8	862.4	862.4	893.6	903.3	926.8	950.8	950.8
	(3.1)	(2.7)	(3.7)	(12.3)	(3.6)	(1.1)	(2.6)	(2.6)	(10.3)

주: 1) 주요지표에는 특별계정이 포함되어 있음.

2)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이며,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수익성

■ 2015년 4/4분기 보험산업 전체 당기순이익은 손해보험은 증가하였으나 생명보험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72.3% 감소한 943억 원임.

○ 생명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은 946억 원 손실을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160.7% 하락함.

○ 손해보험산업은 전년동기대비 2.2% 증가한 1,889억 원을 기록함.

○ 2015년 연간 보험산업 전체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 12.3% 증가한 5조 5,020억 원임.

〈표 4〉 보험산업 당기순이익^{1),2)}

(단위: 조 원, %)

구분	2014				2015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명보험	1.05	1.09	0.16	3.24	1.28	1.52	0.89	-0.09	3.59
	(24.1)	(19.8)	(-53.8)	(14.9)	(36.2)	(43.9)	(-18.2)	(-160.7)	(11.0)
손해보험	0.56	0.45	0.18	1.66	0.61	0.63	0.48	0.19	1.91
	(8.1)	(5.9)	(-31.5)	(6.4)	(30.5)	(12.4)	(7.3)	(2.2)	(15.0)
합계	1.61	1.54	0.34	4.90	1.89	2.14	1.37	0.09	5.50
	(18.1)	(15.3)	(-43.9)	(11.8)	(34.3)	(33.0)	(-10.7)	(-72.3)	(12.3)

주: 1) 주요지표에는 특별계정이 포함되어 있음.

2)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이며,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25개,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17개 국내외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5년 4/4분기 보험산업 전체 자본이익률(ROE)의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 제외)이 모두 하락하여 전년동기대비 0.32%p 하락한 0.11%임.

○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이익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0.42%p 하락한 -0.15%를 기록함.

○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자본 증가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전년동기대비 0.08%p 하락한 0.82%를 나타냄.

○ 2015년 연간 보험산업 전체 자본이익률은 6.59%이며, 생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 자본 이익률은 각각 5.83%, 8.72%임.

■ 2015년 4/4분기 보험산업 전체 자산이익률(ROA)은 전년동기대비 0.04%p 하락한 0.01%를 기록함.

○ 생명보험산업 자산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05%p 하락한 -0.02%를, 손해보험산업 자산 이익률은 0.01%p 하락한 0.10%를 나타냄.

○ 2015년 연간 보험산업 전체 자산이익률은 0.75%이며, 생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 자산 이익률은 각각 0.62%, 0.98%를 나타냄.

〈표 5〉 보험산업 자본이익률^{1),2)}

(단위: %)

구분	2014				2015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ROE	생명보험	2.02	1.97	0.27	5.92	2.08	2.43	1.42	-0.15	5.83
	손해보험	3.00	2.25	0.90	8.69	2.81	2.81	2.14	0.82	8.72
	합계	2.28	2.05	0.43	6.64	2.27	2.53	1.61	0.11	6.59
ROA	생명보험	0.21	0.21	0.03	0.62	0.23	0.27	0.15	-0.02	0.62
	손해보험	0.35	0.28	0.11	1.03	0.35	0.35	0.26	0.10	0.98
	합계	0.24	0.22	0.05	0.72	0.26	0.29	0.18	0.01	0.75

주: 1)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25개,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17개 국내외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함.

2) 자본이익률 =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기중자본 = ((전회계연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2. 생명보험

- 2015년 4/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6.4% 늘어난 34조 8,629억 원을 시현함.
 -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은 전년동기대비 4.1%p 상승한 53.5%를 나타냄.
 - 당기순이익은 946억 원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투자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기 때문임.
 -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2.5% 증가한 724조 9,013억 원을 나타냈으며, 자본이익률과 자산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0.42%p, 0.05%p 하락한 -0.15%, -0.02%를 기록함.
- 2015년 연간 기준으로 보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6.0% 증가한 117조 2,137억 원을 기록함.
 - 연간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은 전년대비 0.8%p 상승한 57.1%를 나타냄.
 - 2015년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11.0% 증가한 3조 5,917억 원 흑자를 시현하였으며, 자본이익률은 전년대비 0.09%p 하락한 5.83%, 자산이익률은 전년과 같은 수준인 0.62%를 기록함.
- 2015년 생명보험산업은 완만한 수입보험료 성장세를 유지한 가운데 전년대비 당기순이익 증가는 실현하였지만, 자본이익률과 자산이익률이 하락하여 규모대비 저조한 수익 실적을 기록함.

가. 수입보험료

〈생명보험 개요〉

- 2015년 4/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개인보험과 단체보험 모두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6.4% 늘어난 34조 8,629억 원을 기록함(〈표 7〉 참조).
 - 개인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생존보험과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감소하였으나 사망보험과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가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4.4% 늘어남.
 -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지속적인 퇴직연금 성장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2.5% 증가함.
 - 2015년 연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6.0% 증가한 117조 2,137억 원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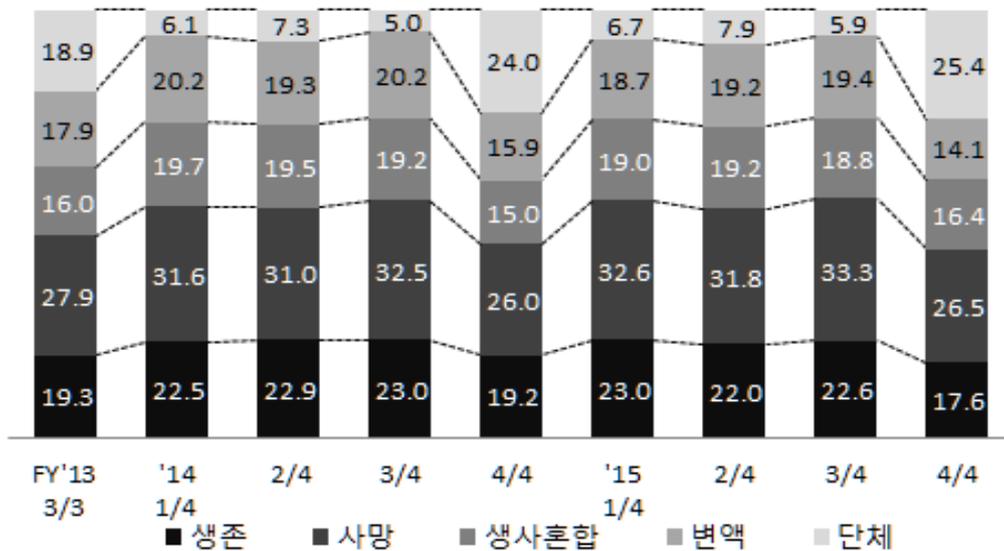
- 개인보험은 보장성 보험을 중심으로 4.9% 증가한 102조 7,412억 원을, 단체보험은 퇴직연금 증가세에 힘입어 15.9% 증가한 14조 4,725억 원을 기록함.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추이〉

- 2015년 4/4분기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비중의 경우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단체보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소폭 확대된 반면, 생존보험과 변액보험 비중은 축소됨.
-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단체보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0.5%p, 1.4%p, 1.4%p 상승한 26.5%, 16.4%, 25.4%를 나타냄.
- 생존보험과 변액보험 비중은 수입보험료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각각 1.6%p, 1.8%p 하락한 17.6%, 14.1%를 기록함.

〈그림 1〉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추이

(단위: %)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5년 4/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의 경우 상위 3사는 전년동기대비 하락하였으나 국내 중·소형사와 외국사는 상승하였으며, 생명보험산업 전체 허핀달 지수는 전년동기대비 0.0257p 하락한 0.1058을 나타냄.

- 상위 3사 시장점유율은 일부 대형사의 퇴직연금 실적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3.7%p 하락한 48.0%를 나타냄.
- 국내 중·소형사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1.7%p 상승한 38.9%를 나타냄.
- 외국사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전년동기대비 2.0%p 상승한 13.1%를 기록함.
- 종목별 허핀달 지수를 살펴보면 생사혼합보험을 제외한 전 종목이 전년동기대비 하락하였음.
- 2015년 연간 기준으로 보면, 수입보험료 기준 상위 3사와 국내 중·소형사 시장점유율이 전년대비 하락한 반면 외국사 시장점유율은 상승하였음.
 - 2015년 연간 보험종목별 허핀달 지수의 경우에는 일반단체를 제외한 전 종목이 하락하여 전년대비 0.0085p 하락한 0.1053을 시현함.

〈표 6〉 생명보험시장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¹⁾

(단위: %)

구분	2014				2015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점유율 ²⁾	상위 3사	48.2	48.0	51.7	49.0	47.1	46.4	45.9	48.0	46.8	
	국내중·소형사 ³⁾	38.2	37.8	37.2	37.9	39.7	39.9	40.6	38.9	37.2	
	외국사 ⁴⁾	13.7	14.2	11.1	13.1	13.1	13.7	13.5	13.1	15.9	
허핀달지수 ⁵⁾	개인	생존	0.1346	0.1334	0.1380	0.1360	0.1388	0.1299	0.1173	0.1171	0.1251
		사망	0.1170	0.1138	0.1132	0.1137	0.1098	0.1125	0.1128	0.1125	0.1118
		생사혼합	0.1098	0.1019	0.0975	0.1040	0.1035	0.0966	0.2115	0.1264	0.0964
		변액	0.1358	0.1382	0.1711	0.1439	0.1425	0.1457	0.1272	0.1467	0.1390
	단체	일반단체	0.3791	0.3665	0.3904	0.3532	0.3035	0.3915	0.3828	0.3856	0.3621
퇴직연금		0.2056	0.2517	0.2950	0.2568	0.2099	0.2832	0.2485	0.1651	0.1841	
	전체	0.1088	0.1082	0.1315	0.1138	0.1074	0.1061	0.1020	0.1058	0.1053	

주: 1) 퇴직보험·연금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를 포함한 실적임.
 2) 각 회사점유율 = 각 회사 수입보험료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상위 3사, 국내 중·소형사, 외국사 점유율은 회사 분류에 따라 각 회사 점유율을 합친 값임.
 3) 국내 중·소형사(13개사)는 상위3사와 외국사를 제외한 보험회사로 정의하며 2015년 10월 동양생명이 안방보험에 인수·합병됨에 따라 2015년 4/4분기부터 외국사에 포함됨.
 4) 외국사는 지분변동을 기준으로 2015년 12월 말 알리안츠 생명 등 9개사임.
 5) 허핀달 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수입보험료 현황〉

■ 2015년 4/4분기 개인보험의 경우 생존보험과 변액보험은 감소하고, 사망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6.4% 증가함(〈표 7〉 참조).

- 생존보험은 전년동기대비 2.3% 감소하였음.
- 사망보험은 생명보험회사들의 지속적인 보장성 보험 판매 확대 노력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8.3% 증가함.³⁾
- 생사혼합보험은 2014년 2/4분기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4/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16.6% 증가함.
- 변액보험은 주가지수 하락으로 인한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설 실적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5.4% 감소함.
- 2015년 연간 개인보험은 변액보험을 제외한 모든 종목의 수입보험료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4.9% 성장함.

■ 2015년 4/4분기 단체보험의 경우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크게 늘어나 전년동기대비 12.5% 증가함.

- 퇴직연금은 사적연금시장 활성화 정책과 계속보험료의 지속적인 증가에 힘입어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함.
- 2015년 연간 단체보험은 퇴직연금 성장에 힘입어 전년대비 14.5% 증가함.

3) 최근 보험회사들은 해지환급금을 낮춘 저(무)해지환급금형 보장성 보험 판매를 확대하고 있음.

〈표 7〉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2014					2015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존	보험료	60,647	58,776	62,910	240,340	62,882	61,157	61,327	61,482	246,848
	증가율	14.1	8.9	13.4	-7.6	8.4	0.8	4.3	-2.3	2.7
	초회보험료	17,890	15,262	17,443	66,636	17,646	15,243	15,071	14,238	62,198
	계속보험료	42,757	43,514	45,467	173,704	45,237	45,914	46,256	47,244	173,704
사망	보험료	82,133	83,131	85,238	331,788	89,041	88,434	90,538	92,349	360,361
	증가율	4.1	4.6	6.2	4.6	9.5	7.7	8.9	8.3	8.6
	초회보험료	2,250	2,004	3,717	10,720	6,482	4,015	5,346	4,479	20,272
	계속보험료	79,883	80,527	81,521	321,069	82,609	84,418	85,191	87,871	321,069
생사 혼합	보험료	51,639	49,171	49,038	200,544	51,932	53,500	51,152	57,187	213,771
	증가율	8.5	6.4	6.8	-3.5	2.4	3.6	4.0	16.6	6.6
	초회보험료	12,695	9,945	8,935	44,185	11,628	10,807	8,719	12,015	43,169
	계속보험료	38,945	39,226	40,103	156,359	40,304	42,693	42,433	45,172	156,360
변역 보험	보험료	51,246	51,622	51,957	206,709	51,122	53,539	52,629	49,140	206,431
	증가율	-2.5	0.5	0.9	-1.9	-1.5	4.5	2.0	-5.4	-0.1
	초회보험료	2,524	2,819	2,504	10,451	2,348	3,942	4,168	2,377	12,831
	계속보험료	48,722	48,803	49,453	196,259	48,779	49,597	48,461	46,763	847,391
개년계	보험료	245,665	242,701	249,143	979,382	254,977	256,631	255,646	260,158	1,027,412
	증가율	5.8	5.0	6.8	-1.7	5.4	4.5	5.3	4.4	4.9
	초회보험료	35,358	30,631	32,599	131,991	38,048	34,008	33,304	33,109	138,470
	계속보험료	210,307	212,070	216,543	847,391	216,929	222,623	222,342	227,049	196,259
일반 단체	보험료	2,021	1,999	1,877	8,150	2,105	1,906	1,879	1,845	7,735
	증가율	-12.0	2.5	-2.3	-2.5	-6.6	-5.7	-6.0	-1.7	-5.1
	초회보험료	269	284	214	1,266	479	258	289	255	1,281
	계속보험료	1,751	1,715	1,663	6,884	1,625	1,648	1,590	1,590	6,454
퇴직 연금	보험료	17,275	10,854	76,751	118,221	16,276	19,988	14,100	86,626	136,990
	증가율	65.0	54.9	46.9	45.4	22.0	15.7	29.9	12.9	15.9
	초회보험료	7,238	4,548	33,745	51,381	6,337	3,924	4,317	28,858	43,436
	계속보험료	10,037	6,306	43,006	66,841	9,939	16,064	9,783	57,768	93,553
단체계 ¹⁾	보험료	19,295	12,853	78,629	126,371	18,381	21,895	15,979	88,471	144,725
	증가율	51.2	43.5	45.2	40.9	17.9	13.5	24.3	12.5	14.5
	초회보험료	7,507	4,833	33,959	52,646	6,816	4,183	4,606	29,112	44,717
	계속보험료	11,788	8,021	44,669	73,725	11,564	17,712	11,373	59,359	73,725
합계	보험료	264,960	255,554	327,771	1,105,753	273,358	278,525	271,624	348,629	1,172,137
	증가율	8.1	6.5	14.1	1.9	6.2	5.1	6.3	6.4	6.0

주: 1) 단체보험에는 일반단체보험, 퇴직보험, 퇴직연금이 포함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보험금 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지율

■ 2015년 4/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은 전년동기대비 4.1%p 상승한 53.5%를 나타냄.

- 생존보험과 변액보험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8.8%p, 5.7%p 상승한 62.1%, 62.7%를 나타냄.
- 사망보험은 수입보험료가 크게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3.0%p 하락한 48.1%를 시현함.
- 생사혼합보험의 경우 지급보험금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9.9%p 하락한 48.2%이고, 단체보험 보험금 지급률은 지급보험금이 크게 늘어나 17.5%p 상승한 51.4%임.
- 2015년 연간 기준 생명보험은 전년대비 0.8%p 상승한 57.1%를 나타냄.

■ 2015년 4/4분기 생명보험산업 전체 사업비율은 전년동기대비 1.0%p 하락한 11.7%로 나타났다으며, 해지율은 0.3%p 하락한 8.6%를 기록함.

- 사업비율과 해지율 하락은 보장성 보험을 중심으로 각각 수입보험료 증가 및 신계약액 증가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기 때문임.
- 2015년 연간 사업비율과 해지율은 전년대비 각각 0.7%p, 0.3%p 하락한 13.3%, 8.6%를 나타냄.

〈표 8〉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지율

(단위: %)

구분	2014				2015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보험금 지급률 ¹⁾	58.1	59.1	49.4	56.3	61.6	59.0	55.3	53.5	57.1
개인	54.8	56.2	54.3	55.6	56.8	56.0	52.9	54.2	55.0
생존	49.5	52.8	53.3	52.2	53.7	56.5	58.0	62.1	57.5
사망	50.6	51.3	51.1	52.2	50.5	47.9	46.8	48.1	48.3
생사혼합	58.1	59.3	58.1	60.1	63.0	55.5	54.2	48.2	55.1
변액	64.4	65.1	57.0	60.5	65.1	69.5	55.9	62.7	63.3
단체	100.9	113.5	33.9	62.1	129.5	94.2	94.7	51.4	72.6
일반단체	121.8	136.8	114.3	121.5	115.4	117.7	108.9	115.7	114.5
퇴직연금	98.5	109.2	31.9	58.0	131.3	92.0	92.8	50.1	70.2
사업비율 ²⁾	15.0	14.6	12.7	14.0	14.0	13.7	14.3	11.7	13.3
해지율 ³⁾	4.9	7.0	8.9	8.9	2.4	4.6	6.6	8.6	8.6

주: 1)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2) 사업비율 = 실제사업비 / 수입보험료

3)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해지율은 누계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보험료4〉

■ 2015년 4/4분기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임직원을 제외한 모든 채널 비중이 확대됨.

- 임직원 채널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11.8%p 축소된 39.0%를 기록함.
- 설계사, 대리점, 방카슈랑스 비중은 임직원 채널 판매비중 감소의 영향으로 각각 전년 동기대비 5.7%p, 0.8%p, 5.2%p 확대됨.
- 2015년 연간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비중을 보면, 임직원 채널 비중은 전년대비 6.7%p 축소됐으나, 설계사, 대리점,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은 각각 3.6%p, 0.5%p, 2.4%p 확대됨.

〈표 9〉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비중(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 억 원)

구분	2014				2015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임직원	17.0	13.4	50.8	28.2	14.8	10.6	11.7	39.0	21.5
설계사	16.8	20.9	12.7	16.4	20.1	20.2	22.2	18.4	20.0
대리점	6.0	7.4	4.5	5.7	6.4	6.5	6.9	5.3	6.2
중개사	0.0	0.1	0.0	0.0	0.1	0.0	0.1	0.0	0.1
방카슈랑스	60.0	58.0	31.8	49.6	58.3	62.2	58.8	37.0	52.0
기타	0.1	0.2	0.2	0.2	0.3	0.5	0.4	0.2	0.3
합계 ¹⁾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2,865	35,463	66,558	184,637	44,865	38,191	37,910	62,221	183,187

주: 1) 합계의 하단 수치는 전체 초회보험료 규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4) 초회보험료 기준임.

〈모집조직〉

■ 2015년 4/4분기 생명보험산업 모집조직의 경우 생명보험회사의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 수가 전분기대비 모두 감소함.

- 임직원 수는 2만 7,312명으로 전분기대비 220명 감소함.
- 설계사 수의 경우 전속설계사 수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전분기대비 2,225명 줄어든 12만 7,217명을 기록함.
- 전체 대리점 수는 법인대리점 수 감소로 전분기대비 149개 줄어든 6,010개를 나타냈으며, 7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임.

〈표 10〉 생명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분	2014			2015			
	2/4	3/4	4/4	1/4	2/4	3/4	4/4
임직원	28,532	27,288	28,111	27,521	27,538	27,532	27,312
설계사	136,028	132,900	130,366	129,335	129,796	129,442	127,217
- 전속	128,866	125,309	122,965	120,949	120,933	120,203	117,311
- 교차	7,162	7,591	7,401	8,386	8,863	9,239	9,906
대리점	7,187	7,113	6,867	6,399	6,266	6,159	6,010
- 개인	3,876	3,768	3,616	3,171	3,081	3,036	3,054
- 법인	3,311	3,345	3,251	3,228	3,185	3,096	2,956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재무성과

〈총수익 · 총비용〉

■ 2015년 4/4분기 생명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의 경우 보험영업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투자영업이익 감소와 책임준비금전입액 증가의 영향으로 946억 원 손실을 기록함.

- 보험영업이익은 대부분 종목의 수입보험료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7.7% 늘어남.
- 투자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6.4% 감소하였는데, 특히 금융자산처분 이익이 전년동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음.

- 전년동기인 2014년 4/4분기 투자영업이익은 일회성 요인인 주식처분이익 확대로 크게 증가한 바 있음.
- 책임준비금전입액은 사망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9.8% 늘어남.
 - 보장성보험인 사망보험 판매 증가에 따라 이와 관련한 책임준비금 적립도 증가함.
- 2015년 연간 생명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은 투자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보험영업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11.0% 증가한 3조 5,917억 원 흑자를 나타냄.

〈표 11〉 생명보험산업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십억 원, %)

구분	2014				2015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총수익	보험영업	19,932	19,606	20,239	79,319	20,910	20,803	20,799	21,693	84,205
	투자영업	7,059	5,410	7,172	25,761	6,974	6,766	8,496	5,593	27,830
	영업외	1,027	1,159	1,098	4,315	1,109	1,119	1,122	1,279	4,630
	소계	28,018	26,175	28,509	109,395	28,993	28,689	30,417	28,565	116,665
총비용	보험영업	14,870	14,739	15,302	60,281	15,659	15,136	15,093	15,881	61,769
	투자영업	1,461	191	1,645	4,197	1,253	1,246	3,496	420	6,415
	영업외	161	204	269	839	186	155	189	229	758
	소계	16,493	15,134	17,215	65,317	17,098	16,537	18,778	16,529	68,942
수지차	보험영업	5,062	4,868	4,937	19,038	5,250	5,667	5,706	5,812	22,436
		(13.8)	(6.7)	(29.9)	(-16.2)	(25.9)	(12.0)	(17.2)	(17.7)	(17.8)
	투자영업	5,598	5,219	5,527	21,564	5,721	5,520	5,000	5,173	21,415
		(10.9)	(3.9)	(10.4)	(7.2)	(9.6)	(-1.4)	(-4.2)	(-6.4)	(-0.7)
	866	954	829	3,476	924	964	933	1,051	3,872	
	11,526	11,041	11,293	44,079	11,896	12,151	11,640	12,036	47,722	
책임준비금전입	10,194	9,697	11,047	40,034	10,282	10,381	10,571	12,126	43,360	
법인세	277	258	90	807	332	252	181	5	770	
당기순이익	1,055	1,085	156	3,237	1,281	1,518	887	- 95	3,592	
	(24.1)	(19.8)	(-53.8)	(14.8)	(36.2)	(43.9)	(-18.2)	(-160.7)	(11.0)	

주: 1)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 실적은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임.
 2)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자산, 부채 및 자본〉

■ 2015년 4/4분기 총자산의 경우 전분기대비 2.5% 증가함.

○ 일반계정 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 증가하여 전분기대비 2.5% 늘어남.

-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전분기대비 각각 4.8%, 3.7% 증가함.

○ 특별계정 자산은 퇴직연금 증가세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2.6% 늘어남.

○ 2015년 연간으로 보면, 생명보험회사 총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과 퇴직연금 관련 자산 증가로 전년대비 9.5% 증가함.

■ 2015년 4/4분기 총부채는 책임준비금과 특별계정부채 증가로 전분기대비 2.8% 증가하였으며, 총자본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증가로 0.1% 증가함.

○ 2015년 연간으로 살펴보면 생명보험회사 총부채 역시 책임준비금과 특별계정부채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9.6% 증가하였으며, 총자산도 이익잉여금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증가로 전년대비 8.2% 증가함.

〈표 12〉 생명보험산업 부채 및 자본 현황¹⁾

(단위: 조 원, %)

구분		2014		2015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총자산	금액	662	662	686	691	707	725	725	
	증가율	5.9	10.8	3.6	0.8	2.3	2.5	9.5	
일반계정 자산	금액	550	550	566	570	586	601	601	
	증가율	6.5	11.1	2.8	0.8	2.9	2.5	9.2	
특별계정 자산	금액	112	112	120	121	121	124	124	
	증가율	3.2	9.5	7.4	0.8	-0.2	2.6	10.8	
부채 및 자본총계		662	662	686	691	707	725	725	
		증가율	5.9	10.8	3.6	0.8	2.3	2.5	9.5
총부채	금액	603	603	622	630	643	661	661	
	증가율	5.5	10.2	3.1	1.3	2.1	2.8	9.6	
책임준비금	금액	462	462	472	483	493	506	506	
	증가율	2.5	9.6	2.3	2.2	2.2	2.5	9.5	
기타부채	금액	15	15	18	16	19	18	18	
	증가율	9.8	17.4	19.2	-12.1	17.4	-4.9	17.1	
특별계정부채	금액	117	117	121	122	122	128	128	
	증가율	4.6	10.3	3.4	1.2	-0.4	5.1	9.5	
총자본	금액	59	59	64	61	64	64	64	
	증가율	10.1	17.9	8.0	-4.2	4.5	0.1	8.2	
자본금	금액	10	10	10	10	10	10	10	
	증가율	0.7	1.3	0.0	0.5	3.1	2.6	6.2	
자본잉여금	금액	6	6	6	6	6	6	6	
	증가율	1.6	2.3	0.0	0.0	2.1	0.5	2.6	
이익잉여금	금액	25	25	26	27	28	28	28	
	증가율	0.7	11.6	1.3	5.8	3.0	-0.6	9.7	
자본조정	금액	-1	-1	-2	-2	-2	-3	-3	
	증가율	10.8	33.0	4.6	0.0	0.4	64.9	73.1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금액	20	20	24	20	21	22	22	
	증가율	15.7	48.7	22.8	-17.5	7.6	4.6	14.0	

주: 1) 분기 수치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이며, 연간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산운용〉

■ 2015년 4/4분기 운용자산 이익률은 4.06%로 전년동기대비 0.39%p 하락하였고, 일반계정자산 이익률은 3.79%로 역시 전년동기보다 0.42%p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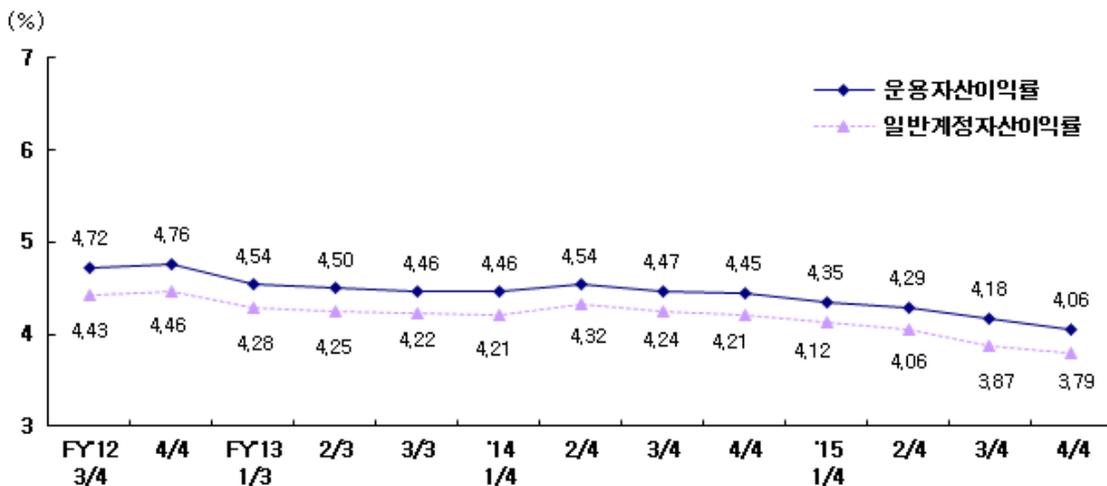
○ 운용자산 중 현금과 예금⁵⁾을 제외한 전 항목의 이익률이 하락함.

○ 2015년 4/4분기 기준금리는 1.50%로 2014년 4/4분기 기준금리보다 0.50%p 하락하였음.

■ 2015년 4/4분기 일반계정 중 운용자산 항목별 비중은 유가증권 72.7%, 대출채권 17.7%, 현금과 예금 2.6%, 부동산 2.5% 순이며, 비운용자산은 일반계정 자산 중 4.6%를 차지하고 있음.⁶⁾

○ 전년동기인 2014년 4/4분기와 비교해 볼 때, 유가증권 비중은 1.0%p 늘어났으나, 현금과 예금은 0.4%p, 부동산 0.2%p 축소됨.

〈그림 2〉 운용자산 이익률^{1),2),3)}



주: 1)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이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이익) × (연기준 환산)

2) 운용자산의 투자이익률은 각 사의 업무보고서 재산이용명세서를 기준으로 하였음.

3)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일반계정자산에서 비운용자산을 제외한 것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5) 현금과 예금은 전체 운용자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적은 데다 상승 폭도 소폭에 그침.

6) 일반계정 자산은 크게 운용자산과 비운용자산으로 구분되며, 각 항목별 비중은 전체 일반계정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표 13〉 생명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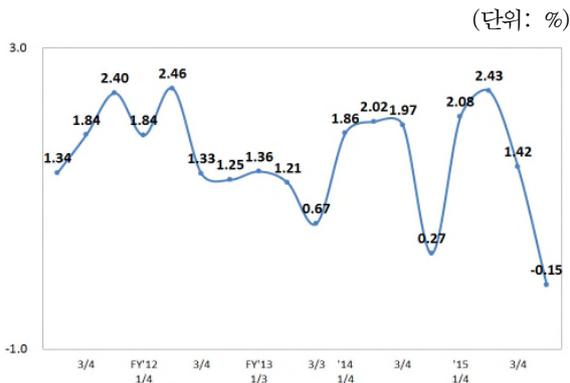
구분	2014		2015							
	4/4		1/4		2/4		3/4		4/4	
	구성비	이익률								
일반계정자산	100.0	4.21	100.0	4.12	100.0	4.06	100.0	3.87	100.0	3.79
운용자산 계	95.0	4.45	95.0	4.35	95.2	4.29	95.3	4.18	95.4	4.06
현금과 예금	3.0	3.24	2.3	2.94	2.2	3.17	2.5	4.11	2.6	3.39
유가증권	71.7	4.15	72.6	4.15	72.9	4.06	72.8	3.89	72.7	3.73
○ 당기손익인식증권 ³⁾	3.1	2.95	3.1	4.15	3.1	3.15	2.8	1.82	2.2	2.03
- 주식	0.1	-1.07	0.1	24.56	0.1	17.1	0.1	4.52	0.1	0.47
- 채권 등	0.8	4.34	0.7	6.63	0.7	5.01	0.7	1.36	0.6	2.47
- 수익증권	2.2	2.58	2.3	2.50	2.4	2.01	2.0	1.87	1.5	1.93
○ 매도가능증권	52.5	4.04	52.0	4.16	51.1	4.09	51.2	3.94	52.4	3.67
- 주식	3.9	3.44	4.0	5.04	3.7	3.14	3.2	2.54	3.3	1.89
- 채권 등	45.2	4.06	44.4	4.06	43.6	4.06	44.5	3.98	45.5	3.78
- 수익증권	3.4	4.63	3.5	4.42	3.8	5.45	3.5	4.85	3.6	4.15
○ 만기보유증권	14.5	4.84	15.9	4.27	17.1	4.28	17.3	4.29	16.6	4.36
- 채권 등	14.5	4.84	15.9	4.27	17.1	4.28	17.3	4.29	16.6	4.36
- 수익증권	0.0	0.00	0.0	0.00	0.0	0.0	0.0	0.00	0.0	0.0
○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	1.7	2.65	1.6	2.83	1.6	2.60	1.5	2.22	1.5	2.19
대출채권	17.7	5.94	17.5	5.55	17.4	5.56	17.4	5.50	17.7	5.42
부동산	2.7	4.15	2.6	3.36	2.6	3.35	2.6	3.43	2.5	4.70
비운용자산	5.0	0.05	5.0	-0.22	4.8	-0.44	4.7	-2.09	4.6	-1.29
총자산	100.0	3.81	100.0	4.93	100.0	4.31	100.0	3.61	100.0	3.60
일반계정	83.1	4.21	82.5	4.12	82.5	4.06	82.9	3.87	82.9	3.79
특별계정	16.9	1.84	17.5	8.83	17.5	5.52	17.1	2.33	17.1	2.64
총자산 규모	6,620,752		6,856,606		6,910,114		7,070,753		7,249,013	

주: 1) 이익률은 누계실적임.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3) FY2011 1/4분기 이후 단기매매증권에서 당기손익인식증권으로 계정 명칭이 변경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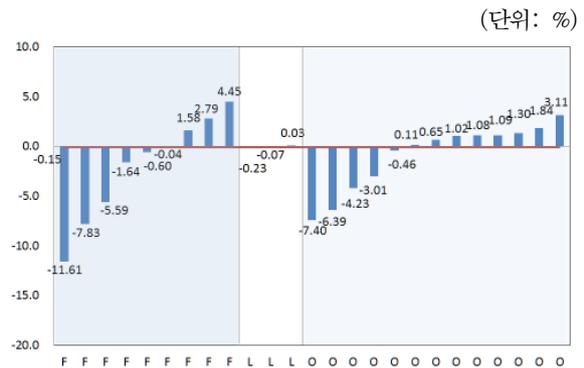
〈자본이익률〉

- 2015년 4/4분기 생명보험산업⁸⁾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42%p 하락한 -0.15%를 기록함.
- 대형사와 외국사의 자본이익률은 당기순손실 시현의 영향으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0.36%p, 1.55%p 하락한 -0.09%, -1.99%를 기록함.
- 중·소형사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상승함에 따라 자본이익률도 전년동기대비 0.09%p 상승한 0.72%를 나타냄.
- 2015년 연간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전년대비 0.09%p 하락한 5.83%를 나타냄.
 - 이는 당기순이익과 자본이 모두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자본 증가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기 때문임.

〈그림 3〉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



〈그림 4〉 회사별 자본이익률^{1),2)}



주: 1) F, L, O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를 의미함.

2) 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생명보험 산업수준의 자본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7)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본이익률은 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R_t / E_t^o)을 의미하며, 분석 대상은 25개 생명보험회사임.

8) 2015년 회계연도부터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방카사로 분류되었던 회사 분류를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로 분류하여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과거 통계치도 동일하게 수정함.

〈표 14〉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¹⁾

(단위: %)

구분	2014				2015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대형사	2.08	1.75	0.27	5.94	2.10	2.17	1.38	-0.09	5.73
중·소형사	1.52	1.90	0.63	5.36	2.08	2.28	1.22	0.72	5.81
외국사	2.70	3.18	-0.44	6.99	1.98	4.02	2.01	-1.99	6.31
전체	2.02	1.97	0.27	5.92	2.08	2.43	1.42	-0.15	5.83

주: 1) 자본이익률 =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기중자본 = ((전회계연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산이익률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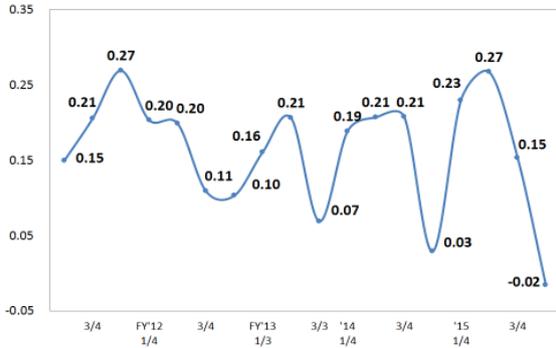
■ 2015년 4/4분기 생명보험산업 자산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05%p 하락한 -0.02%를 기록함.

- 대형사와 외국사의 경우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자산이익률이 각각 -0.01%, -0.26%를 나타냄.
- 중·소형사 자산이익률은 당기순이익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0.01%p 상승한 0.06%를 기록함.
- 2015년 연간 생명보험산업 자산이익률은 전년과 동일한 0.62%를 기록함.
 - 대형사와 외국사 자산이익률은 전년대비 하락하였으나, 중소형사 자산이익률은 전년대비 상승함.

9)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산이익률은 기중자산(특별계정자산 제외)대비 당기순이익(R_t / E_t^o)을 의미하며, 분석대상은 25개 생명보험회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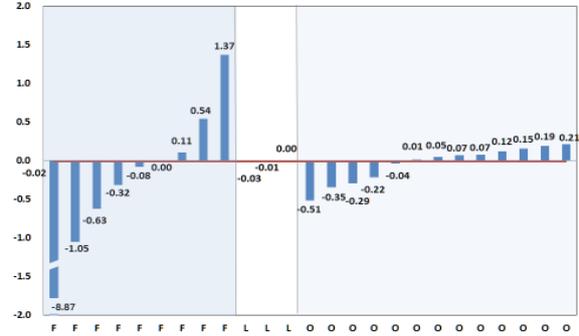
〈그림 5〉 생명보험산업 자산이익률

(단위: %)



〈그림 6〉 회사별 자산이익률^{1),2)}

(단위: %)



주: 1) F, L, O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를 의미함.

2) 회사별 자산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생명보험 산업수준의 자산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표 15〉 생명보험산업 자산이익률¹⁾

(단위: %)

구분	2014				2015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대형사	0.23	0.20	0.03	0.67	0.25	0.26	0.16	-0.01	0.66
중·소형사	0.12	0.15	0.05	0.43	0.17	0.19	0.10	0.06	0.48
외국사	0.36	0.44	-0.06	0.95	0.28	0.57	0.28	-0.26	0.80
전체	0.21	0.21	0.03	0.62	0.23	0.27	0.15	-0.02	0.62

주: 1) 자산이익률 = 당기순이익 / 기중자산, 기중자산(특별계정자산 제외) = ((전회계연도 말 자산 + 당기 말 자산) / 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3. 손해보험

- 2015년 4/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2.2% 증가한 22조 8,261억 원을 기록함.
 - 손해율과 사업비율은 각각 82.9%, 20.6%를 나타냄에 따라 합산비율은 전년동기 대비 1.7%p 개선된 103.4%를 시현함.
 - 2015년 4/4분기 손해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30.6% 증가한 4,038억 원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총자산은 2.8% 증가한 225조 9,351억 원을 나타냄.
 - 한편 자본이익률과 자산이익률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0.08%p, 0.01%p 하락한 0.82%와 0.10%를 기록함.

- 2015년 연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4.8% 증가한 80조 2,473억 원을 기록함.
 - 연간 손해보험 손해율과 사업비율은 각각 83.1%, 19.5%를 나타냄에 따라 합산비율은 전년대비 0.3%p 증가한 102.7%를 나타냄.
 - 2015년 연간 손해보험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보험영업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15.6% 증가한 2조 7천억 원의 흑자를 기록함.
 - 연간 자본이익률은 전년대비 0.03%p 증가한 8.72%, 자산이익률은 전년과 유사한 0.98%를 기록함.

- 2015년 손해보험산업은 보험료 성장세는 둔화된 모습을 보였지만 전년대비 당기순이익의 두 자릿수 증가를 달성하였고, 규모대비 수익성의 개선을 이룬 것으로 나타남.
 - 보험영업은 지속적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나 투자영업이익이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냄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가. 원수보험료¹⁰⁾

〈손해보험 개요〉

1) 종목별 원수보험료

■ 2015년 4/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2.2% 증가한 22조 8,261억 원을 기록함.

-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4.2%, 13.7% 증가한 11조 7,116억 원과 3조 9,992억 원을 시현함.
- 연금부문과 일반손해보험의 경우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8.5%, 0.2% 감소한 5조 41억 원과 2조 1,098억 원을 기록함.
- 2015년 연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4.8% 증가한 80조 2,473억 원을 시현함.
 - 퇴직연금의 0.9%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체 원수보험료 기준 76.7%를 차지하는 장기 손해보험, 자동차보험이 각각 전년대비 4.9%, 10.7% 증가한데에 기인함.

〈표 16〉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단위: 조 원, %)

구분	2014			2015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전체	보험료	17.9	22.3	76.6	19.3	19.2	18.9	22.8	80.2
	증가율	4.6	15.9	8.3	5.5	6.6	5.5	2.2	4.8
장기손보	보험료	11.1	11.2	44.4	11.6	11.6	11.7	11.7	46.6
	증가율	4.9	5.9	6.1	5.1	5.6	4.8	4.2	4.9
연금부문 ²⁾	보험료	1.4	5.5	10.5	2.0	1.8	1.6	5.0	10.4
	증가율	9.9	65.7	34.2	4.0	10.5	8.6	-8.5	-0.9
자동차	보험료	3.4	3.5	13.5	3.5	3.7	3.7	4.0	15.0
	증가율	6.4	6.9	5.2	9.0	10.7	9.0	13.7	10.7
일반손해	보험료	1.9	2.1	8.1	2.1	2.1	1.9	2.1	8.3
	증가율	-3.5	1.9	-0.3	3.9	2.5	1.0	-0.2	1.8

주: 1) 연금부문은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 실적을 포함함.

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0) 원수보험료(direct premiums written)라 함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을 통해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아들인 보험료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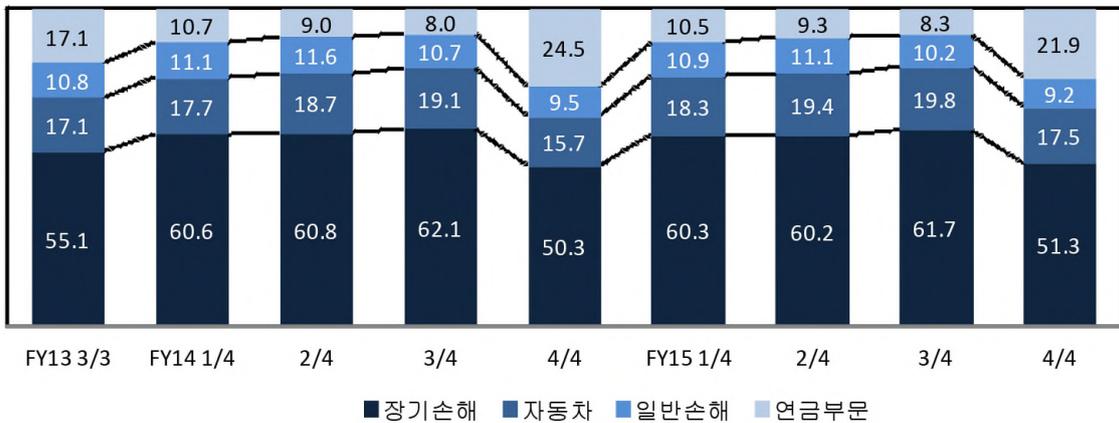
2) 종목별 원수보험료 구성비 추이

■ 2015년 4/4분기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으나 연금부문과 일반손해보험 비중은 감소함.

○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은 분기별 규모가 큰 차이 없지만, 연금부문 중 퇴직연금이 4/4분기에 집중되는 성향 때문에 상대적으로 4/4분기의 비중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7〉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구성비

(단위: %)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5년 4/4분기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을 보면, 상위 4개사의 시장점유율이 국내 중·소형사로 이동함에 따라, 허핀달 지수는 전년동기대비 0.0131 감소한 0.1410를 나타냄.

○ 상위 4사¹¹⁾는 전년동기대비 1.6%p 감소한 69.6%를 기록하였고, 국내 중·소형사는 1.6%p 증가한 26.8%를 나타냄.

○ 전업사와 외국사는 전년동기와 동일한 1.8%를 각각 기록함.

○ 보험종목별로 허핀달 지수를 살펴보면, 일반손해보험과 장기손해보험 및 퇴직연금의 수치는 감소한 반면, 자동차보험과 개인연금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11)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4개 손해보험회사를 의미함.

- 특히, 퇴직연금의 허핀달 지수는 0.0603나 감소하였는데, 이는 일부 대형 보험그룹의 퇴직연금 실적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2015년 연간으로는 전업사와 외국사 변동없이 상위 4개사의 시장점유율 0.6%가 국내 중·소형사로 이동함에 따라, 허핀달 지수는 전년동기대비 0.0051 감소한 0.1395를 기록함.

- 2015년 연간 보험종목별 허핀달 지수의 경우 일반손해보험과 장기손해보험 및 퇴직연금의 수치는 감소한 반면, 자동차보험과 개인연금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17〉 손해보험산업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¹⁾

(단위: %)

구분	2014			2015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상위 4사 ²⁾	69.4	71.2	69.5	67.7	68.7	69.5	69.6	68.9	
국내 중·소형사 ²⁾	26.3	25.2	26.5	28.2	26.9	26.3	26.8	27.1	
전업사 ³⁾	2.0	1.8	2.0	2.0	2.1	2.0	1.8	2.0	
외국사 ³⁾	2.3	1.8	2.1	2.1	2.3	2.2	1.8	2.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허핀달 지수 ⁴⁾	전체	0.1435	0.1541	0.1446	0.1378	0.1387	0.1425	0.1410	0.1395
	일반손해보험	0.1360	0.1289	0.1230	0.1186	0.1178	0.1274	0.1224	0.1186
	자동차보험	0.1604	0.1617	0.1607	0.1582	0.1613	0.1725	0.1758	0.1668
	장기손해보험	0.1390	0.1380	0.1387	0.1372	0.1377	0.1376	0.1372	0.1374
	개인연금	0.3232	0.3251	0.3210	0.3246	0.3241	0.3278	0.3267	0.3258
	퇴직연금	0.2738	0.2747	0.2713	0.3140	0.2337	0.2435	0.2144	0.2163

주: 1) 원수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을 의미하며,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I, II를 모두 포함함.

2) 상위 4사는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4개 회사, 국내 중·소형사는 국내 온라인사를 포함한 8개 회사를 의미함.

3) 전업사는 보증보험사, 국내·외 재보험사 및 외국계 단종보험회사를 포함함.

4) 허핀달 지수는 각 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이면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원수보험료 현황〉

1) 장기손해보험

■ 2015년 4/4분기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저축성보험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영역이 높은 증가율을 시현해 전년동기대비 4.2% 증가한 11조 7,116억 원을 기록함.

- 장기저축성보험은 전년동기대비 15.1% 감소하였으며, 신규판매 부진으로 2014년 1/4분기를 제외하고는 2012년 4/4분기 이후 연속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함.
- 장기상해보험과 장기질병보험의 경우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 4/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11.8%, 16.5% 증가함.
- 장기운전자보험과 장기재물보험의 경우도 전년동기대비 각각 6.8%, 7.0% 증가함.
- 2015년 전체 장기손해보험은 장기저축성보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장기상해보험과 장기질병보험 등의 증가세에 힘입어 전년대비 4.9% 증가한 46조 5,801억 원을 기록함.

■ 2015년 4/4분기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의 경우 저금리 추세의 장기화 예상으로 장기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9.3% 줄어든 4,612억 원을 기록함.

- 장기저축성보험은 전년동기대비 28.8% 감소함.
- 장기상해보험과 장기질병보험은 전년동기대비 소폭 상승(각각 6.5%, 5.1%)하는 데 그침.
- 연간으로 보면 전년대비 14.2% 감소한 2조 1,585억 원을 기록함.
 - 전체 초회보험료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장기저축성보험이 20.3% 감소한 데 비해, 장기상해보험과 장기질병보험은 각각 1.8%, 6.5% 증가하는 데 그침.

〈표 18〉 장기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¹⁾

(단위: 억 원, %)

구분			2014			2015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원수 보험료	상해	보험료	29,999	30,946	118,365	31,889	32,644	33,435	34,587	132,555
		증가율	11.4	12.1	10.8	12.7	12.1	11.5	11.8	12.0
	운전자	보험료	6,624	6,787	26,235	6,919	7,020	7,141	7,247	28,327
		증가율	6.3	7.6	5.7	8.3	9.0	7.8	6.8	8.0
	재물	보험료	9,380	9,494	37,476	9,692	9,929	10,025	10,161	39,808
		증가율	-0.4	1.8	0.0	4.7	6.3	6.9	7.0	6.2
	질병	보험료	24,181	25,062	94,868	26,055	27,174	28,177	29,201	110,607

구분		2014			2015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저축성	증가율	18.1	17.0	18.9	16.4	16.9	16.5	16.5	16.6
		보험료	28,642	27,718	117,617	29,513	26,345	25,259	23,533	104,650
	통합형	증가율	-6.6	-5.3	-2.4	-8.5	-9.1	-11.8	-15.1	-11.0
		보험료	12,378	12,370	49,321	12,410	12,512	12,484	12,402	49,808
	자산 연계형	증가율	0.9	1.2	0.7	1.6	1.2	0.9	0.3	1.0
		보험료	37	35	154	22	24	32	-16	46
	소계	증가율	-26.5	-20.8	-31.6	-47.8	-37.5	-14.6	-146.5	-70.4
		보험료	111,241	112,412	444,037	116,499	115,648	116,554	117,116	465,801
		증가율	4.9	5.9	6.1	5.1	5.6	4.8	4.2	4.9
		보험료	638	724	2,589	683	548	635	771	2,637
상해	증가율	32.4	26.1	7.3	13.9	-12.7	-0.6	6.5	1.8	
	보험료	188	155	579	134	136	164	135	570	
운전자	증가율	36.0	24.6	19.9	16.6	13.1	-12.9	-12.5	-1.5	
	보험료	254	273	1,008	318	307	268	292	1,185	
재물	증가율	1.4	17.6	-7.9	41.1	20.3	5.5	6.8	17.6	
	보험료	557	617	2,318	607	587	627	649	2,469	
질병	증가율	-5.1	5.6	0.7	-2.1	12.1	12.5	5.1	6.5	
	보험료	4,251	3,870	18,379	4,883	3,474	3,544	2,757	14,657	
저축성	증가율	5.4	27.5	11.7	-17.9	-19.4	-16.6	-28.8	-20.3	
	보험료	59	74	275	30	17	12	9	68	
통합형	증가율	-22.1	-2.4	-38.5	-65.3	-69.7	-79.0	-88.3	-75.3	
	보험료	0	0	0	0	0	0	0	0	
자산 연계형	증가율	-	-	-	-	-	-	-	-	
	보험료	5,948	5,713	25,148	6,654	5,070	5,249	4,612	21,585	
소계	증가율	6.8	23.5	8.4	-12.4	-14.0	-11.7	-19.3	-14.2	
	보험료	29,360	30,223	115,776	31,206	32,096	32,801	33,816	129,919	
상해	증가율	11.0	11.8	10.9	12.6	12.7	11.7	11.9	12.2	
	보험료	6,436	6,632	25,656	6,784	6,883	6,977	7,112	27,757	
운전자	증가율	5.6	7.3	5.4	8.2	9.0	8.4	7.2	8.2	
	보험료	9,126	9,221	36,468	9,374	9,622	9,758	9,869	38,623	
재물	증가율	-0.4	1.4	0.3	3.8	5.9	6.9	7.0	5.9	
	보험료	23,624	24,445	92,550	25,448	26,587	27,550	28,553	108,138	
질병	증가율	18.7	17.3	19.5	16.9	17.0	16.6	16.8	16.8	
	보험료	24,391	23,847	99,238	24,630	22,872	21,716	20,776	89,993	
저축성	증가율	-8.5	-9.1	-4.7	-6.4	-7.3	-11.0	-12.9	-9.3	
	보험료	12,319	12,296	49,047	12,380	12,495	12,472	12,394	49,740	
통합형	증가율	1.1	1.3	1.1	2.1	1.6	1.2	0.8	1.4	
	보험료	37	35	154	22	24	32	-16	46	
자산 연계형	증가율	-26.6	-20.8	-31.6	-47.8	-37.5	-14.6	-146.5	-70.4	
	보험료	105,293	106,699	418,889	109,845	110,579	111,305	112,503	444,215	
소계	증가율	4.8	5.1	5.9	6.4	6.7	5.7	5.4	6.0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5년 4/4분기 장기손해보험 누적 해지율의 경우 장기저축성보험은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으나 보장성의 해지율 증가로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0.4%p 상승한 10.3%를 기록함.
- 장기상해보험, 장기질병보험, 장기운전자보험 및 장기재물보험 해지율은 효력상실액 및 해지액 증가율¹²⁾이 보유계약액 및 신계약액 증가율¹³⁾보다 더 크게 나타나 상승함.
- 장기저축성보험 해지율은 보유계약액 및 신계약액이 전년동기대비 소폭 증가(4.8%)하였으나, 효력상실액 및 해지액이 감소(-1.8%)하여 0.6%p 하락한 9.0%를 기록함.

〈표 19〉 장기손해보험 해지율^{1,2)}

(단위: %)

구분	2014			2015			
	2/4	3/4	4/4	1/4	2/4	3/4	4/4
상해	6.0	8.5	10.5	3.3	6.2	8.7	10.7
운전자	5.9	8.1	9.6	3.1	5.7	8.0	10.0
재물	7.4	10.3	12.6	3.9	7.3	10.3	13.1
질병	4.9	6.9	8.1	2.5	4.8	6.8	8.6
저축성	5.3	7.7	9.6	2.6	4.9	6.9	9.0
통합형	4.5	6.5	8.0	2.0	3.9	5.7	7.2
계	5.7	8.1	9.9	3.0	5.8	8.2	10.3

주: 1)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보유계약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2) 기간별 수치는 누계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연금부문(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 2015년 4/4분기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8.5% 감소한 5조 41억 원을 기록함.
- 개인연금은 2013년 이후 9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4/4분기는 전년동기대비 1.5% 줄어든 1조 137억 원을 기록함.
-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추가¹⁴⁾로 인해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대비 10.1% 감소한 3조 9,905억 원을 기록함.
 - 일부 대형 보험그룹의 계열사 매각으로 인한 퇴직연금의 타 부문(은행 등) 이전, 계열

12) 상해 25.8%, 질병 26.9%, 운전자 30.9%, 재물 51.0%.
 13) 상해 24.0%, 질병 19.4%, 운전자 25.5%, 재물 44.2%.
 14) 2014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5년 1월 1일 이후 퇴직연금 납입분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300만 원 한도)가 가능해짐.

사 구조조정 및 임금 인하로 인한 퇴직연금액 감소 등이 원인일 것으로 판단됨.

- 2015년 전체 연금부문 원수보험료의 경우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모두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0.9% 감소한 10조 3,865억 원으로 나타남.

〈표 20〉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1),2)}

(단위: 억 원, %)

구분	2014			2015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개인 연금	보험료	10,200	10,295	41,090.3	10,066	10,015	9,994	10,137	40,211
	증가율	-3.5	-3.2	-3.2	-2.7	-2.3	-2.0	-1.5	-2.1
	구성비	70.9	18.8	39.2	49.5	56.1	63.9	20.3	38.7
퇴직 연금	보험료	4,195	44,408	63,718	10,270	7,840	5,639	39,905	63,653
	증가율	66.0	98.5	78.9	11.5	32.8	34.4	-10.1	-0.1
	구성비	29.1	81.2	60.8	50.5	43.9	36.1	79.7	61.3
합계	보험료	14,395	54,703	104,808	20,336	17,855	15,633	50,041	103,865
	증가율	9.9	65.7	34.2	4.0	10.5	8.6	-8.5	-0.9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구성비는 연금부문 합계 중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자동차보험

■ 2015년 4/4분기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요율 인상과 물담보 보장 확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3.7% 증가한 3조 9,992억 원을 기록함.

- 대인배상 I 은 2.7% 감소한 7,589억 원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온라인 자동차보험 가입 확대¹⁵⁾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부상급항 변경)에 따른 요율 하향 조정 등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됨.

- 종합보험은 최근 요율 인상과 외산차 가입증가·대물 가입금액 고액화·자차담보 가입 증가 등으로 인한 물담보 보장확대 수요 증가¹⁶⁾로 18.8% 늘어난 3조 466억 원을 나

15) 자동차보험의 온라인 가입대수는 2013년 34.6%에서 2014년 35.6%, 2015년 37.2%로 증가함(보험개발원 보도자료(2016. 4. 7), “2015년 자동차보험 할인형상품·물담보 보장확대 수요 증가”).

16) 외산차의 개인용 보험가입대수는 전년대비 26.1%, 2억 원 이상 대물배상 가입자는 전년대비 16.2%, 자기차량담보 가입률은 전년대비 1.8%p 각각 증가하였음(보험개발원, 전계서).

타냄.

- 2015년 연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전년대비 10.7% 증가한 14조 9,914억 원을 시현함.
- 온라인 개인용자동차보험 가입률 증가와 마일리지 및 블랙박스 특약 가입 증가¹⁷⁾ 등의 보험료 감소 요인보다 요율 인상과 물담보 보장 확대 등의 보험료 증가 요인의 영향이 컸음.

〈표 21〉 자동차보험 담보별 원수보험료¹⁾

(단위: 억 원, %)

구분	2014			2015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대인 I	7,896 (0.6)	7,798 (-1.5)	31,149 (-1.2)	7,495 (-1.5)	7,503 (-4.4)	7,269 (-7.9)	7,589 (-2.7)	29,855 (-4.2)	
종합 보험	대인 II	3,431 (4.9)	3,614 (6.5)	13,681 (4.0)	3,630 (11.0)	3,998 (18.8)	4,125 (20.2)	4,538 (25.6)	16,292 (19.1)
	대물	11,869 (8.3)	12,414 (9.4)	46,877 (7.6)	12,314 (11.8)	13,012 (12.3)	13,217 (11.4)	14,423 (16.2)	52,966 (13.0)
	자차	7,749 (8.1)	7,973 (10.6)	30,857 (7.0)	8,479 (13.0)	9,062 (18.8)	9,072 (17.1)	9,648 (21.0)	36,261 (17.5)
	자손	1,345 (12.9)	1,407 (10.2)	5,248 (10.3)	1,383 (13.4)	1,446 (13.4)	1,464 (8.8)	1,583 (12.5)	5,877 (12.0)
	무보험	233 (0.0)	235 (1.3)	912 (-1.2)	231 (5.3)	250 (11.3)	253 (8.5)	273 (16.3)	1,007 (10.4)
	소계	24,627 (7.9)	25,644 (9.3)	97,575 (6.9)	26,037 (12.1)	27,768 (15.3)	28,131 (14.2)	30,466 (18.8)	112,402 (15.2)
외화표시	23 (-0.6)	42 (23.7)	114 (-1.2)	33 (61.1)	36 (25.4)	28 (22.1)	2 (-96.2)	99 (-13.5)	
기타 ²⁾	1,713 (14.4)	1,700 (13.8)	6,646 (11.9)	1,733 (13.6)	1,962 (14.8)	1,927 (12.5)	1,937 (13.9)	7,558 (13.7)	
합계	34,259 (6.4)	35,183 (6.9)	135,484 (5.2)	35,298 (9.0)	37,269 (10.7)	37,355 (9.0)	39,992 (13.7)	149,914 (10.7)	

주: 1)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이륜자동차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5년 4/4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년동기에 비해 3.7%p 하락한 92.2%를 나타냄.

○ 대인배상 I 은 전년동기대비 사고율의 변동폭은 작으나 경과보험료¹⁸⁾ 감소세의 영향

17) 마일리지상품 가입자는 412만 명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하였으며, 블랙박스특약 가입자는 532만 명으로 전년대비 30.8% 증가함(보험개발원, 전계서).

18)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의 책임기간인 보험연도와 보험회사의 사업연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험연도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일부는 당해 사업연도로 귀속되고 나머지는 차기 사업연도로 넘어감. 여기서 이미 경과된 기간(보험회사의 책임이 경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경과보

을 받아 8.0%p 상승한 85.3%를 기록함.

- 종합보험은 자동차보험 요율 인상 등으로 경과보험료가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면서 6.4%p 하락한 95.1%를 나타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함.
- 2015년 연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10.7%의 원수보험료 증가세에 힘입어 전년대비 0.8%p 감소한 87.7%를 시현함.
 - 대인배상Ⅱ의 경우는 최근 한방병원의 진료비 증가¹⁹⁾ 등 지급액 증가의 영향으로 19.1%의 원수보험료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9.0%p 상승한 142.7%를 기록함.

〈표 22〉 자동차보험 담보별 손해율¹⁾

(단위: %)

구분	2014			2015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대인 I	68.6	77.3	70.3	65.9	69.5	74.3	85.3	73.7	
종합보험	대인 II	137.4	146.6	133.7	144.2	135.3	142.9	148.0	142.7
	대물	92.3	97.3	90.8	86.4	88.4	90.9	93.9	90.0
	자차	89.1	92.2	87.2	82.3	77.8	76.0	78.0	78.5
	자손	69.5	78.7	72.5	72.5	62.0	59.8	66.2	65.0
	무보험	77.8	69.0	88.4	104.1	94.1	71.1	84.0	88.0
	소계	96.4	101.5	94.8	92.7	90.4	91.7	95.1	92.5
외화표시	72.3	70.5	76.0	74.8	66.2	74.4	93.4	76.9	
기타 ²⁾	83.8	93.2	81.7	74.5	71.4	79.8	83.6	77.5	
합계	89.3	95.5	88.5	85.6	84.8	87.7	92.2	87.7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 기간에 대한 손해율이며, 손해율은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임.

2)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이륜자동차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4) 일반손해보험

■ 2015년 4/4분기 원수보험료의 경우 19.7%와 62.0%를 차지하고 있는 보증보험과 특종보험의

보험료(earned premium)라고 함.

19) 한방병원과 한방의원의 진료비는 2014년대비 각각 39.8%, 29.7% 증가한 1,100억 원과 2,479억 원을 기록함(연합뉴스(2016. 4. 4), “교통사고 한방진료 늘었다…작년 20% 성장”).

-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0.2% 감소한 2조 1,098억 원을 기록함.
- 화재보험은 전년동기대비 1.3% 줄어든 893억 원을 나타냄.
 - 해상보험은 전체적으로 15.1% 줄어든 1,554억 원을 기록함.²⁰⁾
 - 보증보험은 건설투자 확대²¹⁾ 등의 영향으로 2.5% 증가한 4,150억 원을 나타냄.
 - 특종보험은 상해보험²²⁾과 책임보험²³⁾이 증가하였으나 종합보험이 큰 폭의 감소세²⁴⁾를 보여 전년동기대비 2.3% 증가한 1조 3,088억 원을 기록함.
 - 2015년 일반손해보험 전체 원수보험료의 경우 전년대비 1.8% 증가한 8조 2,879억 원을 기록함.
 - 화재보험, 해상보험 및 해외원보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보증보험과 특종보험의 증가에 기인함.

〈표 23〉 일반손해보험¹⁾ 종목별 원수보험료²⁾

(단위: 억 원, %)

구분	2014			2015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화재	보험료	703	905	3,106	728	736	683	893	3,041
	증가율	-4.3	-1.9	-3.6	-4.0	-0.4	-2.8	-1.3	-2.1
	구성비	3.7	4.3	3.8	3.5	3.4	3.5	4.2	3.7
해상	보험료	1,839	1,830	7,343	1,880	1,837	1,820	1,554	7,091
	증가율	-18.5	11.7	-2.2	7.6	-4.7	-1.0	-15.1	-3.4
	구성비	9.6	8.7	9.0	8.9	8.6	9.4	7.4	8.6
보증	보험료	3,611	4,048	15,152	3,898	4,054	3,713	4,150	15,816
	증가율	4.3	1.8	-0.6	1.5	11.0	2.8	2.5	4.4
	구성비	18.9	19.2	18.6	18.5	18.9	19.2	19.7	19.1
특종	보험료	11,533	12,793	49,991	13,347	13,651	11,536	13,088	51,622
	증가율	-1.2	2.9	1.2	6.2	4.2	0.0	2.3	3.3
	구성비	60.3	60.5	61.4	63.3	63.8	59.7	62.0	62.3
해외 원보험	보험료	1,442	1,559	5,832	1,217	1,122	1,557	1,413	5,309
	증가율	-14.6	-11.5	-6.8	-11.5	-22.9	8.0	-9.3	-9.0
	구성비	7.5	7.4	7.2	5.8	5.2	8.1	6.7	6.4
합계	보험료	19,128	21,135	81,424	21,071	21,401	19,309	21,098	82,879
	증가율	-3.5	1.9	-0.3	3.9	2.5	1.0	-0.2	1.8

주: 1) 부수사업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은 권원보험 원수보험료를 포함함.

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 해상보험의 주된 종목인 적하보험과 선박보험이 각각 16.6%, 4.6% 감소한 데에 기인함.
- 21) 건설투자(전년동기대비): 2015년 1/4분기 0.6% → 2015년 2/4분기 1.6% → 2015년 3/4분기 5.7%
- 22) 상해보험 원수보험료의 단체상해보험과 여행자보험이 각각 5.6%, 19.0% 증가하였으나, 일반상해가 5.2%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전년동기대비 2.7% 증가함.
- 23) 책임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과 전문직업인책임보험이 각각 10.5%, 4.0% 감소하였으나, 일반배상책임보험이 12.6% 증가한 데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2.5% 증가함.
- 24) 종합보험 원수보험료는 주된 종목인 기업성 보험이 12.6%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12.0% 감소함.

나. 손해율과 사업비율

- 2015년 4/4분기 전체 손해보험 손해율은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 손해율 하락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2.7%p 하락한 82.9%를 기록함.
- 2015년 4/4분기 전체 손해보험 발생손해액과 경과보험료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1.5%, 4.9% 증가함.
- 장기손해보험은 전년동기대비 발생손해액 증가율(2.1%)이 경과보험료 증가율(4.1%)을 하회함에 따라 1.6%p 하락한 84.5%를 나타냄.
- 자동차보험은 전년동기대비 경과보험료가 크게 증가(8.8%)하면서 3.3%p 하락한 92.2%를 기록하였으나 계절성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수준임.
- 2015년 연간 손해보험 손해율은 보험료 구성비가 미미한 해상보험과 해외원보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손해율이 좋아져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0.3%p 하락한 83.1%를 시현함.
 - 2015년 손해보험 연간 발생손해액은 전년대비 4.7% 증가하였으나, 경과보험료 또한 5.0% 증가함에 따라 손해율이 하락함.

〈표 24〉 손해보험 손해율, 사업비율 및 합산비율¹⁾

(단위: %)

구분	2014			2015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손해율	장기손해보험 ²⁾	85.2	86.1	85.2	86.0	84.5	84.1	84.5	84.8
	자동차보험	89.3	95.5	88.5	85.6	84.8	87.7	92.2	87.7
	일반손해보험	67.8	67.3	65.1	65.5	65.3	74.8	58.2	65.9
	화재보험	53.4	45.4	55.4	66.6	43.5	57.7	32.3	49.8
	해상보험	44.3	85.4	59.8	55.1	70.1	94.3	69.8	73.1
	보증보험	70.8	41.6	47.9	81.5	50.3	54.3	26.9	52.9
	특종보험	67.7	66.5	68.5	65.1	67.1	70.3	65.5	67.0
	해외원보험	98.1	124.7	94.8	84.2	135.0	235.2	15.5	114.7
	해외수재보험	67.1	83.2	66.3	50.2	61.7	76.1	72.7	65.7
전체	83.9	85.6	83.4	83.6	82.3	83.7	82.9	83.1	
사업비율	18.8	19.4	19.0	19.6	18.9	19.1	20.6	19.5	
합산비율	102.7	105.1	102.4	103.2	101.1	102.8	103.4	102.7	

주: 1) 손해율(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사업비율(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그리고 합산비율(손해율 + 사업비율)은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 수치이며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여기서 순사업비는 지급경비(급여와 임금, 손해조사비, 모집비, 수급비 등)에서 수입경비(출재보험 수수료, 출재이익 수수료 등)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

2) 장기손해보험 손해율은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을 고려한 재무손해율임.

3) 재보험회사의 발생손해액 환급을 일부 제외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5년 4/4분기 전체 손해보험 사업비율은 전년동기대비 1.2%p 증가한 20.6%를 나타냄.
 - 자동차보험의 사업비율이 전년동기대비 소폭 감소하였고, 일반손해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사업비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함.²⁵⁾
 - 2015년 연간 사업비율은 전년대비 0.5%p 증가²⁶⁾한 19.5%를 기록함.
- 2015년 4/4분기 합산비율은 손해율이 전년동기대비 2.7%p 감소하고, 사업비율이 1.2%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1.7%p 개선된 103.4%를 기록함.
 - 2015년 연간 합산비율의 경우 전년대비 사업비율의 상승폭(0.5%p)이 손해율 하락폭(0.3%p)보다 커 합산비율은 0.3%p 증가한 102.7%를 나타냄.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 2015년 4/4분기 임직원 채널 원수보험료 비중은 전년동기보다 축소되었으나, 설계사 채널 비중은 동일하고 대리점 채널 비중은 확대됨.
 - 임직원 채널은 전년동기대비 2.5%p 축소된 25.8%, 설계사 채널은 전년동기와 동일한 24.2%, 대리점 채널은 2.7%p 확대된 39.7%를 기록함.
 - 연간 모집 형태별 원수보험료의 비중은 대리점 채널(42.5%), 설계사(27.1%), 임직원(18.0%), 방카슈랑스(11.2%) 순으로 나타남.

〈표 25〉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¹⁾

(단위: 억 원, %)

구분	2014			2015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임직원	24,529	63,198	139,845	30,640	28,715	26,378	58,880	144,615
	13.7	28.3	18.3	15.9	14.9	14.0	25.8	18.0
설계사 ²⁾	48,191	54,038	213,341	53,503	55,140	53,786	55,187	217,618
	26.9	24.2	27.9	27.7	28.7	28.4	24.2	27.1

25) 자동차보험의 사업비율은 전년동기대비 0.2%p 하락한 19.2%, 일반손해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사업비율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4%p, 1.6%p 상승한 25.6%, 20.1%를 기록함.
 26) 자동차보험은 전년대비 0.5%p 감소하였으나, 일반손해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사업비율이 전년대비 각각 2.4%p, 0.5%p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0.5%p 증가함.

구분	2014			2015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대리점	83,329	82,712	315,326	82,251	84,084	84,320	90,725	341,381
	46.5	37.0	41.2	42.6	43.8	44.6	39.7	42.5
중개사	1,590	1,765	6,176	1,397	1,921	1,446	1,828	6,591
	0.9	0.8	0.8	0.7	1.0	0.8	0.8	0.8
방카슈랑스	21,148	21,313	90,030	25,096	21,790	22,405	20,897	90,189
	11.8	9.5	11.8	13.0	11.3	11.9	9.2	11.2
공동인수	236	407	1,036	316	509	496	773	2,095
	0.1	0.2	0.1	0.2	0.3	0.3	0.3	0.3
전체	179,023	223,433	765,754	193,204	192,160	188,832	228,291	802,4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을 모두 포함하는 분기 기준 원수보험료 실적이며, 각 하단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2) 설계사는 교차모집설계사의 실적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규모〉

■ 2015년 4/4분기 말 임직원과 대리점 수는 전분기대비 감소한 반면, 설계사 수는 증가함.

- 임직원 수는 전분기대비 336명 감소한 3만 2,343명을 기록함.
- 전체 설계사 수는 전분기대비 826명 늘어난 15만 6,596명을 나타냈는데, 전속설계사 수는 증가한 반면 교차설계사 수는 감소함.
- 전체 대리점 수는 개인대리점 수와 법인대리점 수가 모두 줄어들어 전분기대비 997개 감소한 3만 850개를 나타냄.

〈표 26〉 손해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분	2014			2015			
	2/4	3/4	4/4	1/4	2/4	3/4	4/4
임직원	33,286	33,256	33,047	33,298	32,750	32,679	32,343
설계사	157,335	156,958	156,662	156,052	155,854	155,770	156,596
- 전속	83,630	82,504	82,299	81,073	80,400	80,269	81,148
- 교차	73,705	74,454	74,363	74,979	75,454	75,501	75,448
대리점	33,586	33,170	32,995	32,475	32,511	31,847	30,850
- 개인	22,632	22,349	22,057	21,717	21,559	21,264	20,884
- 법인	10,954	10,821	10,938	10,758	10,952	10,583	9,966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재무성과²⁷⁾

〈총수익 · 총비용〉

■ 2015년 4/4분기 전체 손해보험산업 당기순이익(A)은 보험영업 적자규모 축소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30.6% 증가한 4,038억 원 흑자를 기록함.

〈표 27〉 손해보험산업 총수익 및 총비용¹⁾

(단위: 십억 원, %)

구분	2014			2015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총수익	보험영업	17,150	17,489	68,397	17,579	17,740	17,941	18,301	71,562
	투자영업	1,523	2,251	7,532	2,174	2,213	3,013	1,640	9,040
	기타	161	1,247	2,015	516	419	382	1,424	2,741
	소계	18,835	20,988	77,944	20,270	20,372	21,336	21,365	83,343
총비용	보험영업	17,831	18,602	70,908	18,359	18,201	18,642	19,195	74,397
	투자영업	39	724	1,790	449	610	1,485	150	2,693
	기타	202	1,270	2,180	395	441	406	1,445	2,687
	소계	18,071	20,595	74,878	19,203	19,252	20,533	20,789	79,777
수지차	보험영업	-680	-1,113	-2,512	-779	-461	-701	-894	-2,835
	투자영업	1,484	1,527	5,742	1,725	1,603	1,528	1,490	6,347
	기타	-40	-22	-164	121	-22	-24	-21	54
	소계	764	392	3,066	1,067	1,120	803	575	3,565
법인세	176	83	735	245	267	188	172	872	
당기순이익(A) ²⁾		587	309	2,330	822	853	615	404	2,694
		(-13.6)	(-17.2)	(20.2)	(43.9)	(-1.1)	(4.7)	(30.6)	(15.6)
당기순이익(B) ³⁾		451	185	1,661	611	627	484	189	1,910
		(5.9)	(-31.5)	(6.4)	(30.5)	(12.4)	(7.3)	(2.2)	(15.0)

주: 1) 기간별 수치는 특별계정을 제외한 실적이고, ()안은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이며, 2014년 4/4분기는 FY2013 3/3분기와 비교함.

2)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포함한 전체 손해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임.

3)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7개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7) 현대해상화재보험이 2015년 7월부로 현대하이카다이렉트를 흡수합병(자산부채양수도계약)함에 따라 손해보험회사 자본이익률과 자산이익률 분석대상을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7개 회사로 변경함.

- 보험영업 적자규모는 손해율의 소폭 개선으로 전년동기대비 2,189억 원 감소한 8,939억 원을 기록함.
- 투자영업 이익규모는 당기손익인식증권과 대출채권 이익 감소(〈표 28〉 참조)로 전년동기 대비 370억 원 감소한 1조 4,904억 원을 나타냄.
- 한편,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7개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B)은 전년동기대비 2.2% 증가한 1,889억 원의 흑자를 기록함.
- 2015년 연간으로는 보험영업이익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운용자산 확대에 따른 투자영업이익의 증가로 전년대비 15.6% 증가한 2조 7천억 원의 흑자를 기록함.

〈총부채 · 총자본〉

- 2015년 4/4분기 말 손해보험 총자산은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자산이 모두 늘어나 전분기대비 2.9% 증가한 225조 9,351억 원을 나타냄.
 - 일반계정 자산은 계속보험료 유입에 따라 전분기대비 2.3% 늘어난 212.5조 원을 기록하였으며, 특별계정 자산은 전분기대비 12.0% 증가한 13.4조 원을 나타냄.
- 2015년 4/4분기 손해보험산업 총부채는 전분기대비 3.3% 증가한 196조 6,403억 원을 나타냈으며, 총자본은 전분기대비 소폭 증가²⁸⁾한 29조 2,948억 원을 나타냄.
 - 총부채는 책임준비금과 특별계정 부채가 각각 전분기대비 2.4%, 17.9% 증가함.
 - 총자본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전분기대비 4.6% 감소하고,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 각각 전분기대비 2.0%, 8.1%, 1.9% 늘어남.

28) 손해보험산업 총자본은 2014년도 29조 2,857억 원에서 2015년도 29조 2,948억 원으로 증가함.

〈표 28〉 손해보험산업 부채 및 자본 현황¹⁾

(단위: 조 원, %)

구분		2014		2015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총자산	금액	200.3	200.3	207.9	212.3	219.6	225.9	225.9
	증가율	4.7	17.4	3.8	2.1	3.5	2.9	12.8
일반계정 자산	금액	191.1	191.1	196.2	200.6	207.6	212.5	212.5
	증가율	4.0	16.6	2.7	2.3	3.5	2.3	11.2
특별계정 자산	금액	9.2	9.2	11.7	11.7	12.0	13.4	13.4
	증가율	19.6	39.4	26.9	-0.1	2.9	12.0	46.1
부채 및 자본총계	금액	200.3	200.3	207.9	212.3	219.6	225.9	225.9
	증가율	4.7	17.4	3.8	2.1	3.5	2.9	12.8
총부채	금액	173.4	173.4	179.3	184.2	190.3	196.6	196.6
	증가율	4.9	17.1	3.4	2.7	3.4	3.3	13.4
책임준비금	금액	150.2	150.2	154.6	160.1	165.0	169.0	169.0
	증가율	3.0	15.2	2.9	3.6	3.1	2.4	12.5
기타부채	금액	12.0	12.0	13.3	12.4	13.5	13.3	13.3
	증가율	0.7	15.3	11.3	-6.4	8.7	-1.7	11.2
특별계정부채	금액	9.3	9.3	9.2	9.3	9.4	11.1	11.1
	증가율	21.9	25.3	-0.7	1.3	1.1	17.9	19.9
총자본	금액	26.9	26.9	28.6	28.1	29.3	29.3	29.3
	증가율	3.0	20.0	6.3	-1.5	4.1	0.0	9.0
자본금	금액	2.4	2.4	2.4	2.5	2.4	2.4	2.4
	증가율	1.8	3.3	2.8	2.8	-4.8	2.0	2.6
자본잉여금	금액	2.4	2.4	2.3	2.4	2.5	2.7	2.7
	증가율	3.1	13.7	-3.7	3.6	5.5	8.1	13.7
이익잉여금	금액	17.6	17.6	17.7	18.5	19.1	19.5	19.5
	증가율	1.9	12.3	0.7	4.6	3.2	1.9	10.8
자본조정	금액	-0.9	-0.9	-0.9	-1.0	-1.0	-1.3	-1.3
	증가율	19.3	-2.1	0.0	1.7	-0.2	33.9	35.9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금액	5.5	5.5	7.1	5.7	6.3	6.0	6.0
	증가율	9.6	65.2	28.7	-19.4	9.6	-4.6	8.5

주: 1) 분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연간 증가율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2) 총자산 및 증가율은 IFRS의 변경된 계정을 기준으로 계산한 실적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산운용〉

■ 2015년 4/4분기 손해보험산업 운용자산이익률은 대부분의 자산에서 운용수익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0.16%p 하락한 3.81%를 기록함.

○ 현금과 예금은 0.09%p 하락한 2.96%를 기록하였으며, 유가증권도 0.13%p 하락한 3.87%를 기록함.

- 당기손익인식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은 전년동기대비 하락한 반면, 매도가능증권은 0.05%p 상승한 4.22%를 기록함.

○ 대출채권은 0.39%p 하락한 4.22%를 나타냈으며, 부동산도 0.05%p 하락한 1.02%를 기록함.

〈그림 8〉 운용자산과 일반계정자산 이익률^{1),2)}



주: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일반계정자산이익률은 비운용자산까지 포함한 것임.

2)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손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손익) × 연기준환산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5년 4/4분기 운용자산 항목별 비중은 유가증권 55.79%, 대출채권 23.13%, 현금과 예금 4.27%, 부동산 3.06% 순으로 나타남.²⁹⁾

29) 일반계정자산은 운용자산과 비운용자산으로 구분되며, 해당 수치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 현금과 예금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0.45%p 감소하였으며, 유가증권 및 대출채권 비중은 각각 0.95%p, 1.22%p 증가하였고, 부동산 비중은 0.31%p 하락함.

〈표 29〉 손해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억 원)

구분	2014		2015							
	4/4		1/4		2/4		3/4		4/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일반계정자산	100.00	3.33	100.00	3.62	100.00	3.46	100.00	3.33	100.00	3.24
운용자산 계	84.84	3.97	85.10	4.24	85.14	4.08	85.53	3.99	86.25	3.81
현금과 예금	4.72	3.05	3.89	2.23	4.08	2.93	4.25	3.77	4.27	2.96
유가증권	54.84	4.00	56.32	4.56	55.82	4.26	55.86	4.06	55.79	3.87
○ 당기손익인식증권	3.83	3.56	4.18	4.54	3.62	3.54	3.82	2.38	3.60	2.00
- 주식	0.14	4.05	0.13	26.41	0.10	25.63	0.08	8.05	0.05	2.91
- 채권 등	2.08	4.35	1.87	5.65	1.88	2.98	1.85	2.43	1.66	2.04
- 수익증권	1.61	2.21	2.18	2.15	1.64	2.29	1.89	1.98	1.89	1.85
○ 매도가능증권	42.48	4.17	44.48	4.71	43.68	4.49	43.57	4.30	43.95	4.22
- 주식	3.15	1.60	3.20	5.93	3.07	4.44	2.71	1.41	2.73	1.03
- 채권 등	34.24	4.41	35.98	4.34	34.77	4.22	35.03	4.27	35.05	4.27
- 수익증권	5.10	4.23	5.30	6.45	5.84	6.20	5.84	6.03	6.17	5.62
○ 만기보유증권	6.72	3.90	5.86	3.87	6.74	3.79	6.76	3.96	6.80	3.57
- 채권 등	6.72	3.90	5.86	3.87	6.74	3.79	6.76	3.96	6.80	3.57
- 수익증권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	1.80	1.07	1.79	3.57	1.78	2.02	1.72	2.34	1.43	0.20
대출채권	21.91	4.61	21.60	4.29	22.02	4.31	22.30	4.31	23.13	4.22
부동산	3.37	1.07	3.29	1.19	3.21	1.09	3.12	1.05	3.06	1.02
비운용자산	15.16	0.02	14.90	0.09	14.86	0.00	14.47	-0.43	13.75	-0.05
총자산	100.00	3.15	100.00	3.40	100.00	3.25	100.00	3.12	100.00	3.03
일반계정	95.41	3.33	94.38	3.62	94.51	3.46	94.53	3.33	94.04	3.24
특별계정	4.59	0.00	5.62	0.00	5.49	0.00	5.47	0.00	5.96	0.00
총자산 규모	2,003,076		2,078,896		2,122,961		2,196,330		2,259,351	

주: 1)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이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이익) × 연기준환산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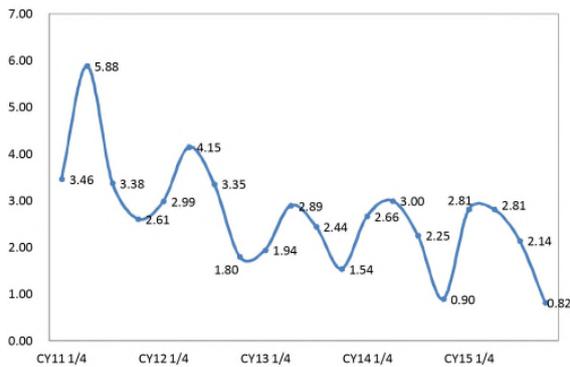
〈자본이익률³⁰⁾〉

■ 2015년 4/4분기 손해보험산업 전체 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이익 증가율보다 자본증가율이 높음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0.08%p 하락한 0.82%를 기록함.

- 손해보험산업의 총자본은 전년동기대비 10.5% 증가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2.2% 증가함.
- 손해보험산업의 2015년 연간 자본이익률은 2014년과 유사한 8.72%를 기록함.³¹⁾
 - 동기간 동안 자본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0.5%와 1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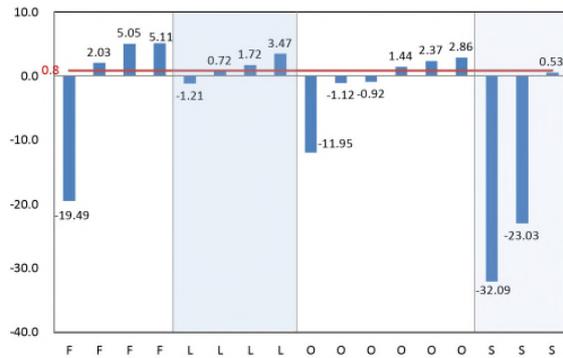
〈그림 9〉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

(단위: %)



〈그림 10〉 회사별 자본이익률^{1),2)}

(단위: %)



주: 1) F, L, O, S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를 의미함.

2) 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자본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2015년 4/4분기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자본이익률은 대형사와 외국사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하락하였으나, 중·소형사와 전업사는 전년동기대비 상승함.

- 대형사와 외국사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0.41%p, 1.09%p 하락한 0.96%와 2.02%를 기록함.
- 중·소형사와 전업사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1.27%p과 5.29%p 개선된 1.02%와 -12.70%를 기록함.

30)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본이익률은 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R_t / E_t^o)을 의미하며, 분석대상은 17개 회사임.

31) 손해보험회사의 자본이익률은 2014년 8.69%에서 2015년 8.72%로 소폭 증가함.

○ 연간 자본이익률 기준으로 중·소형사, 외국사, 전업사는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대형사의 경우는 소폭 감소함.

- 전년대비 상승폭은 전업사, 중·소형사, 외국사 순으로 나타남.

〈표 30〉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¹⁾

(단위: %)

구분	2014			2015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대형사	2.51	1.37	10.18	2.98	2.84	2.04	0.96	8.98
중·소형사	1.00	-0.25	3.54	1.46	2.99	2.35	1.02	7.95
외국사	9.53	3.11	16.43	7.28	4.77	5.74	2.02	19.69
전업사	-8.21	-17.99	-27.41	1.48	-3.89	-0.63	-12.70	-17.70
전체	2.25	0.90	8.69	2.81	2.81	2.14	0.82	8.72

주: 1) 분기 자본이익률 =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기중자본 = ((전분기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2)

2) 연간 자본이익률 =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기중자본 = ((전회계연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산이익률³²⁾〉

■ 2015년 4/4분기 손해보험산업 전체 자산이익률은 자산증가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0.01%p 하락한 0.10%를 기록함.

○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2.2% 증가하였으나 자산증가율은 13.7%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함에 따라 자산이익률은 소폭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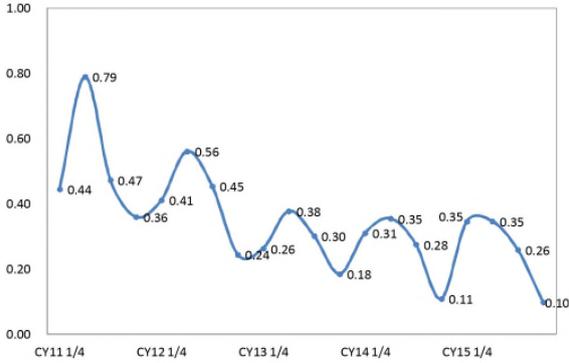
○ 손해보험산업의 2015년 연간 자산이익률은 2014년과 유사한 0.98%를 기록함.³³⁾

32)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산이익률은 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R_t / A_t^o)을 의미하며, 분석대상은 17개 회사임.

33)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이익률은 2014년 0.982%에서 2015년 0.976%로 소폭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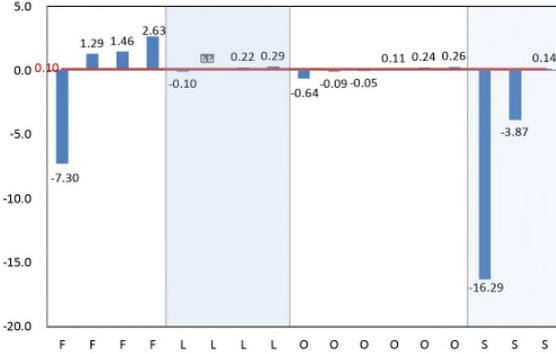
〈그림 11〉 손해보험산업 자산이익률

(단위: %)



〈그림 12〉 회사별 자산이익률^{1),2)}

(단위: %)



주: 1) F, L, O, S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를 의미함.

2) 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자본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2015년 4/4분기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자산이익률의 경우 대형사와 외국사는 전년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중·소형사와 전업사는 상승함.

○ 대형사는 전년동기대비 0.06%p 하락한 0.13%를 기록하였으며, 외국사의 경우는 감소폭 (0.40%p)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남.

○ 중·소형사는 전년동기대비 0.10%p 증가한 0.08%를 기록함.

○ 한편, 전업사는 0.30%p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음(-)의 자산이익률을 보임.

○ 중·소형사, 외국사, 전업사의 경우 연간 자산이익률이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대형사의 경우는 소폭 감소함.

- 동 기간 동안 전업사와 외국사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표 31〉 손해보험산업 자산이익률¹⁾

(단위: %)

구분	2014			2015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대형사	0.34	0.18	1.25	0.40	0.38	0.27	0.13	1.09
중·소형사	0.08	-0.02	0.26	0.11	0.23	0.19	0.08	0.59
외국사	3.83	1.27	6.65	3.04	2.04	2.48	0.88	8.22
전업사	-1.54	-2.98	-4.83	0.25	-0.76	-0.14	-2.68	-3.09
전체	0.28	0.11	0.98	0.35	0.35	0.26	0.10	0.98

주: 1) 분기 자산이익률 = 당기순이익 / 기중자산, 기중자산 = ((전분기 말 자산 + 당기 말 자산) / 2)

2) 연간 자산이익률 = 당기순이익 / 기중자산, 기중자산 = ((전회계연도 말 자산 + 당기 말 자산) / 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IV. 해외보험시장 동향

- 글로벌 생명보험 시장은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모두 성장세를 보임.
 - 미국 생명보험 시장은 유니버설보험과 종신보험의 성장으로 전년동기대비 8.0% 성장함.
 - 영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¹⁾는 퇴직연금 보험료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10.0% 증가함.
 - 일본 생명보험 신규계약액²⁾은 개인보험과 단체보험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2.6% 증가함.
 - 중국 인보험³⁾ 수입보험료는 생명, 건강, 상해 보험의 성장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29.5% 성장함.

- 글로벌 손해보험 시장을 살펴보면, 미국 원수보험료와 중국 수입보험료는 증가하였으나 일본의 원수보험료는 감소세를 보임.⁴⁾
 - 미국 손해보험은 전년동기대비 4.1% 성장하였으며 22분기 연속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 일본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상해보험 등의 원수보험료 감소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는 전년동기대비 0.9% 감소함.
 - 중국 손해보험 수입보험료⁵⁾는 전년동기대비 12.0% 증가함.

1) 신규보험료는 보험료 납입방법별로 정기납 신규보험료와 일시납 신규보험료의 합계로 계산함.
2) 일본 보험산업은 일본 생명보험협회 자료에 따라 신규계약액을 기준으로 그 성장성을 살펴보고 있음.
3) 중국의 인보험은 한국의 생명보험에 해당하며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으로 분류함.
4) 미국은 2015년 3/4분기, 영국은 2015년 4/4분기, 중국은 2015년 4/4분기, 일본은 FY2015 2/4분기 기준임.
5) 중국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가 아닌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성장성을 살펴봄.

1. 미국⁶⁾

가. 생명보험

■ 2015년 3/4분기 미국 생명보험시장 신규보험료 규모⁷⁾는 유니버설보험⁸⁾과 종신보험료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8% 증가함(〈표 1〉 참조).

○ 유니버설보험은 인덱스형 유니버설보험(Indexed UL)⁹⁾ 수입보험료 성장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함.

- 인덱스형 유니버설보험 수입보험료는 2014년 3/4분기에 비하여 20% 이상 성장함.¹⁰⁾

○ 변액유니버설보험¹¹⁾과 정기보험¹²⁾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각 2% 늘어남.

○ 종신보험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9% 증가하였음.

- 종신보험 신규보험료는 저금리에 따른 종신보험 가격 인상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저조하였으나 2015년 1/4분기부터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음.

■ 2015년 3/4분기 생명보험 종목별 신규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전분기대비 유니버설보험이 소폭 상승하고, 종신보험이 소폭 하락하였으며, 변액유니버설보험과 정기보험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함.

○ 생명보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니버설보험의 3/4분기 비중은 38%로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함.

○ 변액유니버설보험과 정기보험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여 각각 7%, 21% 비중을 차지함.

6) 미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된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7) 미국 보험시장 성장은 신규 연납화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연납화 보험료(Annualized Premium) = 일시납 보험료 × 10% + 정기납보험료
 8) 해약환급금으로부터 사업비를 공제하고, 사망률과 현재 이율로 계산한 해약환급금에 따라 보험료가 유연한 생명보험임.
 9) 인덱스 지수와 연결된 유니버설보험으로 주식시장의 상승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증가되지만 주식시장이 하락하여도 최저 보증금은 보증되는 보험임.
 10) 보험회사들은 9월 1일 시행된 인덱스형 유니버설보험 판매 시 모든 보험회사가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Actuarial guideline(AG)⁴⁹의 규제가 인덱스형 유니버설보험 판매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음.
 11) 특별 계정에서 운영되는 투자 성과에 따라 해약환급금 규모가 변경되는 보험으로 보험료 납입 및 적립금 인출이 자유로운 보험임.
 12) 특정 연령이나 특정 기간을 보장하는 생명보험임.

○ 종신보험은 전년동기대비 1%p 하락하여 그 비중이 34%임.

〈표 1〉 미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증가율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4					2015			
	2/4	3/4	4/4	연간		1/4	2/4	3/4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비중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비중
유니버설	-8	2	18	-1	38	7	13	11	38
기타변액	0	0	0	0	0	0	0	0	0
변액유니버설	42	22	7	17	7	21	-15	2	7
정기	-2	0	1	-1	22	2	1	2	21
종신	5	6	5	3	33	9	12	9	34
계	1	4	9	1	100	8	8	8	100
연납화 보험료	2,548	2,427	2,907	10,178		2,460	2,742	2,584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비중은 누적치임.
 자료: LIMRA(2015. 8), U.S. Retail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나. 연금보험

■ 2015년 3/4분기 미국 개인연금 신규보험료는 변액연금은 감소하고, 정액연금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3.3% 증가한 606억 달러임(〈표 2〉 참고).

○ 변액연금은 전년동기대비 7.3% 감소하여 329억 달러를 기록함.

- 변액연금은 저금리 환경과 주가 하락의 영향으로 판매가 저조하였으며, 상위 20개 회사 중 19개 회사의 변액연금 판매 실적이 하락함.

○ 정액연금은 저금리 환경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대비 63.9% 증가하여 377억 달러를 기록함.

〈표 2〉 미국 연금 종목별 신규보험료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14				2015		
		2/4	3/4	4/4	연간	1/4	2/4	3/4
변액연금	보험료	36.2	35.5	34.2	140.1	32.4	36.0	32.9
	증가율	-4.7	-0.6	-6.0	-3.6	-5.3	-0.6	-7.3
	비중	59.0	61.0	58.9	59.4	59.6	59.8	54.3
정액연금	보험료	25.2	23.0	23.9	95.8	22.0	24.2	37.7
	증가율	34.0	-3.8	-4.8	13.5	-8.3	-5.8	63.9
	비중	41.0	39.0	41.1	40.6	40.4	40.2	62.2
합계	보험료	61.4	58.5	58.1	235.9	54.4	60.2	60.6
	증가율	8.1	-1.8	-5.5	2.7	-6.5	-2.7	3.6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LIMRA(2015. 8), U.S. Individual Annuities.

■ 2015년 3/4분기 개인연금 판매채널 비중의 경우 독립중개인이 2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그 다음으로 전속설계사가 20.5%, 은행이 17.8%, 독립설계사, 증권중개인, 직접판매가 각각 17.3%, 12.9%, 6.6%의 비중을 차지함.

〈표 3〉 미국 개인연금 판매채널 비중

(단위: %)

구분	2014			2015		
	2/4	3/4	4/4	1/4	2/4	3/4
은행	16.6	16.0	14.9	16.2	16.5	17.8
전속설계사	19.9	19.8	20.6	20.2	20.8	20.5
직접판매	7.0	7.0	7.2	8.1	7.2	6.6
독립중개인	25.7	26.1	24.7	24.3	24.7	22.8
독립설계사	16.3	15.6	16.8	16.9	16.0	17.3
증권중개인	12.1	13.1	13.2	11.8	12.5	12.9
기타	2.4	2.4	2.6	2.6	2.3	2.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LIMRA(2015. 8), U.S. Individual Annuities.

다. 소득보상보험

2015년 3/4분기 소득보상보험¹³⁾ 신규보험료는 Non-cancellable¹⁴⁾은 감소하고, Guaranteed Renewable¹⁵⁾은 증가하며 전년동기대비 7.0% 성장한 1억 3,970만 달러를 기록함.

○ Guaranteed Renewable은 2015년 3/4분기에 감소세로 전환하며, 전년동기대비 6.0% 감소한 4,181만 달러임.

○ Non-cancellable은 9,790만 달러로 Multilife¹⁶⁾ 보험 판매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13.8% 성장함.

- Multilife 보험의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9% 증가함.

〈표 4〉 미국 소득보상보험 신규보험료

(단위: 천 건, 백만 달러, %)

구분			2014				2015		
			2/4	3/4	4/4	연간	1/4	2/4	3/4
계약건수	Guaranteed Renewable	건수	62.8	67.4	66.6	298.7	108.6	79.6	74.7
		증가율	-3.8	-10.5	-9.5	-3.8	6.7	26.6	10.9
		구성비	64.0	60.8	60.3	65.8	76.3	69.0	60.4
	Non-cancellable	건수	35.3	43.5	43.9	155.1	33.7	35.7	49.0
		증가율	-2.6	7.8	1.9	0.5	3.8	1.2	12.7
		구성비	36.0	39.2	39.7	34.2	23.7	31.0	39.6
	전체	건수	98.1	110.9	110.5	453.9	142.4	115.3	123.7
		증가율	-3.2	-4.3	-5.3	-2.4	6.0	17.5	11.6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규보험료	Guaranteed Renewable	보험료	41.3	44.5	43.9	190.0	63.8	53.0	41.8
		증가율	-8.1	-8.6	-11.9	-5.6	5.8	28.2	-6.0
		구성비	35.8	34.1	32.9	37.6	48.7	40.6	29.9
	Non-cancellable	보험료	74.3	86.1	89.4	315.8	67.2	77.5	97.9
		증가율	-5.0	1.7	3.8	-0.7	1.8	4.3	13.8
		구성비	64.2	65.9	67.1	62.4	51.3	59.4	70.1
	전체	보험료	115.6	130.6	133.2	505.8	131.0	130.5	139.7
		증가율	-6.1	-2.0	-2.0	-2.6	3.7	12.9	7.0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LIMRA(2015. 8),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Sales.

13)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업불능이 되었을 경우 소득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하는 보험임.

14) Non-cancell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갱신 시 보험회사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험료 또는 급부를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음.

15) Guaranteed Renew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회사는 갱신 시 보험료를 변경할 권리를 갖지만 계약을 취소하거나 일방적인 급부 변경을 할 수 없음.

16) Multilife 보험은 하나의 보험상품으로 부부 둘을 모두 보장하는 상품임.

라. 손해보험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4.1% 증가한 1,36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2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지급보험금은 88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3% 증가하였음.
- 손해보험산업의 2015년 3/4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0.5% 증가한 131억 달러임.
 - 2015년 3/4분기 미국 손해보험 총보험영업이익은 3,750억 달러이며, 이는 전년동기에 비해 5% 감소한 수치임.
 - 총투자영업이익의 경우 투자영업이익이 소폭 개선되었으나 실현자본이익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전년동기대비 7.0% 줄어든 약 121억 달러임.
 - 투자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0.2% 증가한 115억 달러임.
 - 실현자본이익은 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7.7% 감소함.
- 자기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 7.0%에서 0.8%p 상승한 7.8%를 나타냄.
- 2015년 3/4분기 합산비율은 전년동기 95.5%에서 약 0.2%p 상승한 95.7%로 악화됨.

〈표 5〉 미국 손해보험 실적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¹⁾		2014				2015		
		2/4	3/4	4/4	연간	1/4	2/4	3/4
원수보험료	금액	125,095	130,684	119,603	496,580	125,863	130,586	135,994
	증가율	4.3	3.7	4.8	4.1	3.7	4.4	4.1
지급보험금	금액	87,667	85,041	81,628	334,722	81,865	89,399	88,701
	증가율	4.9	9.6	2.7	6.2	1.7	2.0	4.3
보험영업이익	금액	-1,835	4,202	9,294	14,747	4,822	-415	4,021
	증가율	-0.7	-49.9	49.6	-17.0	59.6	-77.4	-4.3
계약자 배당금	금액	265	256	1,264	2,463	738	258	271
	증가율	-41.1	-1.9	1.0	-2.0	10.5	-2.6	5.9
총보험영업이익	금액	-2,100	3,946	8,030	12,284	4,085	-673	3,750
	증가율	-8.6	-51.4	61.9	-19.4	73.5	-68.0	-5.0
투자영업이익	금액	11,821	11,438	11,861	46,153	11,685	11,734	11,457
	증가율	-0.1	4.0	-9.2	-2.5	4.6	-0.7	0.2
실현자본이익	금액	4,254	1,607	1,301	10,064	4,674	3,500	680
	증가율	71.0	-24.9	-75.7	-11.5	59.2	-17.7	-57.7
총투자영업이익	금액	16,075	13,045	13,162	56,215	16,359	15,234	12,137
	증가율	12.3	-0.7	-28.6	-4.3	16.0	-5.2	-7.0
세전영업이익 ²⁾	금액	10,146	12,881	19,017	55,639	15,608	11,965	15,592
	증가율	1.3	-34.6	2.2	-13.2	13.3	17.9	21.0
당기순이익	금액	12,131	11,823	17,849	55,501	18,172	12,834	13,062
	증가율	19.6	-35.4	-13.8	-12.5	31.1	5.8	10.5
자기자본(Surplus)	금액	672,092	674,448	674,714	674,714	671,726	672,439	663,868
	증가율	9.5	8.1	3.3	3.3	1.5	0.1	-1.6
지급준비금	금액	578,561	579,274	575,607	575,607	575,256	579,099	580,974
	증가율	0.3	1.1	0.4	0.4	0.3	0.1	0.3
자기자본이익률		7.3	7.0	10.6	8.4	10.8	7.6	7.8
합산비율		100.6	95.5	94.9	97.0	95.7	99.4	95.7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세전영업이익 = 총보험영업이익 + 총투자영업이익 + 기타이익

자료: ISO(2015. 10), Property/Casualty Insurance Results: Forst-Half 2015; I.I.I.(2015. 7), 2015-First Quarter Results.

조사 개요 및 출처

■ 미국의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연금보험, 건강보험,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며, 본고는 이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과 소득보상보험에 대한 분기별 통계를 근거로 작성하였음.

- 미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건강보험이 존재하지 않아 민영건강보험이 발달해 있음.
- 미국 민영건강보험 사업자는 비영리 민간보험조합인 Blue Shield, Blue Cross와 의료공급조직(PPO: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등이 존재하고 이들이 민영건강보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민영건강보험이 직장단체보험으로 운영되는 등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음.
- 생명보험에는 유니버설보험, 변액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등이 있으며, 연금보험은 크게 변액연금보험과 정액연금보험으로 구분됨.
 - 미국생명보험협회(ACLI: The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 생명보험마케팅연구단체(LIMRA: Life Insurance Marketing and Research Association) 등은 생명보험, 연금보험, 소득보상보험,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자료만 제공함.
 - LIMRA의 분기별 자료는 신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중심으로 발표됨.
- 미국손해보험협회(PCI: Property Casualty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와 보험요율단체(ISO: Insurance Services Office Limited), 보험정보원(III: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손해보험산업 분기별 지표는 전체적인 영업성과를 중심으로 작성됨.

■ 구체적으로 미국보험시장 동향 작성을 위해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음.

보고서	참여 회사 수	수입보험료 비중	발표 기관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82개사	80%	LIMRA
U.S. Individual Annuities	62개사	97%	LIMRA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19개사	-	LIMRA
손해보험 분기별 실적 보도자료	-	-	PCI, ISO, III

2. 영국¹⁷⁾

가. 생명보험¹⁸⁾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규모〉

- 2015년 영국 생명보험료 규모는 신규보험료¹⁹⁾ 기준으로 전년대비 10.0% 증가한 770억 1,272만 파운드임.
 - 전체 신규보험료 중 비중이 가장 큰 일시납 퇴직연금 보험료가 전년대비 5.8% 증가함에 따라 전체 신규보험료 규모가 증가함.

- 2015년 정기납 신규보험료는 71억 4,231만 파운드로 전년대비 4.3% 증가함.
 - 정기납보험료 중 비중이 가장 큰 퇴직연금계좌가 4.1% 증가하였으며, 퇴직연금 보험료 또한 18.9% 증가함에 따라 정기납보험료는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일시납 신규보험료는 698억 7,041만 파운드로 전년대비 10.6% 증가함.
 - 투자 및 저축보험을 제외한 모든 상품의 일시납 신규보험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일시납 신규보험료 비중이 높은 퇴직연금과 퇴직연금계좌의 경우 전년대비 각각 5.8%와 43.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투자 및 저축보험의 일시납 신규보험료는 전년대비 2.3% 감소한 81억 파운드를 기록함.

17) 영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18) 영국 손해보험시장 실적은 분기별로 발표되지 않으며, 2014년 연간 자료는 보험동향 2014년 겨울호를 참조하기 바람(2015년 연간 자료는 보험동향 2016년 겨울호에 게재 예정임).

19) 신규보험료는 보험료 납입방법별로 정기납 신규보험료와 일시납 신규보험료의 합계로 계산함.

일시납 신규보험료		2014		2015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투자 및 저축보험	금액	2,125.5	8,315.2	1,864.3	2,019.2	2,095.8	2,147.7	8,126.9
	증가율	-3.6	-2.9	-4.9	4.0	-8.4	1.0	-2.3
	구성비	11.7	13.2	14.9	10.0	11.3	11.5	11.6
역외영업	금액	833.2	3,698.3	745.8	874.8	870.4	964.7	3,455.7
	증가율	-19.4	-10.6	-15.3	0.8	-22.0	15.8	-6.6
변액연동채권	금액	512.7	2,075.3	434.1	463.7	449.5	364.1	1,711.4
	증가율	-15.8	-15.8	-21.0	-8.5	-11.2	-29.0	-17.5
보증/배당채권	금액	768.7	794.9	680.7	675.5	771.6	816.3	2,944.1
	증가율	39.4	-58.7	10,344.5	6,412.9	8,142.8	6.2	270.4
퇴직연금계좌	금액	3,373.6	13,052.6	4,102.9	4,788.7	4,574.3	5,288.8	18,754.7
	증가율	4.5	-8.6	23.5	39.7	56.2	56.8	43.7
	구성비	18.6	20.7	32.9	23.6	24.7	28.4	26.8
개인연금계좌 Individual Pensions	금액	2,016.3	7,872.7	3,114.3	3,645.6	3,477.2	3,390.2	13,627.3
	증가율	17.9	15.6	62.2	83.9	77.9	68.1	73.1
개인연금 Personal Pensions	금액	1,241.3	4,599.9	1,535.5	1,675.5	1,754.7	1,776.5	6,742.1
	증가율	22.7	6.1	39.8	46.1	57.5	43.1	46.6
스테이크홀더연금 Individual Stakeholder Pensions	금액	79.9	376.5	128.4	135.7	78.8	69.8	412.7
	증가율	26.7	2.9	22.0	19.3	1.5	-12.7	9.6
개별개인연금 SIPP(Self-Invested Personal Pensions)	금액	683.1	2,837.6	1,436.5	1,816.5	1,631.5	1,528.1	6,412.5
	증가율	10.3	39.7	106.4	156.5	117.4	123.7	126.0
단체개인연금계좌 Work-based Pensions	금액	1,357.3	5,179.9	988.6	1,143.1	1,097.2	1,898.6	5,127.4
	증가율	-10.6	-30.6	-29.5	-21.0	12.7	39.9	-1.0
단체개인연금 Group Personal Pension	금액	1,306.0	4,901.3	918.2	1,075.3	1,041.3	1,739.7	4,774.4
	증가율	-10.3	-30.3	-30.0	-21.0	13.1	33.2	-2.6
고용주지원 스테이크홀더연금 Employer-sponsored Stakeholder Pensions	금액	51.3	278.7	70.4	67.8	55.9	158.9	353.0
	증가율	-16.0	-8.7	-22.5	-19.6	7.1	209.7	26.7
퇴직연금	금액	10,661.4	31,768.3	4,646.0	11,127.0	9,067.4	8,763.7	33,604.1
	증가율	93.0	33.4	-40.4	38.6	71.5	-17.8	5.8
	구성비	58.7	50.3	37.2	54.9	49.0	47.1	48.1
위탁투자계좌 Trustee Investment Plans	금액	5,636.1	15,001.6	3,053.2	2,960.2	5,639.7	2,819.4	14,472.4
	증가율	107.0	22.4	28.0	-39.4	169.2	-50.0	-3.5
Bulk Buyouts	금액	4,742.8	13,904.8	982.9	7,085.2	2,883.1	5,579.6	16,530.8
	증가율	148.0	47.5	-78.4	145.8	66.4	17.6	18.9
보장성보험	금액	40.1	149.5	34.2	32.8	38.9	48.7	154.6
	증가율	-19.6	-24.3	-20.9	11.0	6.1	21.5	3.4
	구성비	0.2	0.2	0.3	0.2	0.2	0.3	0.2
퇴직소득보험	금액	1,954.4	9,897.8	1,836.4	2,294.4	2,724.9	2,374.5	9,230.2
	증가율	-38.1	-27.6	-39.8	-10.4	16.9	21.5	-6.7
	구성비	10.8	15.7	14.7	11.3	14.7	12.8	13.2
소계(B)	금액	18,154.9	63,183.4	12,483.8	20,262.1	18,501.2	18,623.3	69,870.4
	증가율	28.2	4.4	-22.8	26.7	43.7	2.6	10.6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규보험료 총계(A+B)	금액	19,858.8	70,030.1	14,229.9	21,989.4	20,077.8	20,715.6	77,012.7
	증가율	25.2	3.6	-20.2	23.6	38.1	4.3	10.0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n.a.는 통계집계방식 변경에 의해 자료가 없는 경우임.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투자 및 저축보험 신규보험료〉

- 2015년 투자 및 저축 신규보험료는 역외영업 보험료가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2.3% 감소함.
- 일시납 투자 및 저축은 투자가 1.2% 증가하였으나, 역외영업이 6.6%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2.3% 감소함.
- 한편, 정기납 기준 투자 및 저축은 역외영업이 19.4% 감소하였으나, 생사혼합보험이 25.8%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퇴직연금계좌 신규보험료〉

- 2015년 퇴직연금계좌(Individual Pensions)²⁰⁾ 신규보험료는 전년대비 정기납이 4.1%, 일시납이 43.7%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33.5% 늘어남.
- 2015년 정기납 퇴직연금계좌 신규보험료의 경우 개인연금계좌(Individual Pensions)와 단체개인연금계좌(Work-based Pension)의 판매가 모두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4.1% 증가함.
 - 정기납 개인연금계좌는 개인연금(Personal Pensions)과 스테이크홀더연금(Individual Stakeholder Pensions)²¹⁾이 전년대비 각각 23.3%, 6.6%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17.6% 증가함.
 - 정기납 단체개인연금계좌는 단체개인연금(Group Personal Pensions)의 판매가 6.6% 증가하였으나, 고용주 지원 스테이크홀더연금(Employer-sponsored Stakeholder Pensions)이 19.7%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3.2% 증가함.
- 2015년 일시납 퇴직연금계좌 신규보험료의 경우 개인연금계좌 판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43.7% 증가함.
 - 일시납 개인연금계좌는 개인연금(Personal Pensions)이 전년대비 46.6% 늘어나고 스테이크홀더연금(Individual Stakeholder Pensions) 및 SIPPs이 전년대비 각각 9.6%, 126.0% 증가하

20) 퇴직연금계좌(individual pensions)는 근로자와 연금사업자 간 개인계약(personal contract-based)으로, 개인연금계좌(Personal Pension, Individual Stakeholder Pension, SIPP 등)와 단체개인연금계좌(Group Personal Pension, Employer-sponsored Stakeholder Pension, Group SIPP 등)로 구분됨.

21) 영세근로자(중·저소득층)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낮게 책정한 DC형 연금제도로 2001년에 도입함.

면서 전체적으로 73.1% 증가함.

- 일시납 단체개인연금계좌는 전년대비 1.0% 감소함.
 - 이는 고용주 지원 스테이크홀더연금(Employer-sponsored Stakeholder Pensions)이 26.7% 증가하였으나, 규모가 큰 단체개인연금(Group Personal Pensions)이 2.6% 감소한 것에 기인함.

〈퇴직연금 신규보험료〉

■ 2015년 퇴직연금(Occupational Pension Schemes)²²⁾ 전체 신규보험료는 전년대비 5.9% 증가한 349억 5,730만 파운드로 집계됨.

■ 정기납 퇴직연금 신규보험료는 전년대비 9.6% 증가한 13억 5323만 파운드임.

- 정기납 퇴직연금에서 비중이 가장 큰 DC형 퇴직연금이 전년동기대비 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일시납 퇴직연금 신규보험료는 전년대비 5.8% 확대된 336억 407만 파운드임.

- DC형 퇴직연금과 위탁투자계좌(TIPs)²³⁾가 각각 33.4%와 3.5% 감소하였으나, Bulk Buyouts²⁴⁾이 18.9% 증가하면서 일시납 퇴직연금의 전체 보험료는 증가함.

〈보장성보험 신규보험료〉

■ 2015년 보장성보험 전체 신규보험료는 전년대비 0.6% 감소한 11억 7,183만 파운드임.

- 정기납 기준 보장성보험²⁵⁾은 전년대비 1.2% 감소한 10억 1,722만 파운드로 집계됨.
 - 개인 보장성과 단체 보장성이 각각 0.2%와 3.0% 감소함에 따라 전체 정기납 보장성

22) 퇴직연금(Occupational Pension Schemes)은 사용자가 재원을 부담하는 신탁에 근거한 연금(trust-based pensions)으로, Defined Benefits, Defined Contributions, Group AVCS, TIPs(Trustee Investment Plans), Bulk Buyouts 등으로 구분함.

23) 위탁투자계좌(TIPs)는 수익을 보장해 주는 맞춤형 퇴직연금임.

24) DB형 퇴직연금 관리를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좌임.

25) 정기납 보장성보험(Protection Products)은 개인보험인 정기생명보험(Term Life), 종신보험(Whole Life), CI(Critical Illness), 소득보장(Income Protection)과 단체보험인 단체생명보험(Group Life), 단체CI(Group Critical Illness), 단체 소득보장(Group Income Protection)보험으로 구분함.

신규보험료는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일시납 보장성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4% 증가한 1억 5,461만 파운드임.

〈퇴직소득보험 신규보험료〉

■ 2015년 일시납 퇴직소득보험²⁶⁾ 신규보험료는 전년대비 6.7% 감소한 92억 3,016만 파운드로 나타남.

- 소득인출 신규보험료가 70.4% 증가하였으나, 퇴직소득보험 중 판매비중이 큰 종신연금 신규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39.6% 감소함에 따라 퇴직소득보험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음.

〈모집형태별 신규보험료〉

■ 2015년 정기납 신규보험료 모집형태별 비중은 독립자문(independent advice)²⁷⁾ 채널, 無자문(non-advised), 제한적 자문(restricted advice)²⁸⁾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정기납 판매 중 독립자문 채널을 통한 판매 비중은 전년대비 0.2%p 증가한 75.5%를 기록함.
 - 종목별로는 퇴직연금계좌(87.0%), 보장성보험(68.8%), 퇴직연금(41.6%), 투자 및 저축보험(25.7%) 순임.
- 無자문 채널의 비중은 전년대비 0.2%p 증가한 15.0%로, 종목별로는 투자 및 저축보험 중 無자문 채널 비중이 63.3%로 가장 높음.
- 제한적 자문 채널의 정기납 신규보험 판매비중은 전년보다 0.4%p 감소한 9.5%를 기록하였으며, 종목별로는 보장성보험(17.1%), 투자 및 저축보험(11.0%), 퇴직연금계좌(8.5%), 퇴직연금(7.5%) 순으로 나타남.

■ 2015년 일시납 신규보험료 기준 모집형태별 채널 비중 크기는 독립 자문, 無자문, 제한적 자

26) 퇴직소득(Retirement Income)보험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퇴직금을 활용하여 소득흐름을 창출하는 상품으로 일시납 수령형태만 있으며 종신연금(Pension Annuities), 소득인출(Income Drawdown)로 구분됨.

27) 독립적 자문(independent advice)은 상품공급업자에게 구속받지 않고 특정 시장의 전체 상품을 포괄적이고 공정한 분석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28) 제한적 자문(restricted advice)은 복수의 상품공급업자 상품을 적합성원칙을 적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문 순으로 나타남.

- 일시납 신규보험료 중 독립자문 채널 비중은 전년대비 2.8%p 감소한 60.6%임.
 - 보장성보험의 경우 독립자문 채널을 통한 모집 비중이 88.8%로 가장 높으며, 퇴직연금과 퇴직소득보험의 경우는 50% 수준을 보이고 있음.
- 無자문 채널의 일시납 신규보험 판매비중은 28.2%로 전년대비 2.0%p 증가함.
 - 퇴직연금과 퇴직소득보험의 경우 無자문 채널을 통한 모집비중이 일시납 보험료 기준으로 각각 37.9%과 36.8%를 차지함.
 - 투자 및 저축보험과 보장성 보험의 경우 無자문 채널을 통한 모집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음.
- 일시납 신규보험료 중 제한적 자문채널의 판매비중은 11.2%로 전년대비 0.9%p 증가함.
 - 종목별로는 투자 및 저축보험의 제한적 자문 채널 비중이 18.5%로 가장 높으며, 보장성보험과 퇴직연금 계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표 7〉 2015년 영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모집형태별 비중

(단위: %)

구분	독립 자문 (Independent Advice)				제한적 자문 ¹⁾ (Restricted Advice)				無자문 ²⁾ (Non-advised)			
	정기납		일시납		정기납		일시납		정기납		일시납	
	2014	2015	2014	2015	2014	2015	2014	2015	2014	2015	2014	2015
투자 및 저축보험	27.5	25.7	80.1	79.7	10.2	11.0	18.2	18.5	62.4	63.3	1.7	1.8
퇴직연금계좌	85.5	87.0	84.5	76.3	8.7	8.5	5.1	5.4	5.8	4.5	10.4	18.3
퇴직연금	44.3	41.6	55.7	49.7	6.8	7.5	10.9	12.5	48.8	51.0	33.5	37.9
보장성보험	68.8	68.8	87.2	88.8	19.3	17.1	12.4	5.3	11.9	14.1	0.5	5.9
퇴직소득보험			46.1	51.4			9.0	11.8			44.9	36.8
전체 ³⁾	75.3	75.5	63.4	60.6	9.9	9.5	10.3	11.2	14.8	15.0	26.2	28.2

주: 1) 독립중개인(WoM), 단일 전속(Single Tied)과 다중 전속(Multi Tied)설계사를 포함함.
 2) 보험회사의 직접 판매와 제3자 판매를 포함하며 해당 보험회사의 상품만을 대상으로 함.
 3) 각 채널별 신규보험료를 합산하여 재계산함.
 4) 비중 합계가 100% 이하인 경우는 채널 파악이 안 된 경우로 보임.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2015년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신규보험 판매액은 전년대비 20.3% 감소한 9억 7,392만 파운드를 기록함.

- 방카슈랑스를 통한 정기납 보험판매는 전년대비 43.5% 감소한 6,976만 파운드임.
 - 이는 보장성보험과 퇴직연금계좌 보험료가 각각 42.4%와 48.4% 감소한 것에 기인함.
- 일시납 신규보험 판매 중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판매는 전년대비 17.7% 감소한 9억 416만 파운드임.
 - 이는 퇴직연금 보험료가 95.0% 감소하고, 퇴직소득보험과 퇴직연금계좌 보험료가 각각 67.8%, 35.4% 감소한 것에 기인함.

〈표 8〉 영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방카슈랑스 판매

(단위: 백만 파운드, %)

구분	정기납						일시납					
	2014	2015					2014	2015				
	연간	1/4	2/4	3/4	4/4	연간	연간	1/4	2/4	3/4	4/4	연간
투자 및 저축보험	0.6	0.1	0.2	0.2	0.1	0.6	475.6	117.9	112.3	112.3	132.4	474.9
	(-7.3)	(-55.7)	(-5.2)	(1005.0)	(-26.6)	(0.2)	(-28.1)	(2.4)	(2.7)	(-11.1)	(6.1)	(-0.2)
퇴직연금계좌	32.8	3.8	4.0	4.0	5.2	16.9	95.9	16.8	17.2	17.2	10.9	61.9
	(-36.1)	(-68.0)	(-49.6)	(-36.2)	(-23.7)	(-48.4)	(-29.1)	(-40.7)	(-46.6)	(-6.8)	(-36.6)	(-35.4)
퇴직연금	0.0	0.4	0.0	0.0	0.0	0.4	104.5	0.0	2.6	2.6	0.0	5.2
	(116.7)	(-)	(-57.1)	(275.0)	(-)	(982.1)	(-48.0)	(-100.0)	(-93.6)	(-52.6)	(-100.0)	(-95.0)
역외영업	0.2	0.0	0.0	0.0	0.0	0.2	313.6	62.6	91.1	91.1	72.3	317.2
	(14.5)	(-11.1)	(-32.1)	(-34.5)	(5.3)	(-20.8)	(-18.2)	(-33.6)	(19.0)	(29.2)	(0.2)	(1.2)
보장성보험	89.8	16.2	11.6	11.6	12.4	51.7	17.8	3.8	3.6	3.6	4.7	15.7
	(-25.5)	(-39.8)	(-51.1)	(-48.0)	(-27.2)	(-42.4)	(-17.5)	(-13.9)	(-38.3)	(-9.9)	(34.3)	(-11.6)
퇴직소득보험 ¹⁾							90.7	9.1	6.8	6.8	6.6	29.2
							(-55.3)	(-71.8)	(-67.3)	(-69.5)	(-57.6)	(-67.8)
전체	123.4	20.6	15.8	15.8	17.7	69.8	1098.1	210.2	233.6	233.6	226.8	904.2
	(-28.5)	(-47.5)	(-50.4)	(-44.7)	(-26.2)	(-43.5)	(-31.6)	(-36.1)	(-18.1)	(-5.4)	(-4.2)	(-17.7)

주: 1) 별도 취합된 퇴직소득보험의 방카슈랑스 판매를 합침.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조사 개요 및 출처

- 영국의 보험산업은 영국보험협회(ABI: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생명보험의 신규보험료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영국의 경우 생명보험의 신규보험료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의 기타 통계 및 손해보험의 통계(연간자료만 발표) 입수가 어려운 상황임.
- 영국보험협회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생명보험 신규계약은 6개 종목으로 구분되는데, 보장성보험을 제외하면 신규계약은 개인과 단체로 분리되지 않음.
 - 보장성보험이 전체 신규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개인보장성보험과 단체보장성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통합하여 분류함.
 - 역외영업의 경우 투자·저축성보험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 표시하지 않음.
 - 퇴직소득보험(Retirement Income)은 퇴직자의 연금재원이 분배되는 단계의 보험으로서 종신연금(Pension Annuity)과 소득인출(Income Drawdown)로 구분됨.
- ABI가 발표한 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Investment & Savings	투자·저축성보험
Individual Pensions	퇴직연금계좌
Occupational Pensions	퇴직연금
Offshore Business	역외영업
Retirement Income	퇴직소득보험
Individual Protection & Group Protection	보장성보험

3. 일본²⁹⁾

가. 생명보험

〈신규계약 현황〉

■ FY2015 3/4분기 생명보험 신규계약액은 전년동기대비 2.6% 성장하며 20조 9,761억 엔을 나타냄.

- 3/4분기 개인보험은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함.
 - 사망보험의 경우 정기보험은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하였지만 종신보험은 전년동기대비 4.2% 감소함.
 - 생사혼합보험인 양로보험(정기양로보험 포함)은 전년동기대비 13.7% 증가하였으며 기타 생사혼합보험은 전년동기대비 40.6% 증가함.
 - 생존보험은 전년동기대비 3.5% 증가하며 4,372억 엔으로 집계됨.
- 한편, 3/4분기 개인연금보험은 전년동기대비 8.5% 줄어들음.
 - 3/4분기 정액연금보험 및 변액연금보험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5.9%, 20.1% 감소함.
- 3/4분기 단체보험은 전년동기대비 33.1% 증가한 6,026억 엔을 기록함.
 - 3/4분기 단체정기보험(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³⁰⁾ 포함)은 전년동기대비 35.7% 증가하였고, 단체신용생명보험의 경우도 전년동기대비 25.9% 증가함.

29) 일본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된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30)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은 임직원 사망 시 또는 고도장해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기보험을 말함.

〈표 9〉 일본 생명보험 신규계약액

(단위: 억 엔, %)

구분 ¹⁾		FY2014			FY2015			
		3/4	4/4	연간	1/4	2/4	3/4	
개인	금액	177,931	181,996	699,041	177,605	183,457	183,689	
	증가율	-0.3	9.1	3.2	7.4	5.6	3.2	
	구성비	87.1	85.1	85.6	85.8	88.2	87.6	
	사망	금액	152,700	156,296	595,900	147,699	153,820	152,514
		증가율	5.3	10.1	6.1	5.8	4.4	-0.1
		구성비	74.7	73.0	73.0	71.3	74.0	72.7
	정기보험	금액	80,119	80,630	310,991	74,558	80,049	81,016
		증가율	5.2	8.8	6.9	3.8	2.1	1.1
	종신보험	금액	39,048	42,385	152,084	37,635	37,475	37,408
		증가율	7.1	15.8	4.7	10.9	2.1	-4.2
	생사혼합	금액	21,006	21,284	84,697	26,500	25,616	26,803
		증가율	-33.7	-6.8	-22.5	27.5	18.5	27.6
		구성비	10.3	9.9	10.4	12.8	12.3	12.8
	양로보험 ²⁾	금액	11,138	11,442	46,789	12,120	12,128	12,659
		증가율	-16.2	-10.1	-14.1	3.7	-3.1	13.7
기타	금액	8,625	8,450	33,179	12,345	11,475	12,125	
	증가율	-50.5	-7.5	-35.1	53.1	42.7	40.6	
생존	금액	4,225	4,416	18,444	3,405	4,021	4,372	
	증가율	159.4	120.4	184.9	-32.5	-15.4	3.5	
	구성비	2.1	2.1	2.3	1.6	1.9	2.1	
개인연금	금액	21,917	21,656	86,553	20,116	19,085	20,046	
	증가율	14.2	-19.0	8.6	-5.7	-11.8	-8.5	
	구성비	10.7	10.1	10.6	9.7	9.2	9.6	
	정액연금	금액	17,782	17,151	70,019	16,063	15,185	16,741
		증가율	4.4	-29.2	-0.7	-10.8	-11.1	-5.9
	변액연금	금액	4,134	4,505	16,534	4,054	3,900	3,304
증가율		92.5	78.6	79.9	21.8	-14.6	-20.1	
단체보험	금액	4,529	10,324	30,609	9,383	5,441	6,026	
	증가율	-54.7	-49.2	-31.7	-9.6	1.1	33.1	
	구성비	2.2	4.8	3.8	4.5	2.6	2.9	
	단체정기 ³⁾	금액	3,326	8,843	20,888	7,530	3,954	4,512
		증가율	-54.8	-38.4	-40.6	72.8	-9.3	35.7
	단체신용생명	금액	1,203	1,481	9,722	1,853	1,487	1,514
증가율		-54.6	-75.1	0.7	-69.2	45.8	25.9	
합계	금액	204,377	213,977	816,204	207,104	207,983	209,761	
	증가율	-1.5	0.1	1.8	5.1	3.6	2.6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생명보험 전체 실적대비 기준 구성비임.

2) 양로보험은 정기양로보험을 포함함.

3) 단체정기보험은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을 포함함.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자산 현황〉

■ FY2015 3/4분기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자산규모는 전분기대비 0.5% 증가한 367조 6,041억 엔을 기록함.

〈표 10〉 일본 생명보험회사 주요 자산 현황 및 비중^{1,2)}

(단위: 억 엔, %)

구분 ^{1,2)}	FY2014				FY2015					
	3/4		4/4		1/4		2/4		3/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현금 및 예금	47,921	0.2	56,080	17.0	43,772	-21.9	51,574	17.8	46,986	-8.9
단기자금	31,163	17.0	36,730	17.9	29,610	-19.4	42,912	44.9	46,569	8.5
매입금전채권	27,738	3.0	27,908	0.6	27,724	-0.7	29,798	7.5	25,342	-15.0
금전신탁	33,016	10.4	33,326	0.9	35,572	6.7	35,956	1.1	37,376	3.9
유가증권	2,990,051	2.1	2,994,295	0.1	3,027,827	1.1	2,978,104	-1.6	3,001,722	0.8
- 국채	1,490,328	-0.3	1,487,617	-0.2	1,491,066	0.2	1,486,502	-0.3	1,475,890	-0.7
- 지방채	140,332	0.3	138,686	-1.2	137,297	-1.0	136,997	-0.2	135,144	-1.4
- 회사채	249,524	0.7	248,553	-0.4	244,657	-1.6	248,621	1.6	249,038	0.2
- 주식	208,477	8.3	226,979	8.9	237,381	4.6	208,875	-12.0	225,713	8.1
- 외화증권	737,440	7.1	732,805	-0.6	762,245	4.0	751,731	-1.4	766,972	2.0
대출금	374,598	0.3	368,103	-1.7	365,089	-0.8	359,140	-1.6	357,548	-0.4
부동산	62,777	-0.6	62,410	-0.6	62,566	0.2	62,538	0.0	62,361	-0.3
운용자산 ³⁾	3,597,370	2.0	3,609,993	0.4	3,623,009	0.4	3,594,161	-0.8	3,612,679	0.5
비운용자산	63,332	5.2	62,559	-1.2	63,674	1.8	63,934	0.4	63,362	-0.9
총자산 ⁴⁾	3,660,702	2.1	3,672,552	0.3	3,686,683	0.4	3,658,095	-0.8	3,676,041	0.5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 잔액이며, 연말 수치는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전분기대비 증가율.

3) 운용자산은 상기 주요자산, 채권대차거래지불보증금 등의 합계임.

4) 총자산은 운용자산과 유형 고정자산, 무형 고정자산 및 기타 자산 등의 합계임.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 3/4분기 현금 및 예금, 매입금전채권 등의 자산 규모는 각각 전분기보다 8.9%, 15.0% 감소함.
- 반면, 3/4분기 단기자금과 금전신탁은 각각 전분기대비 8.5%, 3.9% 성장하였으며, 운용자산도 전분기대비 0.5% 증가함.
- 동 기간 유가증권은 국채와 지방채를 제외한 모든 유가증권의 증가로 전분기대비 0.8% 증가하며 300조 1,722억 엔을 나타냄.
 - 3/4분기 국채와 지방채의 규모는 전분기대비 각각 0.7%, 1.4% 감소함.
 - 반면, 회사채, 주식, 외화증권의 규모는 각각 전분기대비 0.2%, 8.1%, 2.0% 증가함.

나.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현황〉

- FY2015 3/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0.9% 감소한 2조 2,071억 엔으로 집계됨.
 - 3/4분기 화재보험은 전년동기대비 10.3% 감소하였고, 해상보험은 전년동기대비 3.5% 줄어듦.
 - 동 기간 상해보험은 전년동기대비 9.0% 감소한 반면, 운송보험의 경우는 전년동기대비 2.5% 증가함.
 - 자동차보험은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한 9,989억 엔으로 집계되었고,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은 전년동기대비 11.2% 성장한 2,820억 엔으로 집계됨.
 - 특종보험 중 배상책임보험과 이익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2.6%, 26.9% 증가하며,³¹⁾ 특종보험의 전체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1.2% 성장한 2,820억 엔으로 집계됨.

31) 일본손해보험협회 자료.

〈표 11〉 일본 손해보험 원수보험료¹⁾

(단위: 억 엔, %)

구분 ^{2),3)}		FY2014			FY2015		
		3/4	4/4	연간	1/4	2/4	3/4
화재	보험료	4,140	3,902	15,148	3,777	5,038	3,712
	증가율	7.4	4.3	4.3	4.2	44.7	-10.3
	구성비	18.6	17.8	17.2	16.2	21.4	16.8
해상	보험료	545	573	2,227	602	541	526
	증가율	2.6	5.1	2.8	5.8	0.4	-3.5
	구성비	2.4	2.6	2.5	2.6	2.3	2.4
운송	보험료	157	160	642	172	155	161
	증가율	0.0	-1.8	-0.3	0.0	2.0	2.5
	구성비	0.7	0.7	0.7	0.7	0.7	0.7
자동차	보험료	9,714	9,768	38,639	10,141	9,767	9,989
	증가율	0.6	3.8	3.0	4.1	3.7	2.8
	구성비	43.6	44.5	43.8	43.4	41.5	45.3
자동차 배상책임	보험료	2,549	2,671	10,289	2,698	2,568	2,820
	증가율	1.2	3.4	0.6	4.5	3.3	11.2
	구성비	11.4	12.2	11.7	11.5	10.9	12.8
상해	보험료	2,639	2,267	10,373	2,888	2,467	2,402
	증가율	8.3	-2.5	2.4	2.3	-6.7	-9.0
	구성비	11.8	10.3	11.8	12.4	10.5	10.9
특종	보험료	2,535	2,622	10,898	3,089	2,981	2,820
	증가율	0.9	1.0	3.9	2.8	8.9	11.2
	구성비	11.4	11.9	12.4	13.2	12.7	12.8
합계	보험료	22,279	21,963	88,217	23,367	23,517	22,071
	증가율	2.8	2.8	3.0	3.8	9.6	-0.9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이며, 연말 수치는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일본의 원수정미보험료, 신종보험을 각각 원수보험료, 특종보험으로 의역함.

3)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이며, 구성비는 손해보험 전체 실적대비 기준임.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자산 현황〉

■ FY2015 3/4분기 손해보험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1.8% 증가한 31조 3,476억 엔으로 집계됨.

〈표 12〉 일본 손해보험회사 주요 자산 현황 및 비중¹⁾

(단위: 억 엔, %)

구분	FY2014				FY2015						
	3/4		4/4		1/4		2/4		3/4		
	금액	증가율									
현금 및 예금	9,507	3.6	9,288	-2.3	9,227	-0.7	17,362	88.2	13,729	-20.9	
단기자금	3,363	-30.3	3,199	-4.9	4,422	38.2	8,627	95.1	6,402	-25.8	
환매조건부채권	6,674	31.9	1,735	-74.0	5,549	219.9	6,325	14.0	3,907	-38.2	
매입금전채권	2,137	18.7	4,453	108.4	3,785	-15.0	2,508	-33.7	15,440	50.3	
금전신탁	1,291	12.7	1,353	4.8	1,391	2.8	1,332	-4.2	1,387	4.1	
유가증권	국채	65,576	-0.7	64,809	-1.2	61,555	-5.0	57,996	-5.8	57,026	-1.7
	지방채	3,213	-1.7	3,192	-0.6	3,073	-3.8	3,001	-2.3	3,198	6.6
	회사채	24,287	0.9	24,075	-0.9	23,595	-2.0	24,165	2.4	24,791	2.6
	주식	75,959	5.4	82,164	8.2	84,334	2.6	73,958	-12.3	78,245	5.8
	외화증권	57,514	3.5	58,968	2.5	59,564	1.0	59,161	-0.7	67,865	14.7
	기타증권	2,339	0.2	2,315	-1.0	2,560	10.6	2,627	2.7	2,616	-0.4
	소계	228,889	2.5	235,523	2.9	234,680	-0.4	220,908	-5.9	233,743	5.8
대출금	15,822	0.5	18,624	17.7	18,219	-2.2	15,142	-16.9	15,417	1.8	
부동산	9,895	-0.8	9,836	-0.6	9,777	-0.6	9,702	-0.8	9,613	-0.9	
운용자산	277,578	2.4	284,011	2.3	287,050	1.1	281,908	-1.8	287,969	2.1	
비운용자산 ²⁾	25,461	4.9	25,593	0.5	25,519	-0.3	26,015	1.9	25,507	-2.0	
총자산	303,039	2.6	309,605	2.2	312,570	1.0	307,924	-1.5	313,476	1.8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 누적 잔액, 전분기대비 증가율로서,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비운용자산은 현금, 건설 중인 자산, 유·무형고정자산, 대리점비용, 재보험비용, 이연세금자산, 지불승낙담보 등을 말함.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 3/4분기 현금 및 예금과 단기자금은 전분기대비 각각 20.9%, 25.8% 감소한 13,729억, 6,402억 엔을 기록함.
- 환매조건부채권 규모도 전분기대비 38.2% 감소한 3,907억 엔을 기록한 반면, 매입금전채권과 금전신탁 규모는 각각 50.3%, 4.1% 증가함.
- 3/4분기 유가증권의 경우 국채와 기타증권을 제외한 모든 자산 규모 증가로 인해 전체적으로 전분기대비 5.8% 늘어남.
 - 3/4분기 국채는 전분기대비 1.7% 줄어들었으나, 지방채와 회사채는 각각 전분기대비 6.6%, 2.6% 증가함.
 - 주식의 경우 전분기대비 5.8% 증가하였고, 외화증권도 전분기대비 14.7% 증가함.
- 3/4분기 대출금과 운용자산은 각각 전분기대비 1.8%, 2.1% 증가하였으며, 부동산과 운용자산은 각각 전분기대비 0.9%, 2.0% 감소함.

조사 개요 및 출처

■ 일본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일본생명보험협회 (<http://www.seiho.or.jp>)와 일본손해보험협회(<http://www.sonpo.or.jp>)를 통해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매월/분기에 공개되는 누적 통계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생명보험은 신계약종목별통계표(新契約種類別統計表)의 신규계약액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생명보험사업개황(生命保險事業概況) 중 주요자산운용현황(主要資産運用狀況) 통계를 분석함.
- 손해보험은 종목별통계표(種目別統計表)의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險料)와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險金) 통계를 활용해 보험료 및 지급보험금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손해보험회사자금운용상황표(損害保險会社資金運用狀況一覽表)를 이용하여 분석함.

■ 생명보험은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성보험과 단체성보험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개인성보험은 개인보험(個人保險)과 개인연금보험(個人年金保險)으로, 단체성보험은 단체보험(団体保險), 단체연금보험(団体年金保險), 재형보험(財形保險), 재형연금보험(財形年金保險), 의료보장보험(医療保障保險), 취업불능보험(就業不能保障保險)으로 분류함.
- 단체성보험 중 실적이 미미한 재형보험, 재형연금보험, 의료보장보험, 취업불능보험은 기타로 분류함.

■ 일본식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險料)	원수보험료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險金)	지급보험금
신종보험(新種保險)	특종보험

4. 중국³²⁾

가. 총괄

- 2015년 4/4분기 전체 수입보험료는 5,242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1.9% 증가함.
 - 인보험 및 손해보험 성장세가 모두 확대되면서 전체 성장률도 상승함.
 - 한편, 2015년 전체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20.0% 증가한 2조 4,283억 위안으로 나타남.
- 2015년 4/4분기 전체 지급보험금은 2,414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2.0% 증가함.
 - 손해보험 증가율은 소폭 축소되었으나 인보험 증가율이 상승하면서 전체 증가율도 상승함.
 - 한편, 2015년 전체 지급보험금은 8,674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0.2% 증가함.
- 2015년 4/4분기 사업비는 전년동기대비 20.6% 증가한 1,033억 위안으로 집계됨.
 - 한편, 2015년 연간 사업비는 19.3% 증가한 3,337억 위안으로 나타남.

〈표 13〉 중국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사업비^{1),2)}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4		2015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수입보험료	금액	4,301	20,235	8,425	5,277	5,338	5,242	24,283
	증가율 ³⁾	13.5	17.5	20.4	17.6	20.1	21.9	20.0
인보험	금액	2,439	13,031	6,446	3,238	3,445	3,158	16,288
	증가율 ³⁾	10.9	18.4	22.9	23.4	26.4	29.5	25.0
손해보험	금액	1,862	7,203	1,979	2,039	1,893	2,084	7,995
	증가율 ³⁾	17.0	16.0	12.6	9.3	10.1	12.0	11.0
지급보험금	금액	1,978	7,216	2,311	1,893	2,056	2,414	8,674
	증가율 ³⁾	16.1	16.1	24.3	13.2	20.5	22.0	20.2
인보험	금액	832	3,428	1,397	973	999	1,112	4,480
	증가율 ³⁾	34.8	23.6	36.3	22.7	28.4	33.6	30.7
손해보험	금액	1,147	3,788	915	920	1,058	1,302	4,194
	증가율 ³⁾	5.5	10.2	9.7	4.7	13.9	13.6	10.7
사업비	금액	857	2,796	699	794	811	1,033	3,337
	증가율 ³⁾	10.9	11.9	14.0	21.0	21.0	20.6	19.3

주: 1) 기간별 실적치 기준.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32) 중국 보험산업은 한국의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인보험(人身保險)과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재산보험(財產保險)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중국 보험산업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첨부된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나. 인보험³³⁾

〈수입보험료〉

- 2015년 4/4분기 인보험 수입보험료는 3,158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9.5% 증가함.
 - 한편, 2015년 인보험은 1조 6,288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5.0% 증가함.
- 2015년 4/4분기 생명보험, 건강보험³⁴⁾ 및 상해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세는 모두 확대됨.
 -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22.4%, 21.0% 증가한 2,446억 위안, 138억 위안을 기록함.
 - 건강보험은 2015년 5월 발표된 세금 우대 정책³⁵⁾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75.6% 증가한 574억 위안으로 나타남.
 - 한편, 2015년 생명보험,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 수입보험료는 각각 전년대비 21.5%, 51.9%, 17.1% 증가한 1조 3,242억 위안, 2,410억 위안, 636억 위안임.

〈표 14〉 인보험 수입보험료 ^{1),2),3)}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4		2015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인보험	보험료	2,439	13,031	6,446	3,238	3,445	3,158	16,288
	증가율 ⁴⁾	10.9	18.4	22.9	23.4	26.4	29.5	25.0
생명보험	보험료	1,998	10,902	5,633	2,477	2,685	2,446	13,242
	증가율 ⁴⁾	8.9	15.7	22.3	19.1	21.2	22.4	21.5
건강보험	보험료	327	1,587	652	594	591	574	2,410
	증가율 ⁴⁾	22.9	41.3	32.5	48.1	60.8	75.6	51.9
상해보험	보험료	114	543	161	168	169	138	636
	증가율 ⁴⁾	17.5	17.6	11.8	18.3	18.1	21.0	17.1

주: 1) 기간별 실적치기준.

2) 인신보험, 인수보험, 의외상해보험을 각각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4)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33) 중국의 인보험은 한국의 생명보험에 해당하며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으로 분류함. 중국의 생명보험은 크게 전통형 상품과 투자형 상품으로 구분되어 있음. 배당금이 없는 정기보험, 종신보험, 양로보험, 연금보험은 전통형 상품으로 통칭되며 투자형 상품은 배당형 상품, 투자연계형 상품, 유니버설 상품 등이 해당됨.

34) 중국의 건강보험은 한국과 유사하며 의료보험, 질병보험, 소득보장보험, 간호보험 등이 있음.

35) 중국 정부는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개인에게 연간 2,400위안 한도에서 소득세 세전 공제를 제공하기로 결정함.

〈지급보험금〉

- 2015년 4/4분기 인보험 지급보험금은 1,112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3.6% 증가함.
- 생명보험,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은 각각 822억 위안, 247억 위안, 43억 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31.9%, 42.3%, 20.5% 증가함.
- 한편, 2015년 인보험은 4,48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30.7% 증가함.

〈표 15〉 인보험 지급보험금^{1),2),3)}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4		2015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인보험	보험금	832	3,428	1,397	973	999	1,112	4,480
	증가율 ⁴⁾	34.8	23.6	36.3	22.7	28.4	33.6	30.7
생명보험	보험금	623	2,728	1,195	778	771	822	3,565
	증가율 ⁴⁾	36.4	21.1	38.5	21.8	27.7	31.9	30.7
건강보험	보험금	173	571	169	162	186	247	763
	증가율 ⁴⁾	34.9	38.9	27.1	30.6	32.4	42.3	33.6
상해보험	보험금	35	128	33	34	42	43	152
	증가율 ⁴⁾	11.9	17.3	13.8	13.3	25.1	20.5	18.2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
 2) 인신보험, 인수보험, 의외상해보험을 각각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4)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지급률〉

- 2015년 4/4분기 인보험 지급률은 35.2%로 2015년 3/4분기에 비해 6.2%p 증가함.
- 생명보험,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은 각각 전분기에 비해 4.9%p, 11.6%p, 5.9%p 증가함.
- 한편, 2015년 인보험 지급률은 27.5%로 2014년에 비해 1.2%p 증가함.

〈표 16〉 인보험 지급률^{1),2),3)}

(단위: %)

구분	2014		2015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인보험	34.1	26.3	21.7	30.0	29.0	35.2	27.5
생명보험	31.2	25.0	21.2	31.4	28.7	33.6	26.9
건강보험	53.0	36.0	25.9	27.3	31.4	43.0	31.7
상해보험	31.0	23.7	20.5	20.2	25.0	30.9	23.9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

2) 인신보험, 인수보험, 의외상해보험을 각각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5년 4/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중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015년 3/4분기와 비교할 때 하락한 데 반해, 외국계 생명보험회사는 상승함.

- 중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91.5%로 전분기에 비해 2.0%p 하락하였으나, 외국계 생명보험회사는 전분기 6.5%에서 8.5%로 상승함.
- 한편, 중국계 생명보험회사 중 상위 5사³⁶⁾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에 비해 7.0%p 하락한 46.6%로 나타났으며, 외국계 생명보험회사 중 상위 3사는 ICBC-AXA Life, AIA China, Generali China인 것으로 조사됨.

〈표 17〉 생명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1),2)}

(단위: %)

구분		2014		2015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인보험	중국계	상위 5사	61.1	62.5	60.3	57.2	53.6	46.6	55.6
		중·소형사 ³⁾	31.7	31.8	34.3	37.3	39.9	44.9	38.1
		소계	92.7	94.2	94.6	94.4	93.5	91.5	93.8
	외국계	7.3	5.8	5.4	5.6	6.5	8.5	6.2	

주: 1) 시장 점유율은 해당기간별 수치임.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중·소형사는 상위 5사와 외국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36) 중국계 생명보험회사 중 상위 5사는 중국런쇼우생명, 중국핑안생명, 중국타이핑양생명, 신화생명, 중국런민생명이며,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17.4%, 14.4%, 6.2%, 5.6%, 3.0%임(2015년 4/4분기 기준).

다. 손해보험

〈수입보험료〉³⁷⁾

■ 2015년 4/4분기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2,084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2.0% 증가함.

○ 한편, 2015년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7,995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1.0% 증가함.

〈표 18〉 손해보험 수입보험료^{1),2)}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4		2015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손해보험	보험료 ³⁾	1,862	7,203	1,979	2,039	1,893	2,084	7,995
	증가율 ⁴⁾	17.0	16.0	12.6	9.3	10.1	12.0	11.0

주: 1) 재산보험을 손해보험으로 의역함.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4)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지급보험금〉

■ 2015년 4/4분기 손해보험 지급보험금은 1,302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3.6% 증가함.

○ 한편, 2015년 손해보험 지급보험은 4,194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0.7% 증가함.

〈표 19〉 손해보험 지급보험금^{1),2),3)}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4		2015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손해보험	보험금	1,147	3,788	915	920	1,058	1,302	4,194
	증가율 ⁴⁾	5.5	10.2	9.7	4.7	13.9	13.6	10.7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2) 재산보험을 손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4)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37)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원수보험료가 아니고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손해보험의 보험료를 발표하고 있음.

〈지급률〉

- 2015년 4/4분기 손해보험 지급률은 62.5%로 2015년 3/4분기에 비해 6.6%p 증가함.
- 한편, 2015년 손해보험 지급률은 52.5%로 2014년에 비해 0.1%p 소폭 하락함.

〈표 20〉 손해보험 지급률^{1),2),3)}

(단위: %)

구분	2014		2015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손해보험	61.6	52.6	46.2	45.1	55.9	62.5	52.5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
 2) 재산보험을 손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5년 4/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중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015년 3/4분기에 비해 소폭 하락한데 반해, 외국계 손해보험회사는 소폭 상승함.
- 중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에 비해 0.1%p 하락한 97.8%로 나타났으나, 외국계 손해보험회사는 전분기 2.1%에서 2.2%로 상승함.
- 한편, 중국계 손해보험회사 상위 3사³⁸⁾의 시장점유율은 62.6%로 전분기에 비해 1.7%p 하락하였으며, 외국계 손해보험회사 중 상위 3사는 AXA Tianping P&C, Groupama-Avic, AIG인 것으로 조사됨.

38) 중국계 손해보험회사 중 상위 3사는 중국런민재산, 중국평안재산, 중국타이핑양재산이며,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32.1%, 19.4%, 11.1%임(2015년 4/4분기 기준).

〈표 21〉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1),2)}

(단위: %)

구분		2014		2015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손해 보험	중국계	상위 3사	62.8	64.7	65.0	64.2	64.3	62.6	64.0
		중·소형사 ³⁾	34.4	33.1	33.1	33.8	33.6	35.2	33.9
		소계	97.1	97.8	98.1	97.9	97.9	97.8	97.9
	외국계	2.9	2.2	1.9	2.1	2.1	2.2	2.1	

주: 1) 기간별 점유율은 해당기간에 대한 수치임.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 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중·소형사는 상위 3사와 외국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라. 연금보험³⁹⁾

2015년 4/4분기 연금보험회사의 수탁보험료는 204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1.9% 증가하였고, 누적 운용보험료는 4,169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7.4% 증가함.

○ 한편, 2015년 연금보험회사의 수탁보험료는 874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44.1% 증가함.

〈표 22〉 중국 연금보험 수입보험료 및 자산 운용 현황¹⁾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4		2015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수탁보험료 ²⁾	금액	168	607	256	248	166	204	874
	증가율 ²⁾	17.4	3.1	54.2	75.9	25.3	21.9	44.1
누적 운용 보험료	금액	3,160	3,160	3,479	3,837	3,881	4,169	4,169
	증가율 ³⁾	7.2	26.6	10.1	10.3	1.2	7.4	31.9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2) 수탁보험료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임.

3) 전분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39) 중국은 2004년 4월부터 연금보험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였으며, 2007년 10월부터 연금보험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연금보험회사를 정식으로 허용함. 현재까지 중국 내에 설립된 연금보험회사는 타이핑, 평안, 런쇼우, 장장, 타이강 등 5개 회사임.

조사 개요 및 출처

■ 중국 보험산업은 한국의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인보험(人身保險)과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재산보험(財產保險)으로 구분되는데, 중국 보험산업을 감독하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http://www.circ.gov.cn>)에서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월별 누적 통계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및 주요 경영실적 등 경영지표 분석을 위해 보험산업경영현황표(保險業經營情況表)를 사용함.
- 또한, 인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人身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와 손해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財產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를 활용해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분석을 시도함.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중국보험연감> 분류 기준에 근거해 인보험을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으로 분류해 기술함.

- 생명보험은 투자형 상품인 배당형 상품, 투자연계형 상품, 유니버설 상품과 저축성 위주의 전통형 상품으로 분류함.

■ 중국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변경 전	변경 후
재산보험(財產保險)	손해보험
인신보험(人身保險)	인보험
인신의외상해보험(人身意外傷害保險)	상해보험

■ 실적치는 보험회사들이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속보 자료로 연말에 최종 집계되는 데이터와 다소 다를 수 있음.

부 록. 통계표

〈부록 표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1/4	2/4	3/4	4/4	
국내총생산 성장률	3.9	3.4	3.4	2.7	2.4	2.2	2.8	3.1	
경상수지	13,149	24,108	20,665	26,451	22,439	27,918	29,108	26,406	
수출	137,536	145,672	141,759	147,697	133,400	135,104	128,235	130,017	
수입	132,366	130,957	132,840	129,351	111,767	110,497	107,960	106,275	
실업률	4.0	3.7	3.3	3.2	4.1	3.8	3.4	3.1	
금리	국고채(3년)	2.87	2.82	2.50	2.17	1.98	1.80	1.72	1.70
	회사채(3년)	3.30	3.25	2.89	2.51	2.26	2.04	1.98	2.07
소비자물가지수	108.76	109.13	109.36	108.90	109.37	109.71	110.10	110.06	
환율	원/달러	1,069.01	1,030.38	1,025.76	1,086.72	1,100.26	1,097.77	1,167.80	1,157.69
	원/엔화	1,039.62	1,008.72	988.33	949.95	923.39	904.73	955.75	953.07
KOSPI	1,946.13	1,993.47	2,041.86	1,948.13	1,964.87	2,095.29	1,983.39	1,999.03	
외환보유고	354,341	366,546	364,407	363,593	362,750	374,749	368,114	367,962	

주: 1) 환율, 주가지수는 분기평균임.

2)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10년 연쇄가격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부록 표 2〉 금융기관 수신

(단위: 억 원)

구분	2014				2015				2016
	1/4	2/4	3/4	4/4	1/4	2/4	3/4	4/4	1/4
보험 ¹⁾	133,551	145,570	135,769	196,083	139,618	149,469	151,589	202,313	-
- 생보	101,936	110,963	104,478	165,865	104,840	114,114	121,369	162,090	-
수입보험료	257,467	264,960	255,554	327,771	273,358	278,525	271,624	348,629	-
지급보험금	155,531	153,998	151,076	161,906	168,518	164,412	150,255	186,539	-
- 손보	31,615	34,607	31,291	30,218	34,778	35,355	30,219	40,222	-
원수보험료	183,082	180,217	179,023	223,433	193,204	192,156	188,827	225,647	-
원수손해액	151,466	145,610	147,732	193,215	158,425	156,802	158,608	185,425	-
은행	272,496	250,005	76,442	391,862	138,338	370,258	407,283	412,913	169,501
- 일반 ²⁾	199,612	231,527	32,411	314,189	28,931	327,515	338,489	296,116	110,081
- 신탁	72,884	18,478	44,031	77,673	109,407	42,743	68,794	116,797	59,420
증권 ³⁾	6,904	19,088	53,478	-6,648	65,495	55,742	-3,238	4,222	-20,384
자산운용 ⁴⁾	96,918	16,946	196,161	160,044	278,994	163,004	80,769	-45,360	235,149
총금 ⁵⁾	8,863	2,733	826	3,420	- 6,816	8,403	5,195	-1,453	4,634

주: 1)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2) 실세총예금 + CD 순발행액

3) 고객예탁금 + RP 매도 + CMA

4) 채권형 + MMF + 혼합형 + 주식형 + 기타

5) 발행어음 + CMA 예탁금 + 어음매출

자료: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부록 표 3〉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증가율 및 구성비^{1),2)}

(단위: 억 원, %)

구분	2014				2015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존	보험료	60,647	58,776	62,910	240,340	62,882	61,157	61,327	61,482	246,848
	증가율	14.1	8.9	13.4	-7.6	8.4	0.8	4.3	-2.3	2.7
	초회보험료	17,890	15,262	17,443	66,636	17,646	15,243	15,071	14,238	62,198
	계속보험료	42,757	43,514	45,467	173,704	45,237	45,914	46,256	47,244	173,704
사망	보험료	82,133	83,131	85,238	331,788	89,041	88,434	90,538	92,349	360,361
	증가율	4.1	4.6	6.2	4.6	9.5	7.7	8.9	8.3	8.6
	초회보험료	2,250	2,004	3,717	10,720	6,482	4,015	5,346	4,479	20,272
	계속보험료	79,883	80,527	81,521	321,069	82,609	84,418	85,191	87,871	321,069
생사 혼합	보험료	51,639	49,171	49,038	200,544	51,932	53,500	51,152	57,187	213,771
	증가율	8.5	6.4	6.8	-3.5	2.4	3.6	4.0	16.6	6.6
	초회보험료	12,695	9,945	8,935	44,185	11,628	10,807	8,719	12,015	43,169
	계속보험료	38,945	39,226	40,103	156,359	40,304	42,693	42,433	45,172	156,360
변역 보험	보험료	51,246	51,622	51,957	206,709	51,122	53,539	52,629	49,140	206,431
	증가율	-2.5	0.5	0.9	-1.9	-1.5	4.5	2.0	-5.4	-0.1
	초회보험료	2,524	2,819	2,504	10,451	2,348	3,942	4,168	2,377	12,831
	계속보험료	48,722	48,803	49,453	196,259	48,779	49,597	48,461	46,763	847,391
개인계	보험료	245,665	242,701	249,143	979,382	254,977	256,631	255,646	260,158	1,027,412
	증가율	5.8	5.0	6.8	-1.7	5.4	4.5	5.3	4.4	4.9
	초회보험료	35,358	30,631	32,599	131,991	38,048	34,008	33,304	33,109	138,470
	계속보험료	210,307	212,070	216,543	847,391	216,929	222,623	222,342	227,049	196,259
일반 단체	보험료	2,021	1,999	1,877	8,150	2,105	1,906	1,879	1,845	7,735
	증가율	-12.0	2.5	-2.3	-2.5	-6.6	-5.7	-6.0	-1.7	-5.1
	초회보험료	269	284	214	1,266	479	258	289	255	1,281
	계속보험료	1,751	1,715	1,663	6,884	1,625	1,648	1,590	1,590	6,454
퇴직 연금	보험료	17,275	10,854	76,751	118,221	16,276	19,988	14,100	86,626	136,990
	증가율	65.0	54.9	46.9	45.4	22.0	15.7	29.9	12.9	15.9
	초회보험료	7,238	4,548	33,745	51,381	6,337	3,924	4,317	28,858	43,436
	계속보험료	10,037	6,306	43,006	66,841	9,939	16,064	9,783	57,768	93,553
단체계 ¹⁾	보험료	19,295	12,853	78,629	126,371	18,381	21,895	15,979	88,471	144,725
	증가율	51.2	43.5	45.2	45.8	17.9	13.5	24.3	12.5	15.9
	초회보험료	7,507	4,833	33,959	52,646	6,816	4,183	4,606	29,112	44,717
	계속보험료	11,788	8,021	44,669	73,725	11,564	17,712	11,373	59,359	73,725
합계	보험료	264,960	255,554	327,771	1,105,753	273,358	278,525	271,624	348,629	1,172,137
	증가율	8.1	6.5	14.1	1.9	6.2	5.1	6.3	6.4	6.0

주: 1) 단체보험에는 일반단체보험, 퇴직보험, 퇴직연금이 포함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부록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지급보험금 증가율 및 보험금 지급률^{1),2),3)}

(단위: 억 원, %)

구분	2014				2015					
	2/4	3/4	4/4	연간 ⁴⁾	1/4	2/4	3/4	4/4	연간	
생존 보험	지급보험금	30,000	31,034	33,554	125,365	33,783	34,524	35,582	38,160	142,048
	증가율	15.0	17.4	12.4	12.9	9.8	15.1	14.7	13.7	13.3
	지급률	49.5	52.8	53.3	52.2	53.7	56.5	58.0	62.1	57.5
사망 보험	지급보험금	41,527	42,686	43,569	173,147	44,961	42,363	42,408	44,450	174,183
	증가율	-3.1	-0.4	-1.5	-1.6	-0.9	2.0	-0.7	2.0	0.6
	지급률	50.6	51.3	51.1	52.2	50.5	47.9	46.8	48.1	48.3
생사 혼합 보험	지급보험금	30,000	29,169	28,512	120,537	32,693	29,682	27,718	27,589	117,682
	증가율	8.5	15.9	2.9	11.4	-0.5	-1.1	-5.0	-3.2	-2.4
	지급률	58.1	59.3	58.1	60.1	63.0	55.5	54.2	48.2	55.1
변액 보험	지급보험금	32,993	33,595	29,620	125,012	33,278	37,211	29,418	30,828	130,736
	증가율	26.0	19.9	-10.2	6.4	15.5	12.8	-12.4	4.1	4.6
	지급률	64.4	65.1	57.0	60.5	65.1	69.5	55.9	62.7	63.3
개인 보험계	지급보험금	134,520	136,484	135,255	544,062	144,715	143,780	135,126	141,028	564,649
	증가율	9.6	11.4	0.4	6.1	5.0	6.9	-1.0	4.3	3.8
	지급률	54.8	56.2	54.3	55.6	56.8	56.0	52.9	54.2	55.0
일반 단체	지급보험금	2,462	2,735	2,146	9,905	2,428	2,243	2,046	2,136	8,853
	증가율	7.1	24.2	-6.1	10.4	-5.2	-8.9	-25.2	-0.5	-10.6
	지급률	121.8	136.8	114.3	121.5	115.4	117.7	108.9	115.7	114.5
퇴직 연금	지급보험금	17,016	11,857	24,505	68,544	21,375	18,389	13,083	43,375	96,222
	증가율	61.3	75.4	64.9	53.8	40.9	8.1	10.3	77.0	40.4
	지급률	98.5	109.2	31.9	58.0	131.3	92.0	92.8	50.1	70.2
단체 보험계	지급보험금	19,478	14,592	26,651	78,449	23,803	20,631	15,129	45,511	105,075
	증가율	51.6	62.8	55.4	46.6	34.3	5.9	3.7	70.8	33.9
	지급률	100.9	113.5	33.9	62.1	129.5	94.2	94.7	51.4	72.6
전체	지급보험금	153,998	151,076	161,906	622,511	168,518	164,412	150,255	186,539	669,724
	증가율	13.5	14.9	6.6	10.0	8.4	6.8	-0.5	15.2	7.6
	지급률	58.1	59.1	49.4	56.3	61.6	59.0	55.3	53.5	57.1

주: 1)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2)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퇴직연금이 포함된 실적이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부록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사업비증가율 및 사업비율^{1),2),3),4)}

(단위: 억 원, %)

구분		2014				2015				
		2/4	3/4	4/4	연간 ⁶⁾	1/4	2/4	3/4	4/4	연간
생존 보험	사업비	8,116	7,566	8,482	31,737	7,907	7,623	7,433	7,490	30,454
	증가율	3.3	-4.6	-3.0	-9.1	4.4	-6.1	-1.8	-11.7	-4.0
	사업비율	13.4	12.9	13.5	13.2	12.6	12.5	12.1	12.2	12.3
사망 보험	사업비	25,941	24,297	27,531	101,100	25,238	25,608	26,518	28,422	105,786
	증가율	12.1	2.4	8.8	3.7	8.2	-1.3	9.1	3.2	4.6
	사업비율	31.6	29.2	32.3	30.5	28.3	29.0	29.3	30.8	29.4
생사 혼합 보험	사업비	4,505	4,400	4,548	17,830	4,102	3,977	3,799	3,933	15,811
	증가율	-4.4	-2.9	-7.3	-11.3	-6.3	-11.7	-13.6	-13.5	-11.3
	사업비율	8.7	8.9	9.3	8.9	7.9	7.4	7.4	6.9	7.4
개인 보험계	사업비	38,562	36,263	40,560	150,667	37,247	37,209	37,750	39,844	152,050
	증가율	8.0	0.2	4.1	-1.2	5.6	-3.5	4.1	-1.8	0.9
	사업비율	15.7	14.9	16.3	15.4	14.6	14.5	14.8	15.3	14.8
단체 보험계	사업비	1,267	994	1,127	4,447	986	958	980	1,060	3,985
	증가율	26.1	-8.1	-15.5	-4.2	-6.8	-24.4	-1.4	-5.9	-10.4
	사업비율	6.6	7.7	1.4	3.5	5.4	4.4	6.1	1.2	2.8
전체	사업비	39,830	37,257	41,687	155,115	38,234	38,167	38,731	40,904	156,035
	증가율	8.5	0.0	3.5	-1.3	5.2	-4.2	4.0	-1.9	0.6
	사업비율	15.0	14.6	12.7	14.0	14.0	13.7	14.3	11.7	13.3

주: 1)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3)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퇴직연금이 포함된 실적임.

4) 변액보험 사업비는 일반계정에 포함됨에 따라 표에 기재되지 않음.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부록 표 6〉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및 비중^{1),2)}

(단위: 억 원, %)

구분		2014			2015				
		3/4	4/4	연간 ³⁾	1/4	2/4	3/4	4/4	연간 ³⁾
화재	보험료	703	905	3,106	728	736	683	893	7,091
	증가율	-4.3	-1.9	-3.6	-4.0	-0.4	-2.8	-1.3	-3.4
	구성비	0.4	0.4	0.4	0.4	0.4	0.4	0.4	0.9
해상	보험료	1,839	1,830	7,343	1,880	1,837	1,820	1,554	149,914
	증가율	-18.5	11.7	-2.2	7.6	-4.7	-1.0	-15.1	10.7
	구성비	1.0	0.8	1.0	1.0	1.0	1.0	0.7	18.7
자동차	보험료	34,259	35,183	135,484	35,298	37,269	37,355	39,992	15,816
	증가율	6.4	6.9	5.2	9.0	10.7	9.0	13.7	4.4
	구성비	19.1	15.7	17.7	18.3	19.4	19.8	17.5	2.0
보증	보험료	3,611	4,048	15,152	3,898	4,054	3,713	4,150	51,622
	증가율	4.3	1.8	-0.6	1.5	11.0	2.8	2.5	3.3
	구성비	2.0	1.8	2.0	2.0	2.1	2.0	1.8	6.4
특종 ²⁾	보험료	11,533	12,793	49,991	13,347	13,651	11,536	13,088	5,309
	증가율	-1.2	2.9	1.2	6.2	4.2	0.0	2.3	-9.0
	구성비	6.4	5.7	6.5	6.9	7.1	6.1	5.7	0.7
해외 원보험	보험료	1,442	1,559	5,832	1,217	1,122	1,557	1,413	465,801
	증가율	-14.6	-11.5	-6.8	-11.5	-22.9	8.0	-9.3	4.9
	구성비	0.8	0.7	0.8	0.6	0.6	0.8	0.6	58.0
장기 손해	보험료	111,241	112,412	444,037	116,499	115,632	116,554	117,116	40,211
	증가율	4.9	5.9	6.1	5.1	5.6	4.8	4.2	-2.1
	구성비	62.1	50.3	58.0	60.3	60.2	61.7	51.3	5.0
개인 연금	보험료	10,200	10,295	41,090	10,066	10,015	9,994	10,137	40,211
	증가율	-3.5	-3.2	-3.2	-2.7	-2.3	-2.0	-1.5	-2.1
	구성비	5.7	4.6	5.4	5.2	5.2	5.3	4.4	5.0
퇴직 연금	보험료	4,195	44,408	63,718	10,270	7,840	5,639	39,905	63,653
	증가율	66.0	98.5	78.9	11.5	32.8	34.4	-10.1	-0.1
	구성비	2.3	19.9	8.3	5.3	4.1	3.0	17.5	7.9
계	보험료	179,023	223,433	765,754	193,204	192,156	188,851	228,261	802,473
	증가율	4.6	15.9	8.3	5.5	6.6	5.5	2.2	4.8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임.

2)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 원수보험료가 포함되고 부수사업 원수보험료는 제외됨.

3) 2014는 2014년 1~12월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3년 1~12월 수치와 비교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부록 표 7〉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사업비율 및 합산비율^{1),2),3)}

(단위: %)

구분		2014		2015			
		3/4	4/4	1/4	2/4	3/4	4/4
화재보험	경과손해율	53.4	45.4	66.6	43.5	57.7	32.3
	사업비율	48.1	44.3	55.1	49.7	48.2	50.4
	합산비율	101.5	89.7	121.7	93.2	105.9	82.7
해상보험	경과손해율	44.3	85.4	55.1	70.1	94.3	69.8
	사업비율	36.8	45.5	25.1	20.0	30.2	45.5
	합산비율	81.1	130.9	80.1	90.1	124.5	115.3
보증보험	경과손해율	70.8	41.6	81.5	50.3	54.3	26.9
	사업비율	11.0	20.0	38.3	17.0	17.8	21.3
	합산비율	81.8	61.5	119.8	67.3	72.0	48.2
특종보험	경과손해율	67.7	66.5	65.1	67.1	70.3	65.5
	사업비율	19.7	19.4	21.5	17.3	21.1	20.2
	합산비율	87.4	85.9	86.6	84.4	91.4	85.7
해외원보험	경과손해율	98.1	124.7	84.2	135.0	235.2	15.5
	사업비율	40.7	62.2	52.3	58.2	38.4	69.3
	합산비율	138.8	186.9	136.5	193.2	273.6	84.8
해외수재	경과손해율	67.1	83.2	50.2	61.7	76.1	72.7
	사업비율	27.6	29.3	30.2	30.6	31.1	30.4
	합산비율	94.8	112.5	80.5	92.3	107.3	103.1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89.3	95.5	85.6	84.8	87.7	92.2
	사업비율	19.4	19.4	19.7	19.8	18.9	19.2
	합산비율	108.7	114.9	105.3	104.6	106.6	111.4
장기보험 ³⁾	경과손해율	85.2	86.1	86.0	84.5	84.1	84.5
	사업비율	18.0	18.5	18.2	18.1	18.3	20.1
	합산비율	103.2	104.7	104.1	102.5	102.4	104.6
전체	경과손해율	83.9	85.6	83.6	82.3	83.7	82.9
	사업비율	18.8	19.4	19.6	18.9	19.1	20.6
	합산비율	102.7	105.1	103.2	101.1	102.8	103.4

주: 1)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 수치임.

2)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사업비율 =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합산비율 = 손해율 + 사업비율

3) 경과손해율은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재무손해율(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 감안) 개념임.

4) 재보험회사의 발생손해액 환급금을 일부 제외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장동식·김동겸 2008.1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이경희·김동겸 2008.3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 안철경·권오경 2009.1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이혜은 2009.3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이창우·김동겸 2009.3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김대환 2009.8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김대환·김혜란 2010.1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이혜은 2010.4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이경희 2010.5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 익·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최 원 2008.3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이태열·신중협·황진태·유진아·김세환·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8.11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 익·이민환·유경원·최영목·최형선·최 원·이경아·이혜은 2009.2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이종욱 2009.3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황진태·변혜원·이경희·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9.12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변혜원·권오경 2010.1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김대환·이경희·이정환·최 원·김세중

- 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안철경·변혜원·최영목·최형선·김경환·이상우·박정희·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류건식·오영수·조용운·진 익·유진아·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황진태·이정환·최 원·김세중·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이기형·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변혜원·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유진아·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임준환·김해식·이경희·조영현·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이정환·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 익·오병국·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김해식·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강민규·이해랑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김해식·김석영 2014.3
-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강성호·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억·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김경환·김미화 2014.12
-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조재린·이경아 2015.2
- 2015-2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억·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5.11
- 2016-1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 강성호·정봉은·김유미 2016.2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 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 익·유시용·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최 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장동식·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최영목·김소연·장동식·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변혜원·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김소연·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기승도·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황진태·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류건식·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전용식·이혜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① sure 4.0 / 진 익·김동겸·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김석영·김세영·이혜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류건식·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황진태·권용재·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조용운·이소양 2013.5

- 2016-1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 / 임준환·정봉은·황인창·이혜은·김혜란·정승연 2016.4
- 2016-2 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연구: 지방자치단체 자금조달 시장을 중심으로 / 최창희·황인창·이경아 2016.5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김진익·지재원·박정희·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기승도·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이상우·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이정환·최이섭·정중영·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 익·김상수·김종훈·변귀영·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전선애·최 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오영수·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이민환·윤건용·최 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김세환·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최형선·최 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계와 시사점 / 이창우·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서대교·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 익·김해식·유진아·김동결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황진태·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최 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 익·김해식·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변혜원·이승준·김경환·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전용식·윤상호·기승도·이상우·최 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 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황진태·변혜원·정원석·박선영·이상우·최 원 2013.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황진태·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변혜원·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강성호·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박선영·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윤성훈·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오승연·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강민규·이해랑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변혜원·정원석·박선영·오승연·이상우·최 원 2014.8
-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김세중·김혜란 2014.11
-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조영현·채원영 2014.12
-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5.1
-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조재린·김혜란 2015.2
-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 -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 최창희·정인영 2015.3
-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황진태·이선주 2015.3
-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오승연·김유미 2015.8

- 2016-1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 전용식·조영현 2016.2
 2016-2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 이승준·민세진 2016.3
 2016-3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 김해식·김세중·김현경 2016.4
 2016-4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 전용식·송윤아·채원영 2016.4
 2016-5 금융·보험세제연구: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 정원석·임준·김유미 2016.5

■ 조사자료집

-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원·김세중 2014.6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 장동식·이정환 2014.8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정원석·김동겸 2015.1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실태 도입방안 / 정봉은·이선주 2015.2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이해랑 2015.4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박춘원·이항용 2015.5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박선영·김유미 2015.5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김미화 2015.5
 2015-7 일반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석영·김혜란 2015.12

■ 연차보고서

- 제 1 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제 2 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제 3 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제 4 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제 5 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제 6 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제 7 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제 8 호 2015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5.12

■ 영문발간물

-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7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7
- 제 6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 CEO Report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서성민 2008.12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료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김동겸 2009.3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이상우 2009.6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이상우 2009.10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이상우·김혜란 2010.4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이기형 2010.9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이상우 2010.9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김동겸 2011.3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전용식·전성주·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윤성훈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조재린·황진태·송윤아 2014.7
-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황인창·이혜은 2014.10
-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정원석 2015.2
-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 2015-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 2016-1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 김석영 2016.1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서성민 2008.9

정기간행물

■ 간행물

- 보험동향 / 계간
- 고령화리뷰 / 연 2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도서 회원 가입 안내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 영문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9056 팩스 : (02)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보험동향』 2016년 봄호 (통권 77호)

발행일	2016년 5월
발행인	한 기 정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등 록	2015년 4월 30일(등록번호 영등포 바 00119)
주 소	073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연락처	대표전화 / 02-3775-9000
인쇄소	경성문화사 / 02-786-2999

ISSN 1228-310X

정가 10,000원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의
동향분석실(☎3775-9094)로 연락하여 주십시오.